

연구보고 17-R09-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 기초분석 보고서 -

책임연구원 김기현

공동연구원 이윤주 유설희

RESEARCH REPORT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 기초분석 보고서 -

- ▶ 책임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 ▶ 연구보조원 :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국 문 초 록

최근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환경들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청년 세대만이 갖는 특징을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생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과 현상들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실태를 조사하여, 청년 세대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2017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지표 결과를 공식적인 국가통계로서 생산 및 공표하게 되었다(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402004호).

현재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전반적인 실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① 인구와 가족(15개 항목), ② 교육과 훈련(9개 항목), ③ 경제와 고용(26개 항목), ④ 주거(7개 항목), ⑤ 건강(8개 항목), ⑥ 문화와 가치관(3개 항목), ⑦ 관계와 참여(4개 항목) 등의 7개 영역에 대한 문항과 2017년도 부가조사 항목으로 개발된 청년들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문항(5개 항목)을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 8개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39세의 일반 국민 중 2,700명으로 하였으며, 전문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면접하는 개별방문 면접조사로 수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5주간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결과물인 '기초분석보고서'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하였으며, 그에 따른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2018년도에는 핵심적인 청년정책 대상으로 '학교 신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항목을 개발해 본조사와 더불어 부가조사(special module)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제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니트(NEET), 청년 빈곤, 청년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

연구 요약

1. 조사 목적

- 최근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환경들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실정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며, 지속적으로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는 것에 반해 고용지표 결과는 실질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청년 세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본 조사는 2017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국가통계로서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지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생산 및 공표하게 되었음(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 402004호).

2. 조사 기간

- 2017년 8월 18일 - 9월 22일 (약 5주간)

3. 조사 기관

- 조사 주관 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 실사 기관 : 한국리서치

4.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39세의 일반 국민
- 조사 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조사 항목

1) 조사표 구성

- 만 15-18세용 설문지
- 만 19-39세용 설문지

2) 주요 조사 항목

- 총 8개 영역(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사회적응 등)

조사 영역	주요 조사 항목
인구와 가족	청년 연령규정, 결혼을 망설인 이유, 확대해야 하는 출산 및 육아대책 등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에 대한 생각, 우리사회 교육 관행에 대한 의견,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등
경제와 고용	선호 일자리 유형, 2019년 적정 최저임금, 직무 불일치,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등
주거	부모 동거, 공동주거 경험 및 의향, 현재 주거 형태 등
건강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수준, 규칙적 운동 여부 및 빈도 등
문화와 가치관	가치항목별 선호도,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및 요건을 갖춘 정도 등
관계와 참여	사회적 관계망, 세대갈등, 의견 표명 행동, 정치적 효능감 등
사회적응	평소 외출정도,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및 지속기간, 혼자 식사 및 술을 마신 경험 여부 등

6. 표본설계

1) 목표 모집단

- 2017년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

2) 표본추출 단위 및 표본추출틀

- 기본 조사단위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5-39세의 일반 국민
- 표본추출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명부 활용

3) 표본크기 결정

- 목표 표본크기 : 2,700명

4) 모집단 층화

- 행정구역별 층화 : 서울 및 특별·광역시(7개 지역)와 9개 도 지역을 동부와 읍·면부로 세부 층화(단, 분석 시에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권, 광주·전라·제주권, 부산·경남권 등 총 6개 단위로 통계 작성)
- 서울시 및 경기도 세부층화 : 표본의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서울을 4개 권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과 경기도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층화
- 세부 층화 : 서울 및 특별·광역시(7개 지역)와 기타 도 지역을 동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구의 특성(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55개 지역으로 층화함.

5) 표본배분

- 1단계 : 통계작성 단위인 6개 권역별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층별 조사대상자 수에 비례배분법, 제곱비례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권역별 추정결과의 통계적 정확도를 고려하여 단위별 가구 수에 대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함.
- 2단계 : 각 권역에서 시·도별 표본배분은 조사대상자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음.

6) 표본추출

- 1차 추출단위 추출 : 각 층에서 조사구 내 가구 수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함.
- 2차 추출단위 추출 : 각 표본 조사구에서 계통추출법으로 가구를 추출함. 최종적으로 선정된 가구 내에 만 15-39세 청년 가구원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추출함.

목 차

I.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3
2. 조사 대상	3
3. 조사 내용	5
4. 조사 절차	7
5. 조사 방법	9
6. 조사 일정	10
7. 무응답 현황	11
8. 표본설계 및 가중치	15
II.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표	29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31
2.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2
부 록	145
1.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 항목	147
2.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150
3.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163
4.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지침서	185

표 목 차

〈표 Ⅰ-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
〈표 Ⅰ-2〉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 항목	5
〈표 Ⅰ-3〉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승인 과정	8
〈표 Ⅰ-4〉	조사 일정	10
〈표 Ⅰ-5〉	항목 무응답	11
〈표 Ⅰ-6〉	모집단 현황(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5
〈표 Ⅰ-7〉	만 15세-39세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6
〈표 Ⅰ-8〉	모집단 현황(2010년 11월 이후 신축 후 입주한 아파트)	17
〈표 Ⅰ-9〉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18
〈표 Ⅰ-10〉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18
〈표 Ⅰ-11〉	층화 방법	18
〈표 Ⅰ-12〉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및 가구 현황	19
〈표 Ⅰ-13〉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20
〈표 Ⅰ-14〉	권역별 표본배분 현황	21
〈표 Ⅰ-15〉	권역별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예상)	21
〈표 Ⅰ-16〉	시·도별 표본 조사구 수	22
〈표 Ⅰ-17〉	시·도별 일반가구와 신축아파트 가구 현황	22
〈표 Ⅰ-18〉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23
〈표 Ⅰ-19〉	지역별 가구당 평균 조사 대상자 수 현황(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4
〈표 Ⅰ-20〉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남자(2017년 장래인구추계)	26
〈표 Ⅰ-21〉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여자(2017년 장래인구추계)	26
〈표 Ⅱ-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32
〈표 Ⅱ-2〉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 시기 및 필요성	33

〈표 II-3〉	결혼 시기 및 필요성	34
〈표 II-4〉	자녀를 가질 시기 및 필요성	35
〈표 II-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36
〈표 II-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37
〈표 II-7〉	결혼 준비 경험 여부	38
〈표 II-8〉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39
〈표 II-9〉	결혼을 망설임 이유	40
〈표 II-10〉	맞벌이 여부	41
〈표 II-11〉	현재 자녀 존재 여부	42
〈표 II-12〉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43
〈표 II-13〉	2025년 출산율 전망	44
〈표 II-14〉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45
〈표 II-15〉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46
〈표 II-16〉	2025년 입시경쟁 전망	47
〈표 II-17〉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48
〈표 II-18〉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49
〈표 II-19〉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은 중요하다	50
〈표 II-2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51
〈표 II-21〉	대학 전공 계열	52
〈표 II-22〉	대학 미진학 사유	53
〈표 II-23〉	향후 대학 진학 의향	54
〈표 II-24〉	취업준비 여부	55
〈표 II-2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	56

〈표 II-26〉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57
〈표 II-27〉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58
〈표 II-28〉	2019년 적정 최저 임금	59
〈표 II-29〉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60
〈표 II-30〉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61
〈표 II-31〉	집 관련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선택 항목	62
〈표 II-32〉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63
〈표 II-33〉	값아야 할 채무 여부	64
〈표 II-3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65
〈표 II-3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66
〈표 II-3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67
〈표 II-3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68
〈표 II-3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69
〈표 II-3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70
〈표 II-4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71
〈표 II-4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72
〈표 II-4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73
〈표 II-43〉	중소기업 취업 의향	74
〈표 II-44〉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75

〈표 II-45〉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76
〈표 II-46〉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77
〈표 II-47〉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78
〈표 II-48〉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79
〈표 II-49〉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80
〈표 II-50〉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81
〈표 II-51〉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82
〈표 II-52〉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83
〈표 II-53〉	니트 관련_1) 지난주에 주로 한 일	84
〈표 II-54〉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85
〈표 II-5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86
〈표 II-56〉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87
〈표 II-5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88
〈표 II-58〉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89
〈표 II-59〉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90
〈표 II-60〉	일하는 곳	91
〈표 II-61〉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92
〈표 II-62〉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93
〈표 II-63〉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94
〈표 II-64〉	이직 의향	95
〈표 II-65〉	이직 희망 사유	96
〈표 II-66〉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97
〈표 II-67〉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98
〈표 II-68〉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99

〈표 II-69〉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00
〈표 II-70〉	공동주거 경험 및 향후 의향	101
〈표 II-71〉	부모 동거 여부	102
〈표 II-72〉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103
〈표 II-73〉	현재 미혼 1인 가구 여부	104
〈표 II-74〉	현재 주거 형태	105
〈표 II-75〉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106
〈표 II-76〉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	107
〈표 II-77〉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108
〈표 II-78〉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109
〈표 II-79〉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110
〈표 II-80〉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111
〈표 II-81〉	규칙적인 운동 여부	112
〈표 II-82〉	규칙적인 운동 빈도	113
〈표 II-83〉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114
〈표 II-84〉	성형수술 경험	115
〈표 II-85〉	성형수술 목적	116
〈표 II-86〉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117
〈표 II-87〉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와 여가 중시	118
〈표 II-88〉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와 이상 중시	119
〈표 II-89〉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와 과정 중시	120
〈표 II-90〉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와 집단 중시	121

〈표 II-9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122
〈표 II-92〉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123
〈표 II-93〉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124
〈표 II-94〉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125
〈표 II-95〉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126
〈표 II-96〉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127
〈표 II-97〉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128
〈표 II-98〉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129
〈표 II-99〉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130
〈표 II-100〉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131
〈표 II-101〉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132
〈표 II-102〉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133
〈표 II-103〉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134
〈표 II-104〉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135
〈표 II-105〉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_5) 항의 전화하기	136
〈표 II-106〉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37
〈표 II-107〉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138
〈표 II-108〉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9

〈표 II-109〉 평소 외출 정도	140
〈표 II-110〉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141
〈표 II-11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142
〈표 II-112〉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143
〈표 II-113〉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144

제 I 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내용
4. 조사 절차
5. 조사 방법
6. 조사 일정
7. 무응답 현황
8. 표본설계 및 가중치

제 I 장
조사 개요¹⁾

1. 조사 목적

최근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실정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지속되는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는 있으나, 청년 고용지표 결과는 실질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점차 심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세대가 가진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들이 생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건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 생활을 비롯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결혼, 양육, 출산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청년 세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사 대상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39세의 일반 국민이며, 표본 크기는 2,700명으로 산정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14명이 조사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1>과 같다. 성별로 나누어보

1) 이 장은 유선희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다.

면, 남자는 1,412명(52.0%), 여자는 1,302명(48.0%)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5-18세가 422명(15.5%), 만 19-29세는 1,150명(42.4%), 만 30-39세는 1,142명(42.1%)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510명(18.8%)이 조사되었고, 인천 및 경기에서는 648명(23.9%), 대전과 충청, 세종, 강원에서는 410명(15.1%), 광주, 전라, 제주에서는 363명(13.4%),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는 421명(15.5%), 대구와 경북에서는 362명(13.3%)이 조사되었다. 학력별로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이 393명(14.5%)이었으며,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인 경우는 550명(20.3%)이었다. 현재 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에 학력이 고졸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은 549명(20.2%), 대졸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222명(45.0%)이었다. 또한,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응답한 사람은 1,426명(52.5%)이었으며, 원가정에서 독립하지는 않았지만 따로 나와서 살거나 원가정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는 1,288명(47.5%)이었다.

표 I-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714	100.0
성별	남자	1,412	52.0
	여자	1,302	48.0
연령	만 15-18세	422	15.5
	만 19-29세	1,150	42.4
	만 30-39세	1,142	42.1
지역	서울	510	18.8
	인천/경기	648	23.9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5.1
	광주/전라/제주	363	13.4
	부산/울산/경남	421	15.5
	대구/경북	362	13.3
학력	중·고등학생	393	14.5
	대학생/대학원생	550	20.3
	고졸이하	549	20.2
	대졸이상	1,222	45.0
주거형태	동거	1,426	52.5
	비동거/독립	1,288	47.5

3. 조사 내용

본 조사는 2013년과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선행 조사의 문항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2017년도 조사에서는 전문가 및 연구진이 조사표 검토를 실시하고 핵심지표에 따른 중점문항을 선별함으로써 2016년 대비 조사 항목을 축소하였고,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이고자 설문문항의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 항목은 총 8개 영역(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사회적응)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영역 및 조사 항목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 I-2>와 같다.

표 I-2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 항목

조사내용 (*는 2017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용	만19-39세용
1.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문1	문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 시기	문2	문2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문3	문3
	자녀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문4	문4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문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문6
	결혼 준비 경험 여부	-	문7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	문7-1
	결혼을 망설임 이유*	-	문7-2
	맞벌이 유무	-	문8
	현재 자녀 존재 유무	-	문9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문10
	2025년 출산율 전망	-	문11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문5	문12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문5-1	문12-1
2.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문6	문13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문7(1)-(3)	문14(1)-(3)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	문15
	졸업 유예 위해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문16
	대학 미진학 사유	-	문17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문8	문18
	취업 준비 여부	문9	문19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문10	문20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	문21

조사내용 (*는 2017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용	만19-39세용
3. 경제와 고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문11	문22
	2019년 걱정 최저 임금	문12	문23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문13	문24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문14	문25
	집 관련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선택 항목	문15	문26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문16	문27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자원받는 비율*	문16-1	문27-1
	값아야 할 채무 여부	-	문2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문17	문29
	중소기업 취업 의향	문18	문30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18-1	문30-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문31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문32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32-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32-2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문33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문34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	문35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	문36
	니트 관련_1) 지난주에 주로 한 일*	-	문37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	문3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문39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	문40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문41
	이직 의향	-	문42
	이직 희망 사유	-	문42-1
4. 주거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문19	문43
	집에 대한 생각	문20(1)-(3)	문44(1)-(3)
	공동주거 경험 여부	문21	문45
	공동주거 거주 의향	문22	문46
	부모 동거 여부	문23	문47
	향후 부모 동거 계획	문24	-
	미혼 혼자 거주 여부	-	문48
	현재 주거 형태	-	문48-1
5. 건강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문25	문49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수준*	문26(1)-(5)	문50(1)-(5)
	규칙적인 운동 여부	문27	문51
	규칙적인 운동 빈도	문27-1	문51-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문28	문52
	성형수술 경험	문29	문53
	성형수술 목적	문29-1	문53-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문29-2	문53-2

조사내용 (*는 2017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용	만19-39세용
6. 문화와 가치관	가치 항목별 선호도	문30(1)-(4)	문54(1)-(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31	문5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문32	문56
7. 관계와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수	문33	문57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문34(1)-(7)	문58(1)-(7)
	의견 표명 행동	문35(1)-(4)	문59(1)-(4)
	정치적 효능감*	문36(1)-(3)	문60(1)-(3)
8. 사회적응	평소 외출 정도*	-	문61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	문61-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	문61-2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	문62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	문63

4. 조사 절차

1) 예비조사 실시

본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사문항의 전반적인 난이도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조사표에 대한 반응과 조사 소요시간 등을 파악함으로써 실사과정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조사기관에서 만 15-18세인 중·고등학생 7명과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성인 22명, 총 29명²⁾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수행하였다. 예비조사 시, 응답자의 조사 소요시간은 평균 21.3분이었으며, 조사난이도는 평균 2.28점(5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 어려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설문문항이 응답하기에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응답자 특성별 문항 이해도와 조사시간, 추가지침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사항들이 실사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본 연구의 조사표는 만15-18세용, 만19-39세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예비조사는 만15-18세용의 경우, 중·고등학생인 남자 7명, 만19-39세용은 성인 남자 8명과 성인 여자 14명(20대 10명, 30대 12명/경제활동인구 13명, 비경제활동인구 9명/ 기혼자 11명, 미혼자 11명)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2) 국가승인통계 진행 절차

2017년부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국가통계로서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지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생산 및 공표하게 되었다(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402004호(2017. 7. 25. 고시)).

본 조사는 약 5주 간 총 4단계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상세한 과정은 다음 <표 I -3>과 같다.

표 I -3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승인 과정**

일 시	내 용
2017. 6. 23.	통계승인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통계청 제출 * 총 7종: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통계작성 기획서, 조사지침서, 조사표 2종, 통계 결과표 서식, 통계 용어 및 해설자료, 표본설계서와 표본설계 요약서
2017. 6. 26.	(2017. 6. 26., 1차 보완 요청)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통계결과표에 대한 보완 요청에 따라 1차 보완 자료 제출
2017. 6. 30.	(2017. 6. 29., 2차 보완 요청) 유사·중복률 검토 결과에 따른 조사항목, 통계결과표에 대한 추가 보완 요청에 따라 2차 보완 자료 제출
2017. 7. 10.	(2017. 7. 1., 3차 보완 요청) 표본설계서에 대한 통계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표본설계서 보완 자료 제출
2017. 7. 18.	(2017. 7. 17., 4차 보완 요청) 통계명칭, 예산 지원, 조사결과 분석 시 연령 단위 등에 대한 통계조정소위원회 질의에 답변서 제출
2017. 7. 25.	최종 승인 완료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402004호(2017. 7. 25. 고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①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② 통계작성 기획서, ③ 조사지침서, ④ 조사표 2종(만 15-18세용, 만 19-39세용), ⑤ 통계결과표 서식, ⑥ 통계 관련 용어 및 해설자료, ⑦ 표본설계서 및 표본설계요약서 등 총 7가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2017년 6월 23일 통계청에 제출하였다. 이후, 조사지침서의 용어와 조사표 편집 오류 수정, 통계결과표 추가 및 삭제 등에 대한 보완 요청(2017. 6. 26.)에 따라, 6월 26일 1차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음으로 타조사와의 조사항목 유사·중복률 검토 결과에 따른 조사표 수정 및 이에 따른 통계결과표 수정에 대한 추가 보완 요청(2017. 6. 29.)으로 6월 30일에 2차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표본설계서의 모집단 분석 내용과, 층화 방법, 표본 규모 산출 및 표본 배분, 표본 추출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한 통계청의 검토의견(2017. 7. 1.)을 반영하여

표본설계서를 수정한 후, 7월 10일에 3차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통계조정소 위원회의 통계명칭 변환 가능 여부 및 향후 예산 확보 가능성, 조사결과 분석 시 연령 단위 등에 대한 질의(2017. 7. 17.)에 답변서를 7월 18일에 제출한 결과, 2017년 7월 25일에 국가승인통계로서 최종 승인이 완료되었다.

5.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면접하는 개별방문면접조사로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가구방문 시 조사대상이 부재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가피한 경우 유치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조사가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면접조사이므로, 조사원이 조사목적 및 조사표, 조사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고려하여 조사기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사원을 선발한 후, 2017년 8월 8일-9일 동안 서울 및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조사개요 및 조사구에 대한 설명,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현장 면접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현장에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실제 조사가 수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기관에서 선발된 조사원이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방문하여 조사 목적 등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조사 협조를 얻었으며, 필요 시 가구에 방문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동·반장, 이장 등에게 협조를 구한 후에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가구 내에 조사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확인하였고, 전체 가구원 중에 조사 대상으로서 적합한 가구원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해당 가구원에게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 가구원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재방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유치를 희망할 때에는 조사표를 유치한 다음 회수 일정을 정하도록 하였다. 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원은 바로 조사표를 회수하여 조사 항목에 대한 로직을 검토하고 조사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에디팅을 실시하였으며, 유치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회수 일정에 맞춰 가구를 다시 방문한 후에 조사표를 회수하고 현장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 항목의 완결을 확인한 후에 조사대상 가구 및 가구원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6. 조사 일정

본 조사를 수행하게 위해 진행된 상세한 일정은 다음 <표 I-4>와 같다. 본 조사는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5주간 실시되었다.

표 I-4 조사 일정

추진 업무 내용	일 시	비 고
예비조사 및 FGI	2017. 6. 2. - 2017. 6. 9.	총 29명 (중·고등학생 7명, 성인 22명)
표본설계	- 2017. 6. 19.	
국가승인통계 준비	- 2017. 7. 18.	2017. 6. 23. 통계작성 승인신청 최초 제출
국가승인통계 최종 승인	2017. 7. 25.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402004호
조사표 최종 확정	2017. 7. 25.	2종 (만15-18세용, 만19-39세용)
실사 준비	2017. 7. 10. - 2017. 8. 7.	교육자료 준비 및 면접원 선발, 조사표 인쇄, 조사물품 배포 등
조사원 교육	2017. 8. 8. - 8. 9.	총 5개 지점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본조사 진행	2017. 8. 18. - 9. 22.	
자료 입력 및 데이터 검수	2017. 8. 28. - 9. 29.	2017. 9. 28. - 9. 29. 데이터 검수 실시

7. 무응답 현황

조사 대상자가 조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항목 무응답에 대한 현황은 <표 I -5>와 같다. 항목 무응답은 2개 항목(문8, 문40)에서만 발생하였으며, 항목 무응답률이 최소 0.06%에서 최대 0.5%으로, 5%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여 무응답 대체를 실시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표 I -5 항목 무응답

(단위: 명, %)

문 항 내 용(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전체)	2,714	0 (0.0)
문2.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 시기(전체)	2,714	0 (0.0)
문3.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전체)	2,714	0 (0.0)
문4. 자녀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전체)	2,714	0 (0.0)
문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7. 결혼 준비 경험 여부(만 19-39세 문항)	2,321	0 (0.0)
문7-1.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만 19-39세 중 결혼준비 유경험자)	1,011	0 (0.0)
문7-2. 결혼을 망설임 이유(만 19-39세 중 결혼준비 유경험자)	308	0 (0.0)
문8. 맞벌이 여부(만 19-39세 중 유배우자)	969	5 (0.5)
문9. 현재 자녀 존재 여부(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10.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11. 2025년 출산율 전망(전체)	2,714	0 (0.0)
문12.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전체)	2,714	0 (0.0)
문12-1.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해외이주 고려자)	943	0 (0.0)
문13. 2025년 입시경쟁 전망(전체)	2,714	0 (0.0)
문14.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전체)	2,714	0 (0.0)
문14.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전체)	2,714	0 (0.0)
문14.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은 중요하다(전체)	2,714	0 (0.0)
문15.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만 19-39세 중 대학 진한 경험자)	1,772	0 (0.0)
문16. 졸업 유예 위해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만 19-39세 중 대학 진학 경험자)	1,772	0 (0.0)
문17. 대학 미진학 사유(만 19-39세 중 대학 비진학자)	549	0 (0.0)
문18. 향후 대학 진학 의향(대학 비진학자)	942	0 (0.0)

문 항 내 용(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19. 취업준비 여부(전체)	2,714	0 (0.0)
문20.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전체)	2,714	0 (0.0)
문21.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22.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23. 2019년 적정 최저 임금(전체)	2,714	0 (0.0)
문24.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전체)	2,714	0 (0.0)
문25.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전체)	2,714	0 (0.0)
문26. 집 관련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선택 항목(전체)	2,714	0 (0.0)
문27. 한 달 생활비(용돈) 정도(전체)	2,714	0 (0.0)
문27-1. 한 달 생활비(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전체)	2,714	0 (0.0)
문28. 갚아야 할 채무 여부(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2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전체)	2,714	0 (0.0)
문2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전체)	2,714	0 (0.0)
문2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전체)	2,714	0 (0.0)
문2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전체)	2,714	0 (0.0)
문2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전체)	2,714	0 (0.0)
문2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전체)	2,714	0 (0.0)
문2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전체)	2,714	0 (0.0)
문2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전체)	2,714	0 (0.0)
문2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전체)	2,714	0 (0.0)
문30. 중소기업 취업 의향(전체)	2,714	0 (0.0)
문30-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중소기업 취업 비희망자)	1,114	0 (0.0)
문3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32.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32-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32-2.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33.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34.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만 19-39세 중 미취업자)	654	0 (0.0)
문35.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만 19-39세 중 미취업자)	654	0 (0.0)
문36.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만 19-39세 미취업자 중 정규교육기관을 다니지 않은 경우)	392	0 (0.0)

문항내용(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37. 니트 관련_1) 지난 주에 주로 한 일(만 19-39세 미취업자 중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을 다니지 않은 경우)	359	0 (0.0)
문38.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1) 1개월 미만(만 19-39세 미취업자 중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을 다니지 않은 경우, 1개월 미만인 경우)	10	0 (0.0)
문38.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2) 1개월 이상(만 19-39세 미취업자 중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을 다니지 않은 경우, 1개월 이상인 경우)	70	0 (0.0)
문38.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3) 1년 이상(만 19-39세 미취업자 중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을 다니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인 경우)	279	0 (0.0)
문39.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만 19-39세 중 취업자)	1,667	0 (0.0)
문40.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만 19-39세 중 취업자)	1,667	1 (0.06)
문41. 직장에서의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만 19-39세 중 취업자)	1,667	0 (0.0)
문42. 이직 의향(만 19-39세 중 취업자)	1,667	0 (0.0)
문42-1. 이직 희망 사유(만 19-39세 중 취업자 중 이직 희망자)	503	0 (0.0)
문43.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전체)	2,714	0 (0.0)
문44.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전체)	2,714	0 (0.0)
문44.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전체)	2,714	0 (0.0)
문44.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전체)	2,714	0 (0.0)
문45. 공동주거 경험 여부(전체)	2,714	0 (0.0)
문46. 공동주거 거주 의향(전체)	2,714	0 (0.0)
문47. 부모 동거 여부(전체)	2,714	0 (0.0)
문48. 현재 미혼 1인 가구 여부(만 19-39세 중 부모님 비동거인 경우)	1,285	0 (0.0)
문48-1. 현재 주거 형태(만 19-39세 중 미혼 1인 가구인 경우)	330	0 (0.0)
문49.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전체)	2,714	0 (0.0)
문50.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전체)	2,714	0 (0.0)
문50.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전체)	2,714	0 (0.0)
문50.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전체)	2,714	0 (0.0)
문50.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전체)	2,714	0 (0.0)
문50.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전체)	2,714	0 (0.0)
문51. 규칙적인 운동 여부(전체)	2,714	0 (0.0)
문51-1. 규칙적인 운동 빈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1,007	0 (0.0)
문52.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전체)	2,714	0 (0.0)
문53. 성형수술 경험(전체)	2,714	0 (0.0)

문 항 내 용(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53-1. 성형수술 목적 (성형수술 유경험자)	316	0 (0.0)
문53-2.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미용목적 성형수술 유경험자)	279	0 (0.0)
문54. 가치 항목별 선호도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전체)	2,714	0 (0.0)
문54. 가치 항목별 선호도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전체)	2,714	0 (0.0)
문54. 가치 항목별 선호도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전체)	2,714	0 (0.0)
문54. 가치 항목별 선호도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전체)	2,714	0 (0.0)
문5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전체)	2,714	0 (0.0)
문5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전체)	2,714	0 (0.0)
문57.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전체)	2,714	0 (0.0)
문58. (세대갈등)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전체)	2,714	0 (0.0)
문58. (세대갈등)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전체)	2,714	0 (0.0)
문58. (세대갈등)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전체)	2,714	0 (0.0)
문58. (세대갈등)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전체)	2,714	0 (0.0)
문58. (세대갈등)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전체)	2,714	0 (0.0)
문58. (세대갈등)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전체)	2,714	0 (0.0)
문58. (세대갈등)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전체)	2,714	0 (0.0)
문59. 의견 표명 행동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전체)	2,714	0 (0.0)
문59. 의견 표명 행동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전체)	2,714	0 (0.0)
문59. 의견 표명 행동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전체)	2,714	0 (0.0)
문59. 의견 표명 행동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전체)	2,714	0 (0.0)
문59. 의견 표명 행동_5) 항의 전화하기(전체)	2,714	0 (0.0)
문60.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전체)	2,714	0 (0.0)
문60.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전체)	2,714	0 (0.0)
문60.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전체)	2,714	0 (0.0)
문61. 평소 외출 정도(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61-1.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만 19-39세 중 정기적인 외출을 하지 않은 경우)	98	0 (0.0)
문61-2.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만 19-39세 전체)	98	0 (0.0)
문62.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만 19-39세 전체)	2,321	0 (0.0)
문63.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만 19-39세 전체)	2,321	0 (0.0)
(중고등학생용) 문24.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390	0 (0.0)

8. 표본설계 및 가중치³⁾

1) 모집단 분석

본 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이다.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 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이다.

<표 I-6>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정리한 모집단 현황이다. 모집단 내 전체 일반가구는 19,111,030호⁴⁾이며,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 일반가구의 22.9%와 19.8%를 차지하고, 전체 조사대상(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 16,979,000명 중 경기와 서울이 각각 24.9%, 20.8%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6 모집단 현황(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시·도	가구 수	열(%)	만 15세-39세 이하의 성인(명)	열(%)	시·도	가구 수	열(%)	만 15세-39세 이하의 성인(명)	열(%)
전국	19,111,030	100.0	16,979,000	100.0	경기	4,384,742	22.9	4,220,655	24.9
서울	3,784,490	19.8	3,538,192	20.8	강원	606,117	3.2	460,724	2.7
부산	1,335,900	7.0	1,122,090	6.6	충북	601,856	3.1	510,858	3.0
대구	928,528	4.9	817,216	4.8	충남	796,185	4.2	673,156	4.0
인천	1,045,417	5.5	994,252	5.9	전북	717,311	3.8	558,878	3.3
광주	567,157	3.0	539,325	3.2	전남	720,612	3.8	488,897	2.9
대전	582,504	3.0	560,441	3.3	경북	1,062,724	5.6	798,519	4.7
울산	423,412	2.2	400,693	2.4	경남	1,258,487	6.6	1,035,248	6.1
세종	75,219	0.4	73,138	0.4	제주	220,369	1.2	186,718	1.1

* 출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3) 이 절은 2017년에 진행된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에서 본 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이기재 교수(방송통신대학교)가 집필하였다. 본 조사는 가구조사로 수행되었으므로 표본설계 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문을 게재하였다.

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가구형태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가구형태가 ‘집단가구(비혈연)’,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등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I-7>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부터 39세 이하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이다.

표집틀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사용을 검토하였으나 2017년에 수행되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표본설계 시점에서는 해당 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추출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고자 2010년 11월-2017년 2월 말까지의 신축 아파트 현황⁵⁾을 표본추출틀로 구성하여 표본추출에 활용하였다.

표 I-7 만 15세-39세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합계
전국		3,170,545	3,385,936	3,027,896	3,611,034	3,783,589	16,979,000
서울		543,083	681,199	722,350	823,935	767,625	3,538,192
광역시	부산	203,673	241,138	203,729	232,762	240,788	1,122,090
	대구	165,435	175,680	141,245	159,794	175,062	817,216
	인천	177,427	195,760	180,149	215,364	225,552	994,252
	광주	112,826	114,226	89,544	107,109	115,620	539,325
	대전	110,851	124,959	99,506	109,626	115,499	560,441
	울산	76,966	76,771	69,937	86,497	90,522	400,693
	세종	11,854	13,861	11,199	16,583	19,641	73,138
광역시 소계		859,032	942,395	795,309	927,735	982,684	4,507,155
도 지역	경기	786,755	804,648	731,217	904,071	993,964	4,220,655
	강원	97,302	104,816	76,777	85,868	95,961	460,724
	충북	105,894	108,456	86,747	101,981	107,780	510,858
	충남	134,778	135,706	113,629	140,662	148,381	673,156
	전북	123,405	121,426	91,510	104,691	117,846	558,878
	전남	110,630	93,986	75,927	98,162	110,192	488,897
	경북	162,832	162,946	136,521	163,734	172,486	798,519
	경남	207,411	194,204	168,655	221,650	243,328	1,035,248
	제주	39,423	36,154	29,254	38,545	43,342	186,718

* 출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5)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에서 사용승인일이 2010년 1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인 집합건축물(아파트) 리스트를 이용하였다. 각 시도 단위에서 아파트 단지 내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미만과 85㎡으로 구분하여 약 60가구를 기준으로 나누어 조사구(1차추출단위)를 구성하여 표본추출에 활용하였다.

<표 I-8>는 본 연구에서 추가로 고려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조사모집단 현황으로, 2010년 11월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 현황을 정리하였다. 신축 아파트 가구는 1,706,180호이며, 전체 가구 중에서 신축 아파트 가구 비율은 8.9%이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제주 등은 전체 가구 중 신축 아파트 비율이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서울, 강원, 전북, 경북 등은 8%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8 모집단 현황(2010년 11월 이후 신축 후 입주한 아파트)

시·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수(A)	신축 아파트 수(B)	신축 아파트 비율(B/A)	시·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수(A)	신축 아파트 수(B)	신축 아파트 비율(B/A)
전국	19,111,030	1,706,180	8.9%	경기	4,384,742	442,203	10.1%
서울	3,784,490	199,324	5.3%	강원	606,117	35,779	5.9%
부산	1,335,900	131,077	9.8%	충북	601,856	54,401	9.0%
대구	928,528	84,795	9.1%	충남	796,185	88,068	11.1%
인천	1,045,417	119,998	11.5%	전북	717,311	54,634	7.6%
광주	567,157	55,206	9.7%	전남	720,612	67,945	9.4%
대전	582,504	52,190	9.0%	경북	1,062,724	75,136	7.1%
울산	423,412	45,821	10.8%	경남	1,258,487	117,950	9.4%
세종	75,219	58,071	77.2%	제주	220,369	23,582	10.7%

* 주 : 신축아파트 가구 수는 2010년 11월 이후 2017년 2월 말까지 준공된 아파트 가구 수임.

2) 층화

본 조사의 표본설계에서는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로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세부 층화하였다. 이 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와 가구 내 15세-39세 가구원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크고, 지역적으로 넓어 표본의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각각 4개 권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다음 <표 I-9>와 <표 I-10>는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의 권역별 구분 현황이다.

표 I-9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I-10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부	하남시, 광주시, 가평군, 여주군, 남양주시, 양평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중부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정부시
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대상으로 하는 층화는 행정구역에 따라 구성한 33개 1차 층을 구성하였다. 이후 서울, 광역시 및 11개 도 지역(동) 층에 대해서는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로 나누어 세부 층화하였고, 읍·면 지역에서 세부 층화는 따로 없었다. <표 I-11>에서는 표본설계의 층화 방법을 정리하였다.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17개 시·도 구분을 층화구분으로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표본설계 상의 전체 층의 수는 72개이다.

표 I-11 층화 방법

구분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층 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서울, 7대 광역시	서울(4), 광역시(7)	아파트, 일반조사구	22
	도 지역	11개 지역(동부)	아파트, 일반조사구	22
		11개 도 지역(읍면부)	—	11

다음 <표 I -12>에는 각 층별 조사구 수와 가구 수를 정리하였다.

표 I -12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및 가구 현황

행정구역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세부 층별 모집단 가구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 국	118,765	127,393	57,020	303,178	7,134,955	7,065,152	3,076,158	17,276,265
서울-북서	2,886	7,930	0	10,816	165,641	433,052	0	598,693
서울-북동	7,673	11,437	0	19,110	467,851	641,690	0	1,109,541
서울-남서	6,592	12,083	0	18,675	400,646	678,099	0	1,078,745
서울-남동	5,995	6,329	0	12,324	362,662	354,148	0	716,810
부산	9,953	11,763	0	21,716	593,814	648,947	0	1,242,761
대구	7,285	7,926	0	15,211	435,657	432,602	0	868,259
인천	7,663	7,513	0	15,176	459,545	450,659	0	910,204
광주	5,357	3,653	0	9,010	326,011	189,788	0	515,799
대전	4,656	4,301	0	8,957	280,756	251,839	0	532,595
울산	3,284	3,235	0	6,519	194,293	179,323	0	373,616
경기-북부	1,885	966	6,459	9,310	111,743	50,220	353,797	515,760
경기-중부	16,618	15,404	1,259	33,281	1,011,724	854,659	69,680	1,936,063
경기-남부	10,824	9,080	4,082	23,986	654,498	495,928	228,369	1,378,795
강원	3,301	2,816	4,062	10,179	193,491	152,777	211,367	557,635
충북	3,173	2,754	4,132	10,059	189,510	148,712	220,448	558,670
충남	2,904	2,082	8,574	13,560	170,706	116,735	460,135	747,576
전북	4,598	3,267	3,946	11,811	276,247	173,736	208,584	658,567
전남	2,929	2,006	6,683	11,618	175,719	109,392	353,206	638,317
경북	4,318	4,864	9,065	18,247	253,172	262,191	489,796	1,005,159
경남	6,281	6,193	7,862	20,336	375,768	338,864	432,453	1,147,085
제주	590	1,791	896	3,277	35,501	101,791	48,323	185,615

* 출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3) 표본크기 결정 및 표본배분

본 조사에서는 목표 표본수를 만 15-39세 청년 2,700명으로 설정하고, 전국에서 표집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반가구 한 가구당 해당 연령대의 가구원 수는 0.89명으로, 약 3,000가구를 표본추출하여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모두 조사할 경우 2,700명의 목표 표본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본설계에서는 각 표본 조사구에서 약 10명의 청년층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 수는 270개이다. 단, 해당 연령대의 경우 낮은 재택률로 인해 조사대상 면접이 어렵고, 특히 읍·면지역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 수가 가구원 당 0.70명으로 동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표집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본설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6개 권역⁶⁾ 단위로 청년층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도(precision)를 갖는 통계를 생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권역에 대해서 일정 크기 이상의 표본이 배분되어야 한다.

통계작성 단위인 6개 권역별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층별 조사 대상자 수에 비례배분법, 제곱비례 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표본설계에 사용된 최종 배분법은 각 통계작성 단위별 가구 수에 대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최종방안으로 하였다. 이러한 배분법을 적용하면 권역별 추정결과의 통계적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표 I -13>은 2016년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조사 항목 추정에 대한 설계효과 현황이다. 2016년도 조사의 설계효과 값은 약 1.37-3.8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본 조사의 목표 허용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설계효과 2.76을 적용한 결과임)이다.

표 I -13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조사항목	2016년도 조사결과		
	추정값	95% 오차의 한계	설계효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q10)	42.0%	2.4%	1.37
중소기업 취업 의향(q47)	68.9%	3.1%	3.04
친한 친구가 있는지 여부(q95)	91.3%	2.2%	3.85
평균	—	—	2.76
중위수	—	—	3.04

6) 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표 I-14 권역별 표본배분 현황

시·도	모집단 가구 수 (15년 총조사)	표본배분 현황		
		비례배분	제공근 비례배분	권역별 우선할당(20) 후 비례
전국	16,979,000	270	270	270
서울	3,538,192	56	51	51
경기·인천	5,214,907	83	63	66
대전·세종·충청·강원	2,278,317	36	41	40
광주·전라·제주	1,773,818	28	36	36
부산·울산·경남	2,558,031	41	44	43
대구·경북	1,615,735	26	35	34

표 I-15 권역별 모비를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⁷⁾(예상)

시·도	모집단 가구 수	새로운 표본설계	
		표본크기	오차의 한계
전국	16,979,000	2,700	3.1%p
서울	3,538,192	510	7.2%p
경기·인천	5,214,907	630	6.5%p
대전·세종·충청·강원	2,278,317	410	8.0%p
광주·전라·제주	1,773,818	360	8.6%p
부산·울산·경남	2,558,031	440	7.8%p
대구·경북	1,615,735	350	8.7%p

각 권역에서 시·도별 표본배분은 조사 대상자 수(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표 I-16> 참조).

각 지역에서 신축아파트 조사를 위한 표본크기는 각 시·도별 표본크기를 전체 일반가구 수에 대한 신축아파트 가구 수의 비중⁷⁾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결정하였다. 다음 <표 I-17>은 각 시도의 일반 조사구 조사와 신축아파트 대상 조사의 표본 조사구 수 현황이다.

7) 오차의 한계는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단순임의추출법을 가정하여 산출한 경우와 비교하여 큰 값을 갖게 된다.

표 1-16 시·도별 표본 조사구 수

시·도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성인(명)	열(%)	표본 조사구 수(개)	시·도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성인(명)	열(%)	표본 조사구 수(개)
전국	16,979,000	100.0	270	경기	4,220,655	24.9	51
서울	3,538,192	20.8	51	강원	460,724	2.7	8
부산	1,122,090	6.6	19	충북	510,858	3.0	9
대구	817,216	4.8	18	충남	673,156	4.0	11
인천	994,252	5.9	12	전북	558,878	3.3	11
광주	539,325	3.2	11	전남	488,897	2.9	10
대전	560,441	3.3	9	경북	798,519	4.7	17
울산	400,693	2.4	7	경남	1,035,248	6.1	18
세종	73,138	0.4	4	제주	186,718	1.1	4

표 1-17 시·도별 일반가구와 신축아파트 가구 현황

시·도	모집단 현황			표본배분 현황		
	인구주택 총조사(A)	신축 아파트(B)	신축아파트 비중(B/(A+B))	일반 조사구	신축 아파트	합계
전국	19,111,030	1,706,180	8.9%	244	26	270
서울	3,784,490	199,324	5.3%	48	3	51
부산	1,335,900	131,077	9.8%	17	2	19
대구	928,528	84,795	9.1%	16	2	18
인천	1,045,417	119,998	11.5%	11	1	12
광주	567,157	55,206	9.7%	10	1	11
대전	582,504	52,190	9.0%	8	1	9
울산	423,412	45,821	10.8%	6	1	7
세종	75,219	58,071	77.2%	2	2	4
경기	4,384,742	442,203	10.1%	46	5	51
강원	606,117	35,779	5.9%	7	1	8
충북	601,856	54,401	9.0%	8	1	9
충남	796,185	88,068	11.1%	10	1	11
전북	717,311	54,634	7.6%	10	1	11
전남	720,612	67,945	9.4%	9	1	10
경북	1,062,724	75,136	7.1%	16	1	17
경남	1,258,487	117,950	9.4%	16	2	18
제주	220,369	23,582	10.7%	4	0	4

* 주: 일반가구 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고, 신축아파트 가구 수는 2010년 11월 이후 입주한 신축 아파트 가구 수임. 제주도에서는 전체 표본 조사구 수가 4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배분되는 표본은 없음.

일반 조사구 표본에서 시·도 내 세부 층별 표본배분은 가구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 I -18>은 일반 조사구 조사에 대한 각 시·도의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수 현황이다.

표 I -18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 국	98	101	45	244	경기-북부	2	2	4	8
서울-북서	3	6	0	9	경기-중부	11	9	2	22
서울-북동	6	9	0	15	경기-남부	7	6	3	16
서울-남서	5	9	0	14	강원	2	2	3	7
서울-남동	5	5	0	10	충북	3	2	3	8
부산	8	9	0	17	충남	2	2	6	10
대구	8	8	0	16	전북	4	3	3	10
인천	6	5	0	11	전남	3	2	4	9
광주	6	4	0	10	경북	4	4	8	16
대전	4	4	0	8	경남	5	5	6	16
울산	3	3	0	6	제주	1	2	1	4
세종	0	0	2	2					

4) 표본 조사구 및 표본 가구 추출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신축아파트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27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2단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또는 신축아파트 단지)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5-39세 청년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조사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역별 표본가구당 조사대상자 수의 평균을 고려하여 표본조사구에서 추출되는 가구수를 결정하였다(<표 I -19> 참조).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 지역에서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는 0.89명이고, 읍면 지역에서는 0.93명이다. 이에 따라 표본 조사구에서 목표표본 크기인 10명의 청년층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동부의 표본조사구에서는 11가구, 읍면부의 표본조사구에서는 14가구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표 I-19 지역별 가구당 평균 조사 대상자 수 현황(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역 구분	만 15-39세 인구	일반 가구수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 수
전국	16,979,000	19,111,030	0.89
동 지역	14,453,913	15,487,901	0.93
읍면 지역	2,525,087	3,623,129	0.7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조사구를 활용할 때, 조사구 전체가 철거, 재건축 등의 사유로 조사불능인 경우에는 예비표본에서 대체하도록 하였다.

5) 가중치 산정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추므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① 설계가중치 산정, ② 무응답에 대한 조정, ③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본 조사의 최종 개인별 가중치는 지역, 조사구별 추출률과 무응답율의 차이를 반영한 후 모집단 정보에 대한 사후층화를 통해서 얻어졌다. 가중치 조정단계에서 이용하는 모집단 정보는 2015년 11월 기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다.

각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표본조사구의 크기 척도(measure of size)인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p_{1hi} = n_h \frac{S_{hi}}{S_h}$$

여기서,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척도(조사구 내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층 h 의 모집단 총 가구 수(크기의 척도 총합)

원칙적으로 각 표본 조사구에서는 11가구 또는 14가구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m_{hi} = 11$ (또는 14)이다. $S_{hi} \approx M_{hi}$ 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추출률 상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작은 경우)에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 \frac{S_h}{n_h \times m_{hi}}$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각 지역 내 층에서 표본 가구들은 모두 동일한 설계가중치를 갖게 된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본추출률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 각 층 내에서 설계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별로 진행되며,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하였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1} = \frac{m_{hi}}{r_{hi}}$$

가구 내 무응답 조정은 각 표본 가구에서 전체 조사대상 가구원 수와 응답 가구원 수의 비(比)로 계산한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2} = \frac{\text{해당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text{응답 가구원 수}}$$

벤치마킹 조정은 최신 모집단 정보인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 시도별 성 및 연령대별 추계인구를 이용하였다. 벤치마킹 조정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추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권역별(6)×연령대(5)×성별(2) 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 조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권역별, 성별, 연령별 사후층화 조정계수를 계산하여 모집단과 조사 표본간의 분포 차이를 보정하였다. <표 I-20>은 각 시도별 성 및 연령대별 추계인구 결과이다.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가구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1} \times \text{무응답 조정2} \times \text{벤치마킹 조정계수}$$

표 I-20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남자(2017년 장래인구추계)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합계
전국	1,552,681	1,878,484	1,798,846	1,830,845	2,096,427	9,157,283
서울	256,499	340,380	388,618	392,613	407,677	1,785,787
부산	94,603	130,697	117,255	110,342	131,115	584,012
대구	80,594	98,235	85,315	77,746	90,661	432,551
인천	87,351	105,979	104,080	108,206	127,308	532,924
광주	53,938	61,624	50,938	50,992	59,746	277,238
대전	49,984	69,721	61,532	53,151	58,828	293,216
울산	39,334	44,931	43,021	44,339	51,862	223,487
세종	6,962	9,714	9,619	10,886	14,465	51,646
경기	397,425	449,158	453,947	478,933	564,925	2,344,388
강원	47,156	61,547	48,972	43,291	50,384	251,350
충북	49,638	64,068	54,931	54,562	60,583	283,782
충남	64,602	79,048	74,544	78,978	90,321	387,493
전북	60,081	70,353	54,667	51,846	62,332	299,279
전남	57,001	58,087	43,786	49,920	61,481	270,275
경북	80,090	96,750	83,893	85,751	98,649	445,133
경남	106,367	116,401	105,642	119,346	140,774	588,530
제주	21,056	21,791	18,086	19,943	25,316	106,192

표 I-21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여자(2017년 장래인구추계)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합계
전국	1,425,338	1,647,143	1,577,689	1,668,000	1,966,506	8,284,676
서울	241,912	353,108	398,433	390,429	398,821	1,782,703
부산	85,475	117,201	103,644	103,086	124,296	533,702
대구	71,392	82,639	68,820	71,112	89,961	383,924
인천	81,519	93,205	95,069	98,584	117,443	485,820
광주	49,768	57,995	46,463	47,686	59,191	261,103
대전	45,652	63,275	49,676	49,354	58,430	266,387
울산	34,620	29,984	32,369	37,403	46,035	180,411
세종	6,824	8,937	8,367	11,435	14,962	50,525
경기	370,801	397,051	398,289	432,477	532,053	2,130,671
강원	42,674	45,223	35,622	37,523	48,252	209,294
충북	45,459	54,046	42,540	46,392	54,761	243,198
충남	58,195	70,621	56,756	63,869	75,355	324,796
전북	54,980	57,258	44,628	47,052	58,442	262,360
전남	52,013	40,408	36,641	44,064	54,412	227,538
경북	69,755	75,099	62,788	72,009	86,755	366,406
경남	95,182	83,388	81,111	96,815	123,537	480,033
제주	19,117	17,705	16,473	18,710	23,800	95,805

6) 모수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

(1) 용어 정의

- y_{hijk} : 관찰값 (각 문항에 대한 응답)
 - h : 층 번호, i : 조사구 번호, j : 가구 번호, k : 가구 내 개인 번호
- w_{hijk} : 표본 가중치로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통해서 산출

(2) 모평균에 대한 추정

전체 및 지역 특성별 구분에서 모평균과 모비율은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관찰값 y_{hijk}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y_{hijk})}{w_{...}} : \text{모평균 추정치}$$

- L : 층 수, n_h : 조사구 수, m_{hi} : 조사구 내 표본가구 수, l_{hij} : 조사 가구 내 응답자 수

-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표본 가중치의 합계

(3) 모비율에 대한 추정

관찰값 y_{hijk} 가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변수인 경우,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 형태로 계산된다.

$$\hat{p}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y_{hijk})}{w_{...}} : \text{모비율 추정치}$$

- L : 층 수, n_h : 조사구 수, m_{hi} : 조사구 내 표본가구 수, l_{hij} : 조사 가구 내 응답자 수

-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표본 가중치의 합계

(4) 추정량의 분산

모평균(또는 모비율)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2단 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를 반영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추출단위(PSU)인 조사구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조사구의 가구 수,

$$f_h = n_h/N_h, e_{hi} = \left(\sum_{j=1}^{m_{hi}} \sum_{k=1}^{l_{hik}} w_{hijk} (y_{hijk} - \bar{y}) \right) / w_{h...},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text{ 이다.}$$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표준오차: $s.e(\bar{y}) = \sqrt{var(\bar{y})}$
- 상대표준오차: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
- 오차의 한계: $1.96 \times \sqrt{var(\bar{y})}$

제 II 장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표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2.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제 II 장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표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가중 전		가중 후	
		사례 수	%	사례 수	%
전	체	2,714	100.0	17,441,959	100.0
성별	남 자	1,412	52.0	9,157,283	52.5
	여 자	1,302	48.0	8,284,676	47.5
연령	만 1 5 - 1 8 세	422	15.5	2,284,747	13.1
	만 1 9 - 2 9 세	1,150	42.4	7,595,434	43.5
	만 3 0 - 3 9 세	1,142	42.1	7,561,778	43.4
지역	서 울	510	18.8	3,568,490	20.5
	인 천 / 경 기	648	23.9	5,493,803	31.5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5.1	2,361,687	13.5
	광 주 / 전 라 / 제 주	363	13.4	1,799,790	10.3
	부 산 / 울 산 / 경 남	421	15.5	2,590,175	14.9
	대 구 / 경 북	362	13.3	1,628,014	9.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4.5	2,139,670	12.3
	대 학생 / 대 학원생	550	20.3	3,404,319	19.5
	고 졸 이 하	549	20.2	3,793,158	21.7
	대 졸 이 상	1,222	45.0	8,104,811	46.5
주거 형태	동 거	1,426	52.5	8,900,432	51.0
	비 동 거 / 독 립	1,288	47.5	8,541,527	49.0

2.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결과

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규정은 아동은 상한 11.2세, 하한 4.5세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경우 상한 18.4세, 하한 12.2세, 청년의 경우에는 상한 31.2세, 하한 19.4세로 나타남.
- 연령으로 살펴보면, 만 15-18세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청년'의 상한 연령도가 낮게 나타남.
- 지역으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청년'의 상한 연령이 낮게 나타남.
- 학력으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에서 '청년'의 상한 연령이 낮게 나타남.

표 II-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아동		청소년		청년	
			하한 (평균)	상한 (평균)	하한 (평균)	상한 (평균)	하한 (평균)	상한 (평균)
전	체	2,714	4.5	11.2	12.2	18.4	19.4	31.2
성별	남 자	1,412	4.4	11.1	12.1	18.4	19.4	31.3
	여 자	1,302	4.6	11.3	12.3	18.4	19.4	31.1
연령	만 15 - 18 세	422	4.7	11.3	12.3	18.4	19.4	30.5
	만 19 - 29 세	1,150	4.4	11.1	12.1	18.5	19.5	31.0
	만 30 - 39 세	1,142	4.5	11.3	12.3	18.3	19.3	31.7
지역	서 울	510	4.7	11.2	12.2	18.4	19.4	31.4
	인 천 / 경 기	648	4.4	11.2	12.2	18.4	19.4	31.1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4.5	11.3	12.3	18.4	19.4	31.2
	광주/전라/제주	363	3.9	10.8	11.8	18.4	19.4	30.6
	부산/울산/경남	421	4.5	11.4	12.4	18.4	19.4	31.6
	대 구 / 경 북	362	4.9	11.4	12.4	18.4	19.4	31.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4.7	11.3	12.3	18.4	19.4	30.5
	대학생/대학원생	550	4.5	11.1	12.1	18.5	19.5	30.9
	고 졸 이 하	549	4.5	11.3	12.3	18.4	19.4	31.1
	대 졸 이 상	1,222	4.5	11.2	12.2	18.4	19.4	31.5
주거	동 거	1,426	4.5	11.2	12.2	18.5	19.5	31.2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88	4.5	11.2	12.2	18.4	19.4	31.2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

-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시기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58.9%로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25.4세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독립해야 함’에 대한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에서 ‘독립해야 함’에 대한 의견이 47.3%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반대로 인천/경기지역의 의견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독립해야 함’에 대한 의견이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고등학생에서 원가정에서 독립을 해야하는 연령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2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 시기 및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독립해야 함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독립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2,714	58.9	25.4	36.4	4.7
성별	남	자 1,412	61.5	25.7	34.3	4.2
	여	자 1,302	56.0	25.0	38.7	5.3
연령	만 15 - 18 세	422	56.6	23.2	38.5	4.9
	만 19 - 29 세	1,150	56.1	25.5	38.5	5.4
	만 30 - 39 세	1,142	62.4	25.8	33.7	4.0
지역	서울	510	47.3	25.8	40.4	12.3
	인천 / 경기	648	64.4	25.5	32.1	3.6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63.7	25.5	34.3	2.0
	광주/전라/제주	363	56.6	24.7	41.8	1.6
	부산/울산/경남	421	61.1	24.9	36.0	2.9
	대구 / 경북	362	57.9	25.5	40.0	2.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57.0	23.1	38.3	4.7
	대학생/대학원생	550	54.8	25.5	39.7	5.4
	고 졸 이 하	549	61.9	25.4	31.9	6.2
	대 졸 이 상	1,222	59.7	25.9	36.6	3.7
주거 형태	동 거	1,426	54.9	25.5	40.0	5.1
	비 동 거 / 독 립	1,288	63.0	25.2	32.6	4.3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3) 결혼의 필요성

- 결혼 시기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53.9%로 나타났고, 결혼을 해야하는 평균연령은 30.2세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결혼해야 함'에 대한 응답이 더 높았고, 평균연령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29.0세로 중/고등학교 생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3 결혼 시기 및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해야 함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혼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2,714	53.9	30.2	40.7	5.3
성별	남 자	1,412	59.7	30.5	36.4	3.9
	여 자	1,302	47.6	29.8	45.5	6.9
연령	만 15 - 18 세	422	53.9	29.0	42.0	4.2
	만 19 - 29 세	1,150	52.8	30.2	41.0	6.2
	만 30 - 39 세	1,142	55.1	30.5	40.0	4.8
지역	서 울	510	46.6	30.7	48.3	5.2
	인 천 / 경 기	648	58.5	30.2	33.0	8.5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59.0	30.0	38.8	2.2
	광주/전라/제주	363	51.3	29.8	46.3	2.3
	부산/울산/경남	421	55.2	30.0	38.6	6.2
	대 구 / 경 북	362	48.1	30.2	50.4	1.5
	중 · 고 등 학 생	393	54.3	29.0	41.5	4.2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52.3	30.5	41.1	6.6
	고 졸 이 하	549	57.9	29.7	36.0	6.0
	대 졸 이 상	1,222	52.7	30.6	42.6	4.8
주거 형태	동 거	1,426	51.5	30.2	42.8	5.7
	비 동 거 / 독 립	1,288	56.5	30.2	38.6	4.9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4) 자녀를 가질 필요성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54.1%가 동의했고, 자녀를 가질 시기에 대한 평균연령은 31.3세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59.4%로 여성보다 높게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함.
- 연령으로 보면, 만 30-39세에서 56.8%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 15-18세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58.3%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4 자녀를 가질 시기 및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를 가져야 함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음	자녀를 가질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2,714	54.1	31.3	41.4	4.5
성별	남	자	1,412	59.4	31.7	36.7	3.9
	여	자	1,302	48.2	30.8	46.6	5.2
연령	만 1 5 - 1 8 세		422	52.3	30.8	45.1	2.5
	만 1 9 - 2 9 세		1,150	51.9	31.4	42.5	5.6
	만 3 0 - 3 9 세		1,142	56.8	31.4	39.1	4.1
지역	서 울		510	46.3	31.7	48.7	5.0
	인 천 / 경 기		648	57.6	31.3	35.2	7.2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58.3	31.1	39.5	2.2
	광주/전라/제주		363	54.3	31.0	44.1	1.6
	부 산/울산/경남		421	56.1	31.4	39.4	4.5
	대 구 / 경 북		362	49.6	31.4	49.1	1.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52.6	30.8	44.7	2.7
	대학생/대학원생		550	50.5	31.6	44.1	5.5
	고 졸 이 하		549	56.6	30.8	37.0	6.4
	대 졸 이 상		1,222	54.8	31.6	41.4	3.8
주거 형태	동 거		1,426	50.1	31.5	44.5	5.4
	비 동 거 / 독 립		1,288	58.2	31.2	38.2	3.6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에서 ‘자녀의 교육비 부담완화’가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의 교육비 부담완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출산 장려금 확대’가 1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로 보면, 만 19-29세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에서 1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가구의 소득 증대	출산 장려금 확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	기타
전		체 2,321	24.3	21.2	14.4	13.5	9.8	9.6	6.8	0.5
성별	남	자 1,208	24.6	19.7	16.2	13.4	11.9	10.1	3.6	0.5
	여	자 1,113	23.9	23.0	12.4	13.6	7.4	8.9	10.3	0.4
연령	만 15 - 18 세	29	37.4	30.8	4.5	11.8	5.4	6.5	3.7	0.0
	만 19 - 29 세	1,150	22.5	23.4	13.6	14.8	10.3	8.3	6.5	0.6
	만 30 - 39 세	1,142	25.8	18.9	15.5	12.3	9.3	10.9	7.0	0.3
지역	서울	451	22.8	20.0	14.2	9.1	12.2	12.8	8.7	0.2
	인천 / 경기	550	21.4	20.5	15.6	14.9	11.9	9.0	6.3	0.4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26.0	25.4	11.9	12.3	7.6	6.2	9.7	0.8
	광주/전라/제주	299	30.2	24.9	9.3	13.2	6.7	12.2	3.2	0.3
	부산/울산/경남	358	26.6	18.7	16.2	17.5	5.4	9.6	4.7	1.2
	대구 / 경북	313	24.9	20.8	17.2	14.6	10.3	5.8	6.4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24.4	21.9	15.7	14.2	9.9	5.8	7.2	0.7
	고졸 이하	549	26.6	19.6	14.3	13.7	8.6	14.0	3.1	0.1
	대졸 이상	1,222	23.1	21.7	13.9	13.1	10.2	9.1	8.3	0.5
주거 형태	동거	1,036	23.4	23.4	14.0	15.1	10.4	8.1	5.1	0.5
	비동거 / 독립	1,285	25.0	19.5	14.7	12.2	9.2	10.7	8.0	0.5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에 대한 의견에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24.9%)'와 '육아휴직장려 및 급여확대(24.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육아휴직장려 및 급여확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가구의 소득 증대(12.5%)'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무상 보육 교육비 확대	가구의 소득 증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방과후 서비스 확대	아동 수당 신설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	기타	
전	체	2,321	24.9	24.7	18.1	10.3	7.7	5.9	4.1	4.1	0.2	
성별	남	자	1,208	24.8	22.9	18.6	11.9	9.5	6.1	3.5	2.5	0.1
	여	자	1,113	25.0	26.6	17.5	8.5	5.7	5.8	4.7	5.8	0.4
연령	만 1 5 - 1 8 세	29	28.5	22.9	17.6	12.5	6.4	8.8	3.4	0.0	0.0	
	만 1 9 - 2 9 세	1,150	25.7	26.5	18.6	9.7	6.8	3.8	4.2	4.3	0.3	
	만 3 0 - 3 9 세	1,142	23.9	22.9	17.6	10.9	8.6	8.0	4.0	3.9	0.1	
지역	서울	451	23.8	25.1	14.7	8.0	8.5	6.4	7.6	5.7	0.2	
	인천 / 경 기	550	23.0	23.2	20.6	11.7	9.2	6.8	2.9	2.3	0.2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32.4	25.6	17.1	7.7	6.2	4.8	2.8	3.4	0.0	
	광주 / 전라 / 제주	299	28.5	28.9	14.9	7.5	5.8	5.3	3.2	5.3	0.5	
	부산 / 울산 / 경남	358	22.6	23.6	20.3	10.7	8.2	5.9	3.9	4.6	0.3	
	대구 / 경 북	313	22.5	24.6	18.4	17.1	4.3	4.4	3.3	5.0	0.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23.4	27.8	17.6	11.2	7.2	3.2	3.1	6.3	0.1	
	고 졸 이 하	549	26.6	23.3	19.7	11.1	4.9	7.2	4.7	2.5	0.1	
	대 졸 이 상	1,222	24.7	24.0	17.5	9.6	9.2	6.5	4.3	3.9	0.3	
주거	동 거	1,036	25.0	27.3	18.8	11.4	5.8	3.6	4.1	3.7	0.2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85	24.8	22.7	17.5	9.4	9.2	7.8	4.1	4.4	0.2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7)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

- 결혼 준비 경험 여부에서 55.7%가 준비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 준비 경험에 있어서 '있다'는 응답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있다'는 응답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46.7%로 인천/경기지역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이 결혼 준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음.

표 II-7 결혼 준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321	44.3	55.7
성별	남 자	1,208	38.2	61.8
	여 자	1,113	51.0	49.0
연령	만 15 - 18 세	29	0.0	100.0
	만 19 - 29 세	1,150	16.3	83.7
	만 30 - 39 세	1,142	73.2	26.8
지역	서 울	451	40.5	59.5
	인 천 / 경 기	550	46.7	53.3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44.3	55.7
	광주/전라/제주	299	45.9	54.1
	부산/울산/경남	358	45.1	54.9
	대 구 / 경 북	313	41.5	58.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10.3	89.7
	고 졸 이 하	549	47.2	52.8
	대 졸 이 상	1,222	57.1	42.9
주거 형태	동 거	1,036	10.1	89.9
	비 동 거 / 독 립	1,285	71.4	28.6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8)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에서 68.8%가 ‘아니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망설임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의 ‘아니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동거에서 망설임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8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011	31.2	68.8
	자			
성별	남	442	29.3	70.7
	여	569	32.8	67.2
연령	만 19 - 29 세	177	37.6	62.4
	만 30 - 39 세	834	29.8	70.2
지역	서 울	182	30.9	69.1
	인 천 / 경 기	248	35.8	64.2
	대전/충청/세종/강원	161	30.8	69.2
	광주/전라/제주	138	22.3	77.7
	부산/울산/경남	163	30.4	69.6
	대 구 / 경 북	119	27.4	72.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1	33.6	66.4
	고 졸 이 하	257	36.5	63.5
	대 졸 이 상	703	29.0	71.0
주거 형태	동 거	96	51.1	48.9
	비 동 거 / 독 립	915	29.0	71.0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 ·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9) 결혼을 망설임 이유

- 결혼을 망설임 이유에서 '결혼비용 때문에'가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58.9%로 여성보다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에 대한 응답이 27.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이 28.5%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 결혼을 망설임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생활 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기타
전		체 308	46.4	18.8	13.7	12.5	7.5	1.1
성별	남	자 129	58.9	11.8	11.8	6.0	11.5	0.0
	여	자 179	37.1	24.0	15.1	17.2	4.5	2.0
연령	만 19 - 29 세	67	35.3	19.4	19.1	13.4	7.6	5.2
	만 30 - 39 세	241	49.5	18.7	12.2	12.2	7.4	0.0
지역	서울	57	41.5	21.9	13.2	12.8	10.5	0.0
	인천 / 경기	88	49.2	15.4	10.9	14.1	8.0	2.4
	대전/충청/세종/강원	49	63.3	16.6	10.3	7.8	2.0	0.0
	광주/전라/제주	31	40.3	24.7	13.9	13.2	7.9	0.0
	부산/울산/경남	50	35.0	18.4	27.3	13.6	5.6	0.0
	대구 / 경북	33	42.9	27.4	8.9	8.4	9.6	2.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7	48.1	17.8	28.5	0.0	5.6	0.0
	고졸 이하	88	46.6	12.3	11.5	16.7	11.4	1.5
	대졸 이상	203	46.1	22.1	13.5	11.5	5.7	1.1
주거 형태	동거	48	44.9	18.0	15.3	11.4	6.3	4.1
	비동거 / 독립	260	46.7	19.0	13.4	12.7	7.7	0.5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

2) 결혼을 망설임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10) 맞벌이 여부

- 맞벌이 여부에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49.9%가 맞벌이를 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맞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만 30-39세)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57.5%로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 맞벌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맞벌이)	아니오(외벌이)	모름/무응답
전		969	49.9	49.5	0.6
성별	남	402	48.4	50.3	1.3
	여	567	51.0	49.0	0.0
연령	만 15 - 18 세	1	0.0	100.0	0.0
	만 19 - 29 세	158	41.0	57.7	1.3
	만 30 - 39 세	810	51.8	47.8	0.4
지역	서울	177	49.9	49.5	0.6
	인천 / 경기	237	43.7	55.4	0.9
	대전/충청/세종/강원	149	57.5	42.0	0.5
	광주/전라/제주	137	55.0	44.3	0.7
	부산/울산/경남	159	55.0	45.0	0.0
	대구 / 경북	110	46.8	53.2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0	38.2	58.2	3.6
	고졸 이하	234	45.0	53.5	1.5
	대졸 이상	685	52.5	47.5	0.0
주거 형태	동거	67	39.5	56.3	4.2
	비동거 / 독립	902	50.7	49.0	0.3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 현재 자녀 존재 여부

- 현재 자녀 존재 여부에서 35.6%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고, 자녀수는 평균 1.7명으로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자녀의 수는 동일하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았고,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이 38.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 현재 자녀 존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명)	
전	체	2,321	35.6	1.7	64.4
성별	남 자	1,208	27.9	1.7	72.1
	여 자	1,113	44.2	1.7	55.8
연령	만 1 5 - 1 8 세	29	3.6	2.0	96.4
	만 1 9 - 2 9 세	1,150	11.1	1.7	88.9
	만 3 0 - 3 9 세	1,142	60.9	1.7	39.1
지역	서 울	451	31.1	1.7	68.9
	인 천 / 경 기	550	37.9	1.7	62.1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34.7	1.8	65.3
	광 주 / 전 라 / 제 주	299	38.1	1.7	61.9
	부 산 / 울 산 / 경 남	358	38.6	1.7	61.4
	대 구 / 경 북	313	32.3	1.7	67.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8.9	1.6	91.1
	고 졸 이 하	549	36.7	1.8	63.3
	대 졸 이 상	1,222	46.3	1.7	53.7
주거 형태	동 거	1,036	6.0	1.9	94.0
	비 동 거 / 독 립	1,285	59.1	1.7	40.9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2)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에서 55.8%가 가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63.6%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녀를 가질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로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이 6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동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2,321	55.8	44.2
성별	남	1,208	63.6	36.4
	여	1,113	47.2	52.8
연령	만 15 - 18 세	29	76.7	23.3
	만 19 - 29 세	1,150	71.4	28.6
	만 30 - 39 세	1,142	39.8	60.2
지역	서울	451	59.5	40.5
	인천 / 경기	550	50.4	49.6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54.4	45.6
	광주 / 전라 / 제주	299	56.1	43.9
	부산 / 울산 / 경남	358	58.9	41.1
	대구 / 경북	313	63.0	37.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71.3	28.7
	고졸이하	549	53.2	46.8
	대졸이상	1,222	50.6	49.4
주거 형태	동거	1,036	70.5	29.5
	비동거 / 독립	1,285	44.2	55.8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3) 2025년 출산율 전망

- 2025년 출산율 전망에서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는 응답이 7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정보다는 여성이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이 83.8%로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응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응답에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3 2025년 출산율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전		체 2,321	4.6	18.3	77.1
성별	남	자 1,208	5.0	19.2	75.8
	여	자 1,113	4.1	17.3	78.6
연령	만 15 - 18 세	29	10.2	11.7	78.1
	만 19 - 29 세	1,150	5.6	18.4	76.0
	만 30 - 39 세	1,142	3.4	18.4	78.3
지역	서 울	451	3.6	24.6	71.7
	인 천 / 경 기	550	4.2	19.4	76.4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3.9	12.2	83.8
	광주/전라/제주	299	6.7	18.3	75.0
	부산/울산/경남	358	6.9	13.6	79.4
	대 구 / 경 북	313	2.8	16.4	80.8
	대학생/대학원생	550	4.4	17.5	78.1
학력	고 졸 이 하	549	6.1	18.2	75.7
	대 졸 이 상	1,222	3.9	18.7	77.4
주거 형태	동 거	1,036	5.4	19.4	75.1
	비 동 거 / 독 립	1,285	3.8	17.4	78.7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4)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에 대한 문항에서 ‘있다’는 36.0%, ‘없다’는 64.0%로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해외이주의 고려 경험이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해외이주를 고려해본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4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714	36.0	64.0
성별	남 자	1,412	32.9	67.1
	여 자	1,302	39.3	60.7
연령	만 15 - 18 세	422	25.8	74.2
	만 19 - 29 세	1,150	36.8	63.2
	만 30 - 39 세	1,142	38.2	61.8
지역	서 울	510	42.1	57.9
	인 천 / 경 기	648	37.7	62.3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33.5	66.5
	광주/전라/제주	363	29.7	70.3
	부산/울산/경남	421	35.8	64.2
	대 구 / 경 북	362	27.3	72.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24.5	75.5
	대학생/대학원생	550	39.2	60.8
	고 졸 이 하	549	30.3	69.7
	대 졸 이 상	1,222	40.3	59.7
주거 형태	동 거	1,426	33.1	66.9
	비 동 거 / 독 립	1,288	39.0	61.0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5)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자기계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로 보면, 만 30-39세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5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자기 계발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취업이 어려워서	빈부 격차가 커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전		체	943	34.3	18.7	13.4	11.2	7.9	5.5	3.7	2.1	2.0	1.0
성별	남	자	447	32.6	20.5	12.2	8.8	9.7	7.8	3.2	3.1	1.3	0.8
	여	자	496	35.9	17.1	14.6	13.5	6.3	3.4	4.3	1.1	2.7	1.2
연령	만 1 5 - 1 8 세	105	31.2	23.6	12.8	15.6	2.2	11.2	0.9	0.0	1.5	1.0	
	만 1 9 - 2 9 세	409	32.7	22.6	9.2	14.8	4.5	8.0	3.3	2.2	1.7	1.0	
	만 3 0 - 3 9 세	429	36.6	13.9	17.7	6.8	12.4	2.0	4.8	2.4	2.4	1.1	
지역	서울	212	38.5	18.7	10.1	12.7	3.8	2.3	4.7	1.3	5.9	1.9	
	인 천 / 경 기	246	32.1	16.8	13.1	13.3	11.0	6.0	4.3	2.7	0.0	0.6	
	대전/충청/세종/강원	132	29.4	21.2	22.2	3.9	6.4	8.5	3.4	2.8	0.8	1.3	
	광주/전라/제주	105	36.5	14.0	14.0	13.6	6.9	8.3	4.2	1.0	1.7	0.0	
	부산/울산/경남	150	36.9	24.7	11.1	8.3	8.7	5.0	2.2	1.8	1.2	0.0	
	대구 / 경북	98	31.8	15.9	15.0	12.7	9.4	6.7	1.2	1.9	2.8	2.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93	31.8	22.3	12.6	14.4	2.5	12.6	1.0	0.0	1.6	1.1	
	대학생/대학원생	208	30.7	23.1	8.9	14.4	2.8	12.3	2.6	1.0	2.6	1.6	
	고 졸 이 하	159	26.1	18.4	12.1	13.1	13.5	5.0	5.7	2.8	2.6	0.7	
	대 졸 이 상	483	39.1	16.4	15.9	8.7	9.0	1.8	4.0	2.6	1.7	0.9	
주거 형태	동 거	450	34.7	23.7	8.2	15.5	3.0	9.7	2.5	1.0	0.9	0.9	
	비 동 거 / 독 립	493	34.0	14.3	18.1	7.5	12.3	1.8	4.8	3.0	3.0	1.2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16) 2025년 입시경쟁 전망

- 2025년 입시경쟁 전망에 대해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입시경쟁 전망에 대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으로 보면,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63.0%)’라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중/고등학생에서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6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전	체	2,714	25.3	27.1	47.7
성별	남 자	1,412	25.9	26.4	47.7
	여 자	1,302	24.6	27.8	47.6
연령	만 15 - 18 세	422	18.9	23.8	57.4
	만 19 - 29 세	1,150	21.5	27.0	51.5
	만 30 - 39 세	1,142	31.0	28.1	40.9
지역	서 울	510	25.0	32.3	42.6
	인 천 / 경 기	648	28.2	27.8	44.0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4.2	23.3	52.5
	광주/전라/제주	363	24.1	31.9	44.0
	부산/울산/경남	421	20.8	18.9	60.3
	대 구 / 경 북	362	25.7	26.2	48.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8.9	23.3	57.8
	대학생/대학원생	550	25.8	25.6	48.6
	고 졸 이 하	549	22.8	31.5	45.8
	대 졸 이 상	1,222	27.9	26.6	45.5
주거 형태	동 거	1,426	22.1	28.0	49.9
	비 동 거 / 독 립	1,288	28.6	26.0	45.4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7)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의견에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는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현재 학생(만 15-18세)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7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714	10.7	33.0	20.5	25.7	10.1
성별	남 자	1,412	12.4	33.4	20.7	24.4	9.1
	여 자	1,302	8.9	32.5	20.2	27.1	11.3
연령	만 15 - 18 세	422	8.3	27.0	16.1	35.2	13.3
	만 19 - 29 세	1,150	13.1	35.2	20.1	23.1	8.5
	만 30 - 39 세	1,142	9.0	32.5	22.1	25.5	10.8
지역	서 울	510	8.4	34.6	15.6	29.2	12.2
	인 천 / 경 기	648	13.1	29.6	22.1	25.2	9.9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9.5	38.5	19.7	23.0	9.4
	광주/전라/제주	363	11.9	34.6	20.8	23.5	9.2
	부산/울산/경남	421	8.7	33.9	21.4	24.9	11.1
	대 구 / 경 북	362	11.4	29.2	24.8	27.4	7.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8.2	24.9	16.6	36.6	13.7
	대학생/대학원생	550	11.8	34.1	19.2	25.1	9.8
	고 졸 이 하	549	15.7	42.3	24.3	14.3	3.3
	대 졸 이 상	1,222	8.6	30.3	20.2	28.4	12.5
주거 형태	동 거	1,426	10.7	32.6	19.6	27.8	9.4
	비 동 거 / 독 립	1,288	10.8	33.4	21.4	23.5	10.9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8)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하다는 것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66.8%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동의가 나타났고, 연령으로 보면, 현재 학생(만 15-18세)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7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8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714	3.0	11.3	18.9	44.1	22.7
성별	남 자	1,412	4.1	10.8	20.1	42.6	22.4
	여 자	1,302	1.8	11.9	17.6	45.7	23.0
연령	만 15 - 18 세	422	2.9	13.1	15.0	47.4	21.6
	만 19 - 29 세	1,150	3.8	11.3	20.3	42.9	21.7
	만 30 - 39 세	1,142	2.3	10.8	18.7	44.2	24.0
지역	서 울	510	1.6	10.0	17.0	39.6	31.8
	인 천 / 경 기	648	2.8	13.7	22.7	40.1	20.6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3.9	11.2	16.1	48.7	20.1
	광주/전라/제주	363	4.2	9.4	18.2	46.8	21.3
	부산/울산/경남	421	3.3	10.9	17.7	49.1	19.0
	대 구 / 경 북	362	3.5	9.0	17.1	49.5	20.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3.1	12.1	15.2	47.4	22.3
	대학생/대학원생	550	3.0	9.9	16.7	45.7	24.7
	고 졸 이 하	549	4.4	16.4	27.7	36.1	15.4
	대 졸 이 상	1,222	2.3	9.3	16.7	46.2	25.4
주거 형태	동 거	1,426	3.0	11.2	18.8	46.1	20.9
	비 동 거 / 독 립	1,288	3.0	11.4	19.0	42.0	24.6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9)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은 중요하다

- 한국사회에서 학벌이 중요하다는 것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7.0%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정보다는 여성이 학벌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동의를 나타냈고, 연령으로 보면, 만 30-39세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19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은 중요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714	3.7	12.1	17.3	42.8	24.2
	남 자	1,412	4.2	11.9	18.5	40.7	24.6
	여 자	1,302	3.0	12.2	15.9	45.2	23.7
연령	만 15 - 18 세	422	3.1	14.7	16.6	44.8	20.9
	만 19 - 29 세	1,150	4.5	11.4	18.7	42.2	23.3
	만 30 - 39 세	1,142	3.0	12.0	16.0	42.9	26.1
지역	서울	510	1.8	9.2	15.4	40.8	32.8
	인천 / 경기	648	3.5	14.9	20.3	40.0	21.3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5.6	13.5	14.8	46.0	20.2
	광주/전라/제주	363	4.1	9.5	17.3	44.1	25.0
	부산/울산/경남	421	3.8	12.7	16.9	44.2	22.4
	대구 / 경북	362	4.7	8.4	15.5	48.8	22.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2.9	14.2	16.9	44.7	21.4
	대학생/대학원생	550	3.9	10.5	15.0	44.6	26.0
	고 졸 이 하	549	6.4	15.6	23.6	36.0	18.4
	대 졸 이 상	1,222	2.5	10.5	15.4	44.8	26.8
주거 형태	동 거	1,426	3.6	12.0	18.6	43.6	22.1
	비 동 거 / 독 립	1,288	3.7	12.1	15.9	42.0	26.3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졸업 유예 경험에서는 80.3%가 졸업 유예 경험이 없다고 했으며,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에서는 93.9%가 경험이 없다고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에서 상대적 높은 응답이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유예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유예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졸업 유예 경험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예	아니오	졸업유예 제도가 없었음	예	아니오
전		체 1,772	14.5	83.0	2.5	6.1	93.9
성별	남 자	925	16.6	81.1	2.3	6.7	93.3
	여 자	847	12.3	85.1	2.7	5.4	94.6
연령	만 1 5 - 1 8 세	22	0.0	100.0	0.0	0.0	100.0
	만 1 9 - 2 9 세	885	14.9	82.2	2.9	6.8	93.2
	만 3 0 - 3 9 세	865	14.5	83.4	2.1	5.4	94.6
지역	서 울	336	19.3	79.4	1.3	9.8	90.2
	인 천 / 경 기	377	14.0	82.7	3.4	6.1	93.9
	대전/충청/세종/강원	276	9.4	87.6	3.0	3.8	96.2
	광주/전라/제주	230	11.7	85.3	3.0	2.6	97.4
	부산/울산/경남	295	15.2	82.1	2.7	4.1	95.9
	대 구 / 경 북	258	15.4	83.7	0.9	8.1	91.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14.5	82.8	2.7	7.1	92.9
	대 졸 이 상	1,222	14.6	83.0	2.4	5.6	94.4
주거 형태	동 거	799	15.6	82.0	2.4	7.2	92.8
	비 동 거 / 독 립	973	13.7	83.8	2.5	5.1	94.9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1) 대학 전공 계열

- 대학 전공 계열에서 공학계열이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문계열, 사회계열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인문계열 및 예체능, 사회계열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공학계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사회계열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나타났고, 서울지역에서 인문계열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21 대학 전공 계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경상 계열 제외)	경상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 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 능계 열	사관 학교, 경찰 대	기타	모름/ 무응 답
전 체		1,772	19.4	13.0	8.1	9.4	22.3	6.7	4.4	11.2	0.5	3.2	1.8
성별	남 자	925	15.0	12.5	8.0	9.2	34.8	3.9	2.1	9.1	0.5	3.4	1.4
	여 자	847	24.3	13.5	8.2	9.6	8.5	9.8	6.9	13.5	0.4	3.1	2.2
연령	만 15 - 18 세	22	25.3	18.1	0.0	10.2	16.7	21.1	0.0	3.2	0.0	5.5	0.0
	만 19 - 29 세	885	18.9	12.3	8.5	7.7	21.0	8.2	4.4	13.0	0.7	3.9	1.4
	만 30 - 39 세	865	19.8	13.6	7.9	11.0	23.8	4.9	4.5	9.6	0.2	2.5	2.2
지역	서 울	336	24.7	11.6	7.5	8.4	18.3	3.7	2.5	14.9	0.4	3.7	4.4
	인 천 / 경 기	377	16.5	14.0	8.7	7.8	22.8	5.6	4.0	14.3	0.2	3.9	2.3
	대전/충청/세종/강원	276	23.4	15.8	8.3	11.7	20.1	3.1	5.0	9.7	0.0	2.5	0.5
	광주/전라/제주	230	16.3	12.9	6.2	10.0	21.0	16.2	5.6	6.4	0.4	4.6	0.3
	부산/울산/경남	295	19.3	10.6	9.4	11.3	28.2	6.6	4.1	7.1	1.8	1.4	0.0
	대 구 / 경 북	258	14.5	13.0	7.6	8.8	24.6	11.2	7.7	8.3	0.0	2.9	1.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19.3	11.6	6.6	8.0	23.2	8.9	3.2	13.0	0.4	4.4	1.4
	대 졸 이 상	1,222	19.5	13.6	8.8	9.9	22.0	5.7	4.9	10.5	0.5	2.7	2.0
주거 형태	동 거	799	20.5	13.0	8.5	7.8	23.1	7.0	3.3	11.7	0.4	3.4	1.3
	비 동 거 / 독 립	973	18.5	13.0	7.8	10.6	21.7	6.4	5.3	10.8	0.5	3.0	2.2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2) 대학 미진학 사유

- 대학 미진학 사유에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32.0%)’가 그 다음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에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 15-18세에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2 대학 미진학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기타
전	체	549	40.2	32.0	13.0	9.5	3.8	0.7	0.8
	자	283	40.2	34.3	12.3	8.5	4.0	0.3	0.3
성별	여	266	40.2	29.4	13.8	10.7	3.5	1.2	1.3
연령	만 15 - 18 세	7	24.7	62.7	12.6	0.0	0.0	0.0	0.0
	만 19 - 29 세	265	43.0	30.0	11.2	9.3	4.6	0.5	1.6
	만 30 - 39 세	277	37.9	33.4	14.8	9.9	3.1	1.0	0.0
지역	서울	115	44.2	30.0	12.1	9.2	1.5	1.0	2.0
	인천 / 경기	173	34.3	32.5	16.5	10.2	5.6	0.4	0.4
	대전/충청/세종/강원	74	42.0	37.3	10.8	8.8	1.2	0.0	0.0
	광주/전라/제주	69	38.9	42.4	10.0	2.6	4.5	1.6	0.0
	부산/울산/경남	63	44.6	24.6	12.5	11.8	4.7	1.9	0.0
	대구 / 경북	55	55.6	23.3	3.3	13.6	2.1	0.0	2.1
학력	고 졸 이 하	549	40.2	32.0	13.0	9.5	3.8	0.7	0.8
주거 형태	동 거	237	42.2	30.1	13.4	10.7	3.1	0.0	0.4
	비 동 거 / 독 립	312	38.8	33.3	12.7	8.7	4.2	1.3	1.0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현재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3) 향후 대학 진학 의향

- 향후 대학 진학 의향에서 ‘진학 하겠다’는 의견이 38.4%, ‘진학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61.6%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정보다는 여성이 대학 진학 의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현재 학생(만 15-18세)에서 85.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이 52.1%로 가장 높은 대학 진학 의향을 나타냄.

표 II-23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942	38.4	61.6
	남 자	487	37.6	62.4
	여 자	455	39.2	60.8
연령	만 15 - 18 세	400	85.5	14.5
	만 19 - 29 세	265	16.3	83.7
	만 30 - 39 세	277	6.3	93.7
지역	서 울	174	27.5	72.5
	인 천 / 경 기	271	34.7	65.3
	대전/충청/세종/강원	134	41.5	58.5
	광주/전라/제주	133	45.1	54.9
	부산/울산/경남	126	52.1	47.9
	대구 / 경 북	104	46.8	53.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86.5	13.5
	고 졸 이 하	549	11.2	88.8
주거 형태	동 거	627	55.7	44.3
	비 동 거 / 독 립	315	9.0	91.0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4) 취업 준비 여부

- 취업 준비 여부에서 90.7%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취업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취업 준비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가장 높은 취업 준비 비율이 나타났고, 동거에서 높은 취업 준비 비율이 나타남.

표 II-24 취업준비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총	2,714	9.3	90.7
	남	1,412	10.3	89.7
	여	1,302	8.1	91.9
연령	만 15 - 18 세	422	4.5	95.5
	만 19 - 29 세	1,150	15.2	84.8
	만 30 - 39 세	1,142	4.8	95.2
지역	서울	510	9.1	90.9
	인천 / 경기	648	8.8	91.2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9.9	90.1
	광주 / 전라 / 제주	363	10.9	89.1
	부산 / 울산 / 경남	421	8.1	91.9
	대구 / 경북	362	10.1	89.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4.6	95.4
	대학생/대학원생	550	11.7	88.3
	고 졸 이 하	549	9.0	91.0
	대 졸 이 상	1,222	9.6	90.4
주거 형태	동 거	1,426	12.5	87.5
	비 동 거 / 독 립	1,288	5.9	94.1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에서 없다는 응답이 82.2%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해당 시험 준비 경험 여부를 나타냈고,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가장 낮은 해당 시험 준비 여부가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이,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해당 시험을 준비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714	17.8	82.2
	자			
성별	남	1,412	18.2	81.8
	여	1,302	17.4	82.6
연령	만 15 - 18 세	422	6.9	93.1
	만 19 - 29 세	1,150	19.4	80.6
	만 30 - 39 세	1,142	19.5	80.5
지역	서울	510	12.3	87.7
	인천 / 경기	648	16.6	83.4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3.0	77.0
	광주 / 전라 / 제주	363	19.5	80.5
	부산 / 울산 / 경남	421	19.3	80.7
	대구 / 경북	362	22.0	78.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5.9	94.1
	대학생 / 대학원생	550	17.2	82.8
	고 졸 이 하	549	8.5	91.5
	대 졸 이 상	1,222	25.6	74.4
주거 형태	동 거	1,426	17.6	82.4
	비 동 거 / 독 립	1,288	18.1	81.9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6)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에서 18.6%가 계획이 있다고 했고, 79.6%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1.8%는 이미 받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향후 직업 훈련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가장 높은 직업 훈련 계획이 나타났고, 동거에서 높은 직업 훈련 계획이 나타남.

표 II-26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이미 받고 있다
전		2,321	18.6	79.6	1.8
성별	남	1,208	17.4	80.7	1.9
	여	1,113	19.9	78.4	1.6
연령	만 15 - 18 세	29	43.3	56.7	0.0
	만 19 - 29 세	1,150	21.6	76.2	2.1
	만 30 - 39 세	1,142	15.2	83.4	1.4
지역	서울	451	17.2	81.5	1.3
	인천 / 경기	550	15.4	83.0	1.6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18.3	80.3	1.4
	광주/전라/제주	299	19.0	80.1	0.9
	부산/울산/경남	358	30.1	66.8	3.0
	대구 / 경북	313	15.0	82.3	2.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25.8	72.3	1.9
	고졸 이하	549	15.0	83.1	1.9
	대졸 이상	1,222	17.3	81.0	1.7
주거 형태	동거	1,036	19.7	78.1	2.2
	비동거 / 독립	1,285	17.8	80.8	1.4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27)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에서 ‘안정적인 회사’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타났고,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및 ‘급여가 높은 회사’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은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에서, 남성은 ‘급여가 높은 회사’에 대한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에서 ‘분위기 좋은 회사’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라는 응답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7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정 적인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분위기 좋은 회사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토근이 빠른 회사	유명한 회사	복지 수준이 높은 회사	기타
전	체	2,714	31.4	22.3	19.5	9.0	8.8	6.9	1.6	0.3	0.1
	남 자	1,412	28.8	24.4	20.4	9.4	9.8	5.1	1.7	0.3	0.1
	여 자	1,302	34.4	20.0	18.5	8.7	7.7	9.0	1.5	0.2	0.1
연령	만 15 - 18 세	422	32.1	21.8	20.5	9.9	8.1	3.7	3.3	0.2	0.3
	만 19 - 29 세	1,150	31.0	22.9	18.8	10.9	8.8	5.6	1.7	0.1	0.1
	만 30 - 39 세	1,142	31.7	21.9	19.9	6.9	9.0	9.2	1.0	0.4	0.1
지역	서 울	510	22.4	23.1	26.9	8.9	9.4	7.5	1.6	0.0	0.2
	인 천 / 경 기	648	33.3	23.7	17.0	8.1	8.2	7.4	2.1	0.1	0.1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37.0	26.1	17.5	7.6	5.1	6.3	0.2	0.0	0.2
	광주/전라/제주	363	30.3	21.5	18.4	10.5	11.9	5.5	1.4	0.5	0.0
	부산/울산/경남	421	36.2	17.0	15.5	11.6	9.4	8.3	1.4	0.7	0.0
	대 구 / 경 북	362	30.6	19.8	22.4	8.9	10.4	4.6	2.7	0.6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32.7	22.0	20.7	10.0	7.3	3.5	3.1	0.2	0.3
	대학생/대학원생	550	28.4	29.1	17.4	10.9	8.9	4.2	0.7	0.3	0.0
	고 졸 이 하	549	29.8	22.3	24.4	8.6	7.1	5.3	2.4	0.0	0.1
	대 졸 이 상	1,222	33.1	19.6	17.8	8.2	9.9	9.7	1.2	0.3	0.1
주거 형태	동 거	1,426	31.9	22.2	19.4	10.7	8.9	4.6	2.0	0.1	0.1
	비 동 거 / 독 립	1,288	31.0	22.4	19.7	7.3	8.7	9.4	1.2	0.4	0.1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8) 2019년 적정 최저 임금

- 2019년 적정 최저 임금에서 평균 8,783원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최저 임금(8,830원)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최저 임금 수준을 응답하였고, 지역으로 보면, 서울지역이 8,91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가장 낮은 최저 임금(8,633원)을 나타남.

표 II-28 2019년 적정 최저 임금

(단위: 명, 원)

구분		사례수	2019년 적정 최저 임금 평균(원)
전	체	2,714	8,783
성별	남 자	1,412	8,830
	여 자	1,302	8,732
연령	만 15 - 18 세	422	8,692
	만 19 - 29 세	1,150	8,805
	만 30 - 39 세	1,142	8,789
지역	서 울	510	8,915
	인 천 / 경 기	648	8,869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8,726
	광주/전라/제주	363	8,636
	부산/울산/경남	421	8,567
	대 구 / 경 북	362	8,79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8,686
	대학생/대학원생	550	8,633
	고 졸 이 하	549	8,890
	대 졸 이 상	1,222	8,822
주거 형태	동 거	1,426	8,749
	비 동 거 / 독 립	1,288	8,819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9)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에서는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58.9%로 나타났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14.1%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쟁이 약화될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64.4%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취업경쟁이 약화될 것으로 나타남.

표 II-29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전	체	2,714	14.1	26.9	58.9
	자	1,412	16.8	26.9	56.2
성별	여	1,302	11.1	26.9	62.0
연령	만 15 - 18 세	422	13.2	22.4	64.4
	만 19 - 29 세	1,150	13.7	26.4	59.9
	만 30 - 39 세	1,142	14.8	28.8	56.4
지역	서울	510	16.3	34.6	49.1
	인천 / 경기	648	14.1	25.3	60.6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5.6	24.0	60.4
	광주/전라/제주	363	14.9	26.7	58.3
	부산/울산/경남	421	9.9	19.0	71.0
	대구 / 경북	362	12.8	32.8	54.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3.2	23.1	63.6
	대학생/대학원생	550	13.0	27.5	59.5
	고 졸 이 하	549	14.5	30.0	55.5
	대 졸 이 상	1,222	14.7	26.3	59.1
주거 형태	동 거	1,426	12.5	28.3	59.2
	비 동 거 / 독 립	1,288	15.9	25.5	58.7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30)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 지급에서는 29.9%는 찬성, 51.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으로 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 반대의견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학력으로 보면, 현재 학생(만 15-18세)에서 가장 높은 찬성의견이 나타났고, 대졸이상에서 가장 높은 반대의견이 나타남.
-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60.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의견이 나타남.

표 II-30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전		2,714	29.9	51.5	18.5
성별	남	1,412	30.9	52.7	16.4
	여	1,302	28.8	50.2	20.9
연령	만 15 - 18 세	422	36.5	31.8	31.7
	만 19 - 29 세	1,150	34.0	48.2	17.8
	만 30 - 39 세	1,142	23.9	60.8	15.3
지역	서울	510	34.6	50.0	15.4
	인천 / 경기	648	25.0	56.6	18.4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9.3	51.5	19.2
	광주/전라/제주	363	31.2	46.0	22.8
	부산/울산/경남	421	36.3	44.5	19.2
	대구 / 경북	362	26.0	55.1	19.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37.1	31.8	31.0
	대학생/대학원생	550	33.8	46.3	19.8
	고 졸 이 하	549	25.3	55.4	19.2
	대 졸 이 상	1,222	28.6	57.1	14.3
주거 형태	동	1,426	35.8	43.4	20.9
	비 동 거 / 독 립	1,288	23.9	60.0	16.1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31) 집 관련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선택 항목

- 집 관련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선택 항목에서 '집'이 81.1%, '자동차'가 12.9%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은 '집'을 남성은 '자동차'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집'을 선택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85.3%로 '집'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집'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31 집 관련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선택 항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집	자동차	잘 모르겠다
전	체	2,714	81.1	12.9	6.0
성별	남 자	1,412	78.3	16.0	5.6
	여 자	1,302	84.1	9.5	6.5
연령	만 15 - 18 세	422	71.3	14.0	14.7
	만 19 - 29 세	1,150	79.7	14.3	5.9
	만 30 - 39 세	1,142	85.3	11.2	3.5
지역	서 울	510	83.6	11.0	5.4
	인 천 / 경 기	648	78.4	15.1	6.4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82.0	11.1	6.8
	광주/전라/제주	363	85.6	8.6	5.8
	부산/울산/경남	421	78.3	16.7	5.0
	대구 / 경 북	362	82.5	11.0	6.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71.1	14.0	15.0
	대학생/대학원생	550	77.5	14.9	7.5
	고 졸 이 하	549	80.9	14.1	5.1
	대 졸 이 상	1,222	85.3	11.3	3.5
주거 형태	동 거	1,426	76.3	15.4	8.3
	비 동 거 / 독 립	1,288	86.0	10.3	3.6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32)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에서 한 달 생활비는 평균 750,669원, 생활비 지원 비율은 26.3%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한달 평균 생활비와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생활비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지원 비율은 낮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서울지역이 844,384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동거보다는 높은 생활비 평균이 나타났지만, 지원 비율은 낮게 나타남.

표 II-32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수	한 달 생활비 평균(원)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전	체	2,714	750,669	26.3
	남 자	1,412	778,258	26.7
	여 자	1,302	720,173	25.8
연령	만 1 5 - 1 8 세	422	243,904	93.3
	만 1 9 - 2 9 세	1,150	713,227	28.9
	만 3 0 - 3 9 세	1,142	941,393	3.4
지역	서 울	510	844,384	21.2
	인 천 / 경 기	648	672,690	24.4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870,136	27.2
	광 주 / 전 라 / 제 주	363	635,646	29.0
	부 산 / 울 산 / 경 남	421	772,000	28.6
	대 구 / 경 북	362	728,310	35.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215,241	96.1
	대 학생/대 학원생	550	661,197	50.3
	고 졸 이 하	549	825,181	7.0
	대 졸 이 상	1,222	894,730	6.8
주거 형태	동 거	1,426	605,639	44.9
	비 동 거 / 독 립	1,288	901,792	6.9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33) 갚아야 할 채무 여부

- 갚아야 할 채무 여부에서는 72.9%가 ‘없다’고, 27.1%가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채무를 가지고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가장 높은 채무 비율이 나타남.

표 II-33 갚아야 할 채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321	27.1	72.9
성별	남 자	1,208	27.8	72.2
	여 자	1,113	26.3	73.7
연령	만 15 - 18 세	29	6.8	93.2
	만 19 - 29 세	1,150	17.7	82.3
	만 30 - 39 세	1,142	36.9	63.1
지역	서 울	451	27.3	72.7
	인 천 / 경 기	550	28.3	71.7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24.9	75.1
	광 주 / 전 라 / 제 주	299	23.1	76.9
	부 산 / 울 산 / 경 남	358	28.4	71.6
	대 구 / 경 북	313	28.1	71.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16.1	83.9
	고 졸 이 하	549	24.0	76.0
	대 졸 이 상	1,222	33.2	66.8
주거 형태	동 거	1,036	16.1	83.9
	비 동 거 / 독 립	1,285	35.9	64.1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3) 학자금 대출 포함

3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라는 것에 2.7%가 박탈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1.9%)보다는 여성(3.6%)이 더 높은 박탈감 경험을 나타냄.
-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관련 비용에 대한 박탈감을 경험하였고, 인천/경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박탈감 경험(3.7%)을 보임.
- 비동거/독립(3.9%)의 응답자들이 동거(1.5%) 응답자들 보다 더 높은 박탈감 경험을 보고함.

표 II-3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전	체	2,714	2.7	86.8	10.5
	남 자	1,412	1.9	87.8	10.3
	여 자	1,302	3.6	85.7	10.7
연령	만 15 - 18 세	422	0.4	68.5	31.1
	만 19 - 29 세	1,150	2.9	84.4	12.6
	만 30 - 39 세	1,142	3.1	94.8	2.1
지역	서울	510	2.3	89.4	8.3
	인천 / 경기	648	3.7	80.7	15.5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2	90.7	7.0
	광주/전라/제주	363	0.8	90.0	9.2
	부산/울산/경남	421	2.7	89.8	7.5
	대구 / 경북	362	2.8	87.7	9.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0.5	67.1	32.5
	대학생/대학원생	550	2.8	81.5	15.7
	고 졸 이 하	549	4.5	88.2	7.3
	대 졸 이 상	1,222	2.4	93.6	4.0
주거 형태	동 거	1,426	1.5	78.9	19.6
	비 동 거 / 독 립	1,288	3.9	95.0	1.1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3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라는 것에 90.2%가 ‘없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1.1%)이 남성보다 집의 냉/난방 유지를 못했다고 응답했고, 만 19-29세(1.2%)에서 집의 냉/난방 유지를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1.4%)에서 동거보다는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3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전	체	2,714	0.8	90.2	8.9
	자				
성별	남	1,412	0.6	90.5	8.9
	여	1,302	1.1	90.0	9.0
연령	만 15 - 18 세	422	0.0	72.8	27.2
	만 19 - 29 세	1,150	1.2	88.2	10.7
	만 30 - 39 세	1,142	0.8	97.6	1.7
지역	서울	510	1.0	92.3	6.7
	인천 / 경기	648	0.7	85.0	14.3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8	91.9	6.3
	광주/전라/제주	363	0.5	93.3	6.2
	부산/울산/경남	421	0.2	93.5	6.3
	대구 / 경북	362	0.8	92.6	6.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0.0	71.7	28.3
	대학생/대학원생	550	1.6	85.9	12.5
	고 졸 이 하	549	1.0	92.4	6.6
	대 졸 이 상	1,222	0.6	96.0	3.4
주거 형태	동 거	1,426	0.3	82.9	16.8
	비 동 거 / 독 립	1,288	1.4	97.9	0.7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3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라는 것에 7.9%가 ‘그렇다’고 응답함.
- 여성(9.1%)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만 19-29세(9.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이하(10.7%)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박탈감을 경험하였다고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 11.1%로 가장 높게 박탈감을 경험함.

표 II-3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714	7.9	92.1
	남 자	1,412	6.8	93.2
	여 자	1,302	9.1	90.9
연령	만 15 - 18 세	422	5.7	94.3
	만 19 - 29 세	1,150	9.2	90.8
	만 30 - 39 세	1,142	7.3	92.7
지역	서울	510	7.1	92.9
	인천 / 경기	648	11.1	88.9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6.8	93.2
	광주/전라/제주	363	7.7	92.3
	부산/울산/경남	421	4.3	95.7
	대구 / 경북	362	6.3	93.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5.3	94.7
	대학생/대학원생	550	9.0	91.0
	고 졸 이 하	549	10.7	89.3
	대 졸 이 상	1,222	6.8	93.2
주거 형태	동 거	1,426	6.9	93.1
	비 동 거 / 독 립	1,288	8.9	91.1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3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97.8%가 '아니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2.7%)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만 19-29세(3.9%)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상으로 대학생/대학원생(4.0%)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서울지역이 3.4%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와 비동거/독립은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II-3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2,714	2.2	97.8
성별	남	1,412	1.7	98.3
	여	1,302	2.7	97.3
연령	만 15 - 18세	422	1.5	98.5
	만 19 - 29세	1,150	3.9	96.1
	만 30 - 39세	1,142	0.8	99.2
지역	서울	510	3.4	96.6
	인천 / 경기	648	2.1	97.9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8	98.2
	광주/전라/제주	363	1.9	98.1
	부산/울산/경남	421	1.1	98.9
	대구 / 경북	362	2.4	97.6
학력	중 · 고등학생	393	1.2	98.8
	대학생/대학원생	550	4.0	96.0
	고졸이하	549	1.7	98.3
	대졸이상	1,222	1.9	98.1
주거 형태	동거	1,426	2.2	97.8
	비동거 / 독립	1,288	2.2	97.8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3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라는 것에 13.9%가 이에 박탈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 남성보다 여성(16.2%)이 더 높았으며, 연령에서 만 19-29세가 17.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18.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지역(16.4%)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경험이 높게 나타남.

표 II-3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714	13.9	86.1
	자			
성별	남	1,412	11.9	88.1
	여	1,302	16.2	83.8
연령	만 15 - 18 세	422	11.5	88.5
	만 19 - 29 세	1,150	17.2	82.8
	만 30 - 39 세	1,142	11.4	88.6
지역	서울	510	12.4	87.6
	인천 / 경기	648	16.4	83.6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3.1	86.9
	광주/전라/제주	363	14.0	86.0
	부산/울산/경남	421	12.3	87.7
	대구 / 경북	362	12.9	87.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1.2	88.8
	대학생/대학원생	550	18.0	82.0
	고 졸 이 하	549	12.4	87.6
	대 졸 이 상	1,222	13.7	86.3
주거 형태	동 거	1,426	13.7	86.3
	비 동 거 / 독 립	1,288	14.2	85.8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3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2.7%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만 19-29세(4.3%)에서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전라/제주지역(3.9%)이 다른 지역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3.6%)이 동거(1.8%)보다 TV소유에 따른 박탈감 경험이 높게 나타남.

표 II-3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714	2.7	97.3
	자			
성별	남	1,412	2.7	97.3
	여	1,302	2.7	97.3
연령	만 15 - 18 세	422	1.7	98.3
	만 19 - 29 세	1,150	4.3	95.7
	만 30 - 39 세	1,142	1.3	98.7
지역	서울	510	3.3	96.7
	인천 / 경기	648	2.1	97.9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4	97.6
	광주/전라/제주	363	3.9	96.1
	부산/울산/경남	421	2.6	97.4
	대구 / 경북	362	2.5	97.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6	98.4
	대학생/대학원생	550	4.2	95.8
	고 졸 이 하	549	1.0	99.0
	대 졸 이 상	1,222	3.1	96.9
주거 형태	동 거	1,426	1.8	98.2
	비 동 거 / 독 립	1,288	3.6	96.4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4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99.3%가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0.8%)이 여성보다 냉장고 소유에 따른 박탈감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서울지역에서 1.6%로 상대적으로 높은 박탈감 경험이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1.2%)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대적 박탈감 경험이 나타남.

표 II-4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714	0.7	99.3
	남 자	1,412	0.8	99.2
	여 자	1,302	0.6	99.4
연령	만 15 - 18 세	422	0.7	99.3
	만 19 - 29 세	1,150	1.0	99.0
	만 30 - 39 세	1,142	0.3	99.7
지역	서 울	510	1.6	98.4
	인 천 / 경 기	648	0.2	99.8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0.4	99.6
	광주/전라/제주	363	0.3	99.7
	부산/울산/경남	421	0.5	99.5
	대 구 / 경 북	362	1.5	98.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0.5	99.5
	대학생/대학원생	550	1.2	98.8
	고 졸 이 하	549	0.8	99.2
	대 졸 이 상	1,222	0.5	99.5
주거 형태	동 거	1,426	0.9	99.1
	비 동 거 / 독 립	1,288	0.5	99.5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4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응답자의 24.6%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박탈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로 보면 동거(29.2%)가 비동거/독립(19.8%)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 물질적 박탈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표 II-4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714	24.6	75.4
성별	남 자	1,412	23.3	76.7
	여 자	1,302	26.0	74.0
연령	만 15 - 18 세	422	24.1	75.9
	만 19 - 29 세	1,150	36.1	63.9
	만 30 - 39 세	1,142	13.2	86.8
지역	서 울	510	25.7	74.3
	인 천 / 경 기	648	32.5	67.5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3.7	86.3
	광주/전라/제주	363	14.7	85.3
	부산/울산/경남	421	31.1	68.9
	대 구 / 경 북	362	11.9	88.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23.7	76.3
	대학생/대학원생	550	35.3	64.7
	고 졸 이 하	549	27.5	72.5
	대 졸 이 상	1,222	19.0	81.0
주거 형태	동 거	1,426	29.2	70.8
	비 동 거 / 독 립	1,288	19.8	80.2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4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물음에 99.7%가 통신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0.2%)보다 남성(0.4%)이 휴대폰 소유로 인한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통신수단 소유에 대한 박탈감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상응하게 중/고등학생(1.2%)에서 통신수단 보유하지 않아서 박탈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표 II-4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714	0.3	99.7
	자			
성별	남	1,412	0.4	99.6
	여	1,302	0.2	99.8
연령	만 15 - 18 세	422	1.1	98.9
	만 19 - 29 세	1,150	0.2	99.8
	만 30 - 39 세	1,142	0.1	99.9
지역	서울	510	0.6	99.4
	인천 / 경기	648	0.3	99.7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0.1	99.9
	광주/전라/제주	363	0.0	100.0
	부산/울산/경남	421	0.0	100.0
	대구 / 경북	362	0.6	99.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2	98.8
	대학생/대학원생	550	0.1	99.9
	고 졸 이 하	549	0.3	99.7
	대 졸 이 상	1,222	0.1	99.9
주거 형태	동 거	1,426	0.5	99.5
	비 동 거 / 독 립	1,288	0.1	99.9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43) 중소기업 취업 의향

-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서 59.4%는 취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6%는 취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61.3%)이 남성보다 높은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6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보였고,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가장 높은 취업 의향이 나타남.
- 주거형태로 보면, 동거에서 62.7%로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3 중소기업 취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2,714	59.4	40.6
성별	남	1,412	57.7	42.3
	여	1,302	61.3	38.7
연령	만 15 - 18 세	422	57.5	42.5
	만 19 - 29 세	1,150	63.9	36.1
	만 30 - 39 세	1,142	55.5	44.5
지역	서울	510	66.7	33.3
	인천 / 경기	648	60.8	39.2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53.9	46.1
	광주 / 전라 / 제주	363	53.1	46.9
	부산 / 울산 / 경남	421	55.3	44.7
	대구 / 경북	362	60.1	39.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56.5	43.5
	대학생 / 대학원생	550	65.0	35.0
	고 졸 이 하	549	65.5	34.5
	대 졸 이 상	1,222	55.0	45.0
주거 형태	동	1,426	62.7	37.3
	비 동 거 / 독 립	1,288	55.9	44.1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44)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서 20.6%로 ‘고용불안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낮은 급여 수준’과 ‘대기업 보다 낮은 복지 수준’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은 ‘고용불안정’을 남성은 ‘낮은 급여 수준’에서 가장 높게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20.7%)에서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고,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18.5%)에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에 대해 높게 응답함.
- 지역으로 보면, 인천/경기지역(10.0%)에서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4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 불안정	낮은 급여 수준	대기업 보다 낮은 복지 수준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대기업 보다 낮은 성취감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기타
전		체 1,114	20.6	19.8	13.9	13.3	11.5	8.4	8.0	2.8	1.7
성별	남	자 604	20.2	21.1	14.0	13.2	12.8	7.8	6.1	3.1	1.7
	여	자 510	21.2	18.2	13.7	13.5	9.9	9.2	10.1	2.5	1.6
연령	만 15 - 18 세	179	17.0	13.4	16.1	14.9	20.7	12.9	2.4	2.4	0.3
	만 19 - 29 세	416	20.2	19.9	12.8	14.6	10.8	6.4	10.2	3.5	1.6
	만 30 - 39 세	519	22.1	21.6	14.1	11.8	9.5	8.8	7.7	2.4	2.1
지역	서울	168	19.9	19.9	13.1	12.9	15.3	8.0	7.2	1.9	1.8
	인천 / 경기	256	18.9	18.9	9.0	12.8	16.8	8.3	10.0	4.0	1.2
	대전/충청/세종/강원	192	21.2	17.8	17.4	17.7	9.4	8.7	3.6	1.4	2.9
	광주 / 전라 / 제주	170	28.5	24.0	12.3	11.0	5.7	7.5	9.9	0.7	0.4
	부산 / 울산 / 경남	186	21.2	18.1	12.6	13.5	5.4	13.0	9.5	4.5	2.2
	대구 / 경북	142	15.7	23.2	29.8	11.1	8.9	2.3	4.6	3.0	1.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70	17.3	13.1	16.3	13.3	21.2	13.5	2.5	2.5	0.3
	대 학생 / 대 학 원 생	189	22.3	17.9	14.0	18.5	10.9	5.8	6.1	3.2	1.2
	고 졸 이 하	194	17.2	17.6	8.6	15.0	11.1	6.9	16.1	5.6	2.0
	대 졸 이 상	561	22.2	22.9	15.1	11.1	9.4	8.5	7.1	1.8	2.0
주거 형태	동 거	536	21.5	17.5	11.7	14.4	14.6	10.1	6.0	2.9	1.5
	비 동 거 / 독 립	578	19.9	21.8	15.8	12.4	8.8	7.0	9.6	2.8	1.8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

45)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창업 고려 여부에서는 35.8%가 고려하고 있고, 51.1%는 창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나타났고, 12.7%는 실제 창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창업을 더 고려하고, 실제 창업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창업에 대한 고려는 만 19-29세에서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제 창업 경험은 만 30-39세가 19.1%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창업에 대한 고려와 실제 창업 경험 모두 높게 나타났고, 지역으로 보면, 서울지역에서 창업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5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은 없다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전	총	2,321	51.5	35.8	12.7
	남	1,208	47.9	36.2	15.8
	여	1,113	55.4	35.3	9.2
연령	만 15 - 18 세	29	56.0	36.0	8.0
	만 19 - 29 세	1,150	55.9	37.6	6.4
	만 30 - 39 세	1,142	46.9	34.0	19.1
지역	서울	451	43.4	41.6	15.0
	인천 / 경기	550	48.4	38.5	13.1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61.5	29.7	8.8
	광주 / 전라 / 제주	299	55.2	33.1	11.7
	부산 / 울산 / 경남	358	59.0	26.2	14.8
	대구 / 경북	313	50.3	40.3	9.4
	대학생/대학원생	550	59.4	33.9	6.7
학력	고졸이하	549	40.9	42.1	17.0
	대졸이상	1,222	53.1	33.7	13.2
주거 형태	동거	1,036	55.7	36.3	8.0
	비동거 / 독립	1,285	48.1	35.4	16.4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46)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분야에서 82.2%가 '노동수요(일자리, 경제)'에 응답하였고, '노동공급(개인, 교육)'이 17.8%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18.8%)이 '노동공급'이 더 중요한 정책으로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83.5%)에서 '노동수요'분야가 더 중요하고 응답했고, 지역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노동수요'분야가 더 중요한 정책으로 응답함.
-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85.0%)에서 '노동수요'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17.9%)에서 '노동공급'이 더 중요한 정책으로 응답함.

표 II-46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노동 공급(개인, 교육)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전	체	2,321	17.8	82.2
	남 자	1,208	18.8	81.2
	여 자	1,113	16.6	83.4
연령	만 1 5 - 1 8 세	29	17.5	82.5
	만 1 9 - 2 9 세	1,150	16.5	83.5
	만 3 0 - 3 9 세	1,142	19.1	80.9
지역	서 울	451	20.6	79.4
	인 천 / 경 기	550	16.8	83.2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15.5	84.5
	광 주 / 전 라 / 제 주	299	13.1	86.9
	부 산 / 울 산 / 경 남	358	23.2	76.8
	대 구 / 경 북	313	14.5	85.5
학력	대 학생 / 대 학원생	550	18.6	81.4
	고 졸 이 하	549	15.0	85.0
	대 졸 이 상	1,222	18.7	81.3
주거 형태	동 거	1,036	17.6	82.4
	비 동 거 / 독 립	1,285	17.9	82.1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47)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에서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강화’라는 응답이 23.4%로 나타났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가 18.0%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제고’를 중요시함.
- 연령으로 보면, 만 30-39세에서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를 중요시했고,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분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에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표 II-47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고학력화 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에 대한 높은 선호도 (청년 눈높이 제고)	독일이나 스위스식 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마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기타	
전		체	2,321	23.4	18.0	14.8	14.7	14.3	13.0	1.8	0.0
성별	남	자	1,208	20.9	18.8	15.9	15.2	14.1	12.9	2.2	0.0
	여	자	1,113	26.1	17.2	13.6	14.1	14.4	13.1	1.4	0.0
연령	만 1 5 - 1 8 세		29	23.7	24.6	12.9	15.3	10.1	13.4	0.0	0.0
	만 1 9 - 2 9 세		1,150	25.1	16.9	15.1	14.2	14.2	12.0	2.5	0.0
	만 3 0 - 3 9 세		1,142	21.7	19.0	14.5	15.1	14.5	13.9	1.3	0.0
지역	서울		451	18.4	18.3	17.7	13.3	19.1	11.4	1.7	0.0
	인천 / 경 기		550	22.6	21.2	13.8	15.7	11.3	13.8	1.6	0.0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27.7	10.8	13.6	17.3	17.6	11.6	1.3	0.0
	광주/전라/제주		299	29.3	17.8	9.5	17.9	10.9	11.7	2.8	0.0
	부산/울산/경남		358	25.1	16.8	17.0	11.6	13.6	14.2	1.7	0.0
	대구 / 경 북		313	22.3	18.9	15.7	11.9	13.3	15.0	2.9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23.5	18.0	15.1	14.8	13.5	12.7	2.3	0.0
	고 졸 이 하		549	24.2	19.0	14.8	15.3	14.2	9.8	2.8	0.0
	대 졸 이 상		1,222	23.0	17.6	14.6	14.3	14.6	14.6	1.2	0.0
주거 형태	동 거		1,036	24.4	16.3	14.8	14.9	14.2	12.9	2.6	0.0
	비 동 거 / 독 립		1,285	22.6	19.4	14.8	14.5	14.3	13.1	1.3	0.0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48)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에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가 32.1%로 나타났고, 18.5%로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19.6%)이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21.7%)에서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26.4%)에서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48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공공 부문 채용 확대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임금 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 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기타
전		체 2,321	32.1	18.5	14.7	14.5	11.6	5.2	3.0	0.3
성별	남	자 1,208	33.3	17.6	14.7	14.2	12.2	5.8	2.0	0.3
	여	자 1,113	30.7	19.6	14.7	14.9	10.9	4.6	4.2	0.4
연령	만 1 5 - 1 8 세	29	25.1	12.2	16.7	21.7	12.4	0.0	11.9	0.0
	만 1 9 - 2 9 세	1,150	30.3	20.2	15.2	14.9	10.6	5.3	3.0	0.6
	만 3 0 - 3 9 세	1,142	34.0	17.0	14.2	14.0	12.6	5.2	2.9	0.1
지역	서 울	451	27.3	21.4	16.0	16.0	11.5	5.7	1.4	0.7
	인 천 / 경 기	550	33.6	17.1	15.8	12.2	12.6	5.5	2.7	0.5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36.7	16.1	11.0	6.6	17.0	6.3	6.2	0.0
	광주/전라/제주	299	32.7	19.9	15.5	14.2	9.6	4.0	4.0	0.0
	부산/울산/경남	358	29.3	23.1	12.5	17.3	9.1	5.5	2.8	0.2
	대 구 / 경 북	313	34.7	11.6	15.7	26.4	6.6	2.5	2.5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28.7	20.2	15.1	17.8	10.1	3.9	3.4	0.8
	고 졸 이 하	549	26.1	22.9	16.2	14.6	11.2	6.0	2.8	0.3
	대 졸 이 상	1,222	36.3	15.8	13.8	13.2	12.4	5.4	2.9	0.2
주거 형태	동 거	1,036	30.5	19.6	15.1	14.9	10.4	6.0	3.0	0.4
	비 동 거 / 독 립	1,285	33.3	17.7	14.4	14.2	12.6	4.6	3.0	0.3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49)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에서 71.1%가 일을 했다고 했고, 27.1%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일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일한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서울지역이 일한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일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동거보다 일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9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전	체	2,321	71.1	1.8	27.1
	남 자	1,208	80.8	0.9	18.3
	여 자	1,113	60.4	2.8	36.8
연령	만 15 - 18 세	29	53.0	0.0	47.0
	만 19 - 29 세	1,150	65.1	1.1	33.8
	만 30 - 39 세	1,142	77.5	2.5	20.0
지역	서 울	451	75.2	1.8	23.0
	인 천 / 경 기	550	70.9	1.1	28.0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74.1	1.6	24.3
	광 주 / 전 라 / 제 주	299	69.1	3.1	27.8
	부 산 / 울 산 / 경 남	358	68.9	2.8	28.3
	대 구 / 경 북	313	63.7	1.3	34.9
학력	대 학생 / 대 학원생	550	46.8	0.6	52.6
	고 졸 이 하	549	78.5	1.4	20.2
	대 졸 이 상	1,222	77.8	2.5	19.7
주거 형태	동 거	1,036	68.0	0.8	31.2
	비 동 거 / 독 립	1,285	73.6	2.5	23.9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50)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에서 85.7%가 구직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10.7%가 구직경험이 있고 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구직 경험과 구직 후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에서 구직 경험과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구직경험과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동거에서 구직경험과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0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전	체	654	10.7	3.6	85.7
	남 자	239	15.9	4.3	79.7
	여 자	415	7.8	3.2	88.9
연령	만 1 5 - 1 8 세	14	0.0	0.0	100.0
	만 1 9 - 2 9 세	408	13.6	2.7	83.7
	만 3 0 - 3 9 세	232	6.3	5.4	88.3
지역	서 울	107	10.4	2.8	86.8
	인 천 / 경 기	159	11.5	4.9	83.6
	대전/충청/세종/강원	85	7.5	3.6	89.0
	광주/전라/제주	85	9.7	1.3	89.0
	부산/울산/경남	103	14.4	1.3	84.3
	대구 / 경 북	115	8.4	6.3	85.3
	대학생/대학원생	295	5.4	2.2	92.4
학력	고 졸 이 하	114	12.8	4.6	82.6
	대 졸 이 상	245	15.6	4.7	79.6
주거 형태	동 거	338	14.7	3.0	82.4
	비 동 거 / 독 립	316	6.6	4.3	89.1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51)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에서 61.5%가 통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38.5%가 통학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통학을 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통학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통학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에서 통학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51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654	38.5	61.5
	남 자	239	59.5	40.5
	여 자	415	27.0	73.0
연령	만 15 - 18 세	14	92.1	7.9
	만 19 - 29 세	408	58.2	41.8
	만 30 - 39 세	232	2.7	97.3
지역	서 울	107	37.4	62.6
	인 천 / 경 기	159	31.5	68.5
	대전/충청/세종/강원	85	49.9	50.1
	광 주 / 전 라 / 제 주	85	45.6	54.4
	부 산 / 울 산 / 경남	103	40.9	59.1
	대 구 / 경 북	115	38.6	61.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295	82.8	17.2
	고 졸 이 하	114	0.5	99.5
	대 졸 이 상	245	7.1	92.9
주거 형태	동 거	338	59.5	40.5
	비 동 거 / 독 립	316	16.7	83.3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지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52)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에서 920%가 통학하지 않고, 8.0%가 통학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통학 경험이 많다고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통학 경험이 많다고 응답함.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통학 경험이 많다고 응답했고, 주거형태로 보면 동거에서 통학 경험이 많다고 응답함.

표 II-52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392	8.0	92.0
성별	남 자	96	17.6	82.4
	여 자	296	5.1	94.9
연령	만 1 5 - 1 8 세	1	100.0	0.0
	만 1 9 - 2 9 세	165	13.3	86.7
	만 3 0 - 3 9 세	226	3.8	96.2
지역	서 울	66	9.4	90.6
	인 천 / 경 기	106	5.6	94.4
	대전/충청/세종/강원	45	5.2	94.8
	광 주 / 전 라 / 제 주	47	2.6	97.4
	부 산 / 울 산 / 경 남	62	6.9	93.1
	대 구 / 경 북	66	20.9	79.1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9	18.2	81.8
	고 졸 이 하	113	4.1	95.9
	대 졸 이 상	230	7.9	92.1
주거 형태	동 거	135	18.6	81.4
	비 동 거 / 독 립	257	2.7	97.3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53) 니트 관련_1) 지난주에 주로 한 일

- 니트 응답자 중에서 지난주에 주로 한 일에서 ‘육아나 돌봄, 가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가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80.8%가 육아 및 가사에 응답함.
- 대학생/대학원생 니트 응답자들의 26.2%가 취업 및 취업준비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표 II-53 니트 관련_1) 지난주에 주로 한 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 을 했다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쉬었다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 훈련 기관을 찾는 것이 무의미 하게 느껴져 그냥 쉬었다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였다	기타
전	체	359	64.1	14.8	7.5	6.3	2.8	2.1	2.3
	자	78	1.3	45.0	15.4	12.6	11.0	5.5	9.2
성별	여	281	80.8	6.8	5.5	4.7	0.6	1.2	0.5
연령	만 19 - 29 세	142	30.9	31.7	15.9	8.5	5.6	2.6	4.9
	만 30 - 39 세	217	86.0	3.6	2.1	4.9	0.9	1.8	0.7
지역	서울	60	69.9	11.0	4.0	11.9	3.2	0.0	0.0
	인천 / 경기	100	72.0	8.2	11.2	3.9	2.1	0.8	1.8
	대전/충청/세종/강원	42	45.0	22.5	8.9	8.5	7.6	3.0	4.5
	광주/전라/제주	46	56.1	19.2	8.7	10.1	1.9	1.9	2.1
	부산/울산/경남	58	58.1	25.8	1.2	3.8	1.9	8.0	1.2
	대구 / 경북	53	60.6	17.5	7.1	3.4	1.9	1.4	8.2
	대학생/대학원생	40	21.8	26.2	19.4	11.2	2.6	9.3	9.5
학력	고졸 이하	107	68.6	7.7	7.0	8.7	3.3	3.0	1.7
	대졸 이상	212	69.6	16.4	5.7	4.2	2.5	0.3	1.4
주거 형태	동거	110	7.8	40.2	18.7	13.8	8.1	5.1	6.3
	비동거 / 독립	249	88.0	4.0	2.8	3.2	0.5	0.9	0.6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54)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 니트 응답자들에게서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7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당 기간은 평균 41.1개월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49.0개월)이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 인천/경기지역이 취업 및 훈련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47.7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응답자들이 46.0개월로 높게 나타남. 대졸 이상의 니트 응답자들도 42.9개월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임.

표 II-54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이상	평균(개월)
전	체	359	3.3	19.3	77.4	41.1
	자	78	12.0	50.3	37.7	11.2
성별	여	281	1.0	11.1	88.0	49.0
	자					
연령	만 19 - 29 세	142	8.3	37.8	53.8	19.1
	만 30 - 39 세	217	0.0	7.1	92.9	55.5
지역	서 울	60	0.0	13.6	86.4	44.8
	인 천 / 경 기	100	5.3	13.8	80.8	47.7
	대전/충청/세종/강원	42	7.4	22.7	69.9	33.0
	광주/전라/제주	46	2.4	28.4	69.2	31.9
	부산/울산/경남	58	1.2	30.1	68.6	34.3
	대 구 / 경 북	53	1.5	21.6	76.9	36.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0	14.4	39.0	46.6	16.9
	고 졸 이 하	107	3.5	15.8	80.7	46.0
	대 졸 이 상	212	1.2	17.5	81.4	42.9
주거 형태	동 거	110	9.7	50.5	39.8	13.6
	비 동 거 / 독 립	249	0.6	6.1	93.3	52.7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5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현재 종사하는 일의 직업 분류에서 '서비스 종사자'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7%로 '사무 종사자'가 뒤를 이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사무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서울지역에서 '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서비스 종사자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관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직업 군인
전	체	1,667	30.5	25.7	16.8	12.8	6.2	3.0	2.6	1.8	0.4	0.2
	남 자	969	30.2	21.6	16.7	10.7	9.7	4.8	3.3	2.3	0.5	0.2
	여 자	698	30.8	31.5	17.1	15.8	1.2	0.4	1.7	1.2	0.2	0.2
연령	만 15 - 18 세	15	54.7	5.6	28.8	0.0	0.0	5.7	5.2	0.0	0.0	0.0
	만 19 - 29 세	742	35.8	20.3	19.8	11.1	5.4	1.9	3.4	1.4	0.5	0.3
	만 30 - 39 세	910	25.7	30.5	14.2	14.3	7.0	3.8	2.0	2.1	0.3	0.2
지역	서 울	344	32.6	26.3	20.0	14.7	2.9	0.5	1.6	1.4	0.0	0.0
	인 천 / 경 기	391	31.6	21.7	17.5	12.7	5.7	5.0	3.4	2.1	0.3	0.0
	대전/충청/세종/강원	265	26.8	37.0	14.8	9.9	6.8	2.5	0.7	1.1	0.3	0.1
	광 주 / 전 라 / 제 주	214	36.4	18.9	14.8	14.2	5.8	3.2	4.8	0.4	1.4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255	23.3	29.1	15.3	12.1	11.0	3.4	2.1	2.4	0.0	1.3
	대 구 / 경 북	198	31.6	22.4	14.2	11.7	8.7	2.0	4.2	3.6	1.5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255	46.9	9.5	22.8	6.2	6.0	1.7	4.5	2.5	0.0	0.0
	고 졸 이 하	435	38.7	11.0	29.2	2.8	8.6	3.2	4.7	1.4	0.5	0.0
	대 졸 이 상	977	22.5	36.6	9.6	19.0	5.2	3.2	1.2	1.8	0.5	0.3
주거 형태	동 거	698	37.2	21.2	19.7	9.5	5.2	3.0	2.9	0.9	0.4	0.0
	비 동 거 / 독 립	969	25.6	28.9	14.7	15.1	7.0	2.9	2.5	2.4	0.4	0.3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56)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에서 '200-300만원 미만'이 37.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은 234.5만원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월 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 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이 가장 낮은 월 평균 소득으로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이 262.5만원으로 가장 높은 월 평균 소득을 보임.

표 II-56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 (만원)	
전		체	1,667	9.4	26.7	37.9	17.1	4.9	3.9	0.0	234.5
성별	남	자	969	6.4	18.0	38.5	24.3	7.3	5.4	0.1	268.4
	여	자	698	13.6	39.2	37.0	6.8	1.6	1.8	0.0	186.1
연령	만 1 5 - 1 8 세		15	41.9	39.0	19.1	0.0	0.0	0.0	0.0	122.5
	만 1 9 - 2 9 세		742	15.4	39.6	35.5	5.8	2.0	1.7	0.1	195.3
	만 3 0 - 3 9 세		910	3.9	15.9	40.1	26.8	7.4	5.9	0.0	268.6
지역	서울		344	8.4	28.0	37.6	15.3	5.1	5.7	0.0	239.3
	인천 / 경기		391	11.4	25.7	35.9	17.8	6.0	3.3	0.0	224.1
	대전/충청/세종/강원		265	4.7	25.2	45.0	18.1	5.0	1.6	0.3	262.5
	광주 / 전라 / 제주		214	12.6	29.6	34.9	14.1	5.7	3.0	0.0	214.6
	부산 / 울산 / 경남		255	7.8	23.0	42.7	18.6	2.6	5.3	0.0	245.4
	대구 / 경북		198	10.9	33.1	29.5	18.8	3.4	4.3	0.0	218.6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255	36.9	34.8	16.7	6.5	3.2	1.8	0.0	149.5
	고 졸 이 하		435	5.8	34.8	40.1	12.7	3.3	3.2	0.2	232.1
	대 졸 이 상		977	4.2	21.0	42.1	21.8	6.1	4.8	0.0	256.7
주거 형태	동 거		698	14.5	36.7	38.3	8.1	1.0	1.3	0.1	197.6
	비 동 거 / 독 립		969	5.7	19.6	37.6	23.6	7.7	5.8	0.0	261.0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5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에서 85.2%가 '임금근로자', 14.8%가 '비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인천/경기지역이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5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전	체	1,667	85.2	14.8
성별	남 자	969	83.5	16.5
	여 자	698	87.6	12.4
연령	만 15 - 18 세	15	100.0	0.0
	만 19 - 29 세	742	92.2	7.8
	만 30 - 39 세	910	79.1	20.9
지역	서 울	344	84.4	15.6
	인 천 / 경 기	391	83.3	16.7
	대전/충청/세종/강원	265	89.7	10.3
	광주/전라/제주	214	87.1	12.9
	부산/울산/경남	255	83.6	16.4
	대 구 / 경 북	198	86.9	13.1
	대학생/대학원생	255	87.5	12.5
학력	고 졸 이 하	435	81.4	18.6
	대 졸 이 상	977	86.3	13.7
주거 형태	동 거	698	89.3	10.7
	비 동 거 / 독 립	969	82.2	17.8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58) 근로형태(임금근로자)

- 근로형태(임금근로자)에서 정규직은 73.8%, 비정규직은 26.2%로 나타났고, 전일제는 83.2%, 시간제는 16.8%로 근무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이며 시간제 근무형태로 근무한다고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이며 전일제로 근무한다고 응답했고,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정규직이며 전일제로 근무한다고 응답함.
-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 근무형태를 보임.

표 II-58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 형태		근로시간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전	체	1,432	73.8	26.2	83.2	16.8
성별	남 자	818	78.3	21.7	87.0	13.0
	여 자	614	67.6	32.4	78.1	21.9
연령	만 1 5 - 1 8 세	15	48.9	51.1	46.4	53.6
	만 1 9 - 2 9 세	688	61.6	38.4	74.3	25.7
	만 3 0 - 3 9 세	729	86.0	14.0	92.5	7.5
지역	서 울	290	74.6	25.4	81.1	18.9
	인 천 / 경 기	327	75.0	25.0	82.6	17.4
	대전/충청/세종/강원	241	71.2	28.8	91.6	8.4
	광 주 / 전 라 / 제 주	188	65.2	34.8	74.1	25.9
	부 산 / 울 산 / 경 남	213	80.5	19.5	86.3	13.7
	대 구 / 경 북	173	70.8	29.2	82.6	17.4
학력	대 학생 / 대 학원 생	226	33.6	66.4	43.5	56.5
	고 졸 이 하	356	72.0	28.0	86.8	13.2
	대 졸 이 상	850	84.7	15.3	91.7	8.3
주거 형태	동 거	628	64.4	35.6	76.6	23.4
	비 동 거 / 독 립	804	81.1	18.9	88.4	11.6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59)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

- 근로형태(비임금근로자)에서 59.2%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고, 32.5%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라고 응답하였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8.3%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보다 여성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보면,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 비동거/독립보다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9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235	32.5	59.2	8.3
성별	남	자 151	38.3	57.0	4.7
	여	자 84	21.6	63.3	15.2
연령	만 19 - 29 세	54	39.6	49.7	10.7
	만 30 - 39 세	181	30.3	62.1	7.6
지역	서울	54	39.2	55.1	5.7
	인천 / 경기	64	35.7	55.8	8.5
	대전/충청/세종/강원	24	16.3	80.6	3.1
	광주 / 전라 / 제주	26	35.8	57.1	7.0
	부산 / 울산 / 경남	42	31.9	61.9	6.2
	대구 / 경북	25	14.7	56.7	28.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29	34.8	50.0	15.1
	고졸 이하	79	30.8	56.5	12.7
	대졸 이상	127	33.1	62.9	4.0
주거 형태	동거	70	32.3	54.4	13.3
	비동거 / 독립	165	32.6	61.2	6.2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60) 일하는 곳

- 현재 일하는 곳에 대해 묻는 문항의 응답으로 82.9%가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라고 응답함.
-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과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에서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 및 대학생/대학원생에서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60 일하는 곳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민간 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 투자 기관/ 정부 출연 기관/ 공기업	(재단, 사단) 법인 단체	정부 기관 (공무원, 군인 등)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 되어 있지 않음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1,667	82.9	1.6	3.6	3.8	5.2	2.2	0.4	0.4
성별	남	자	969	84.0	2.1	3.4	2.6	5.1	2.2	0.2	0.4
	여	자	698	81.3	0.9	3.9	5.4	5.4	2.3	0.5	0.3
연령	만 15 - 18 세		15	88.7	5.7	5.6	0.0	0.0	0.0	0.0	0.0
	만 19 - 29 세		742	85.2	0.5	3.3	4.5	4.0	2.1	0.3	0.2
	만 30 - 39 세		910	80.9	2.5	3.8	3.2	6.3	2.3	0.4	0.6
지역	서 울		344	89.2	2.0	1.0	3.0	1.7	1.7	0.9	0.6
	인 천 / 경 기		391	86.3	2.6	2.2	2.0	3.4	2.7	0.5	0.3
	대전/충청/세종/강원		265	70.0	0.0	10.4	7.0	10.2	2.5	0.0	0.0
	광주/전라/제주		214	79.3	0.6	5.2	4.1	7.5	3.4	0.0	0.0
	부 산/울산/경남		255	81.2	1.2	2.9	3.8	8.3	1.5	0.0	1.1
	대 구 / 경 북		198	81.8	1.2	4.2	6.6	5.2	1.0	0.0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255	90.9	0.4	1.6	2.1	1.4	3.2	0.0	0.5
	고 졸 이 하		435	94.6	0.4	0.9	1.0	0.2	2.2	0.2	0.4
	대 졸 이 상		977	75.5	2.4	5.4	5.5	8.5	2.0	0.5	0.3
주거 형태	동 거		698	87.4	1.4	3.1	2.6	3.3	1.8	0.3	0.1
	비 동 거 / 독 립		969	79.6	1.7	4.0	4.6	6.6	2.5	0.4	0.6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61)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 36.4%가 '1-4인'이었고, 17.1%로 '10-29인'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500인 이상'의 직장(사업체)에서 일하는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적은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 일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500인 이상'의 직장(사업체)에서는 만 15-19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 '1-4인'규모의 직장(사업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1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1,667	36.4	14.8	17.1	12.0	8.7	2.8	8.1
	남 자	969	35.5	14.0	16.1	12.8	8.8	2.9	9.8
	여 자	698	37.6	16.0	18.6	10.8	8.7	2.6	5.7
연령	만 15 - 18 세	15	49.0	26.1	13.7	0.0	0.0	0.0	11.3
	만 19 - 29 세	742	39.1	17.7	15.9	10.8	8.2	1.6	6.6
	만 30 - 39 세	910	33.9	12.3	18.2	13.1	9.3	3.8	9.3
지역	서 울	344	32.9	18.7	20.1	11.4	6.5	3.3	7.1
	인 천 / 경 기	391	44.4	11.6	15.2	9.8	9.0	2.1	7.8
	대전/충청/세종/강원	265	24.8	13.0	19.3	18.0	12.1	3.5	9.3
	광주/전라/제주	214	38.3	22.5	13.7	9.9	8.5	1.4	5.7
	부산/울산/경남	255	33.2	12.1	19.1	11.4	8.9	4.3	10.9
	대 구 / 경 북	198	37.9	15.3	13.3	15.5	8.4	1.9	7.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255	52.3	21.5	12.5	7.2	2.3	1.2	3.0
	고 졸 이 하	435	48.7	16.9	17.4	7.3	4.6	0.8	4.2
	대 졸 이 상	977	26.7	12.2	18.2	15.4	12.3	4.1	11.2
주거 형태	동 거	698	41.4	16.4	15.7	11.4	7.1	2.4	5.7
	비 동 거 / 독 립	969	32.7	13.8	18.2	12.4	10.0	3.1	9.9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62)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를 묻는 문항의 응답으로 54.8%가 '3년 미만'으로 나타났고, 평균 근속년수는 40.6개월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근속년수가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서울지역의 근속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근속년수가 나타남.

표 II-62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근속년수 (개월)
전		체 1,667	54.8	16.9	12.9	8.1	7.3	40.6
성별	남 자	969	50.3	17.7	14.9	9.0	8.2	43.8
	여 자	698	61.2	15.9	10.1	6.8	6.0	36.0
연령	만 15 - 18 세	15	95.4	4.6	0.0	0.0	0.0	8.3
	만 19 - 29 세	742	78.1	13.8	6.1	1.9	0.2	20.6
	만 30 - 39 세	910	34.9	19.7	18.7	13.3	13.3	57.6
지역	서 울	344	55.4	18.1	15.2	6.1	5.3	37.7
	인 천 / 경 기	391	57.3	16.2	11.6	8.8	6.1	39.0
	대전/충청/세종/강원	265	52.8	18.3	12.6	8.1	8.2	41.3
	광 주 / 전 라 / 제 주	214	52.6	16.6	11.5	13.4	5.9	42.9
	부 산 / 울 산 / 경 남	255	55.3	14.4	13.5	4.8	11.9	43.0
	대 구 / 경 북	198	48.5	19.3	12.7	9.8	9.8	46.2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255	81.5	7.3	7.3	2.3	1.6	19.6
	고 졸 이 하	435	59.8	17.4	12.0	5.1	5.7	36.7
	대 졸 이 상	977	45.8	19.1	14.7	10.9	9.5	47.6
주거 형태	동 거	698	71.7	14.3	8.0	3.7	2.3	26.0
	비 동 거 / 독 립	969	42.6	18.8	16.4	11.2	10.9	51.0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63)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에서 36.7%가 '받고 있다'(받고 있는 편이다+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16.6%가 '받고있지 못하다'(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직장에서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가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과 대학생/대학원생이 직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38.9%)가 동거(33.3%)보다 직장에서 더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63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전		체	1,667	2.3	14.3	46.8	30.4	6.3
성별	남	자	969	2.2	12.2	47.5	31.2	7.0
	여	자	698	2.4	17.3	45.9	29.2	5.3
연령	만 1 5 - 1 8 세	15	5.6	6.8	37.4	34.5	15.7	
	만 1 9 - 2 9 세	742	2.0	15.4	46.7	28.0	7.9	
	만 3 0 - 3 9 세	910	2.4	13.5	47.1	32.3	4.7	
지역	서	울	344	1.2	11.5	47.4	33.9	6.0
	인 천 / 경 기	391	2.0	15.0	44.5	30.7	7.6	
	대전/충청/세종/강원	265	1.5	11.0	51.6	30.9	5.0	
	광 주 / 전 라 / 제 주	214	1.3	15.5	53.0	25.1	5.2	
	부 산 / 울 산 / 경 남	255	5.2	18.6	42.4	29.0	4.7	
	대 구 / 경 북	198	3.1	15.7	46.1	27.2	7.9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255	2.7	14.4	42.4	29.7	10.9	
	고 졸 이 하	435	1.5	12.4	54.0	24.9	7.2	
	대 졸 이 상	977	2.5	15.1	44.6	33.1	4.6	
주거 형태	동	거	698	1.8	14.7	50.2	27.2	6.1
	비 동 거 / 독 립	969	2.6	14.0	44.4	32.6	6.3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64) 이직 의향

- 이직 의향에서 30.2%가 이직 의향을 보였고, 69.8%가 이직 의향이 없다고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30-39세에서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이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4 이직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667	30.2	69.8
성별	남 자	969	28.8	71.2
	여 자	698	32.2	67.8
연령	만 1 5 - 1 8 세	15	31.4	68.6
	만 1 9 - 2 9 세	742	36.8	63.2
	만 3 0 - 3 9 세	910	24.7	75.3
지역	서 울	344	28.2	71.8
	인 천 / 경 기	391	34.7	65.3
	대전/충청/세종/강원	265	20.7	79.3
	광 주 / 전 라 / 제 주	214	36.7	63.3
	부 산 / 울 산 / 경 남	255	26.6	73.4
	대 구 / 경 북	198	33.0	67.0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255	39.7	60.3
	고 졸 이 하	435	27.9	72.1
	대 졸 이 상	977	28.9	71.1
주거 형태	동 거	698	34.3	65.7
	비 동 거 / 독 립	969	27.2	72.8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66) 이직 희망 사유

- 이직 희망 사유에서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가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이 16.5%로 그 뒤를 이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개인발전/승진’이, 여성은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5 이직 희망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더 나은 근무 환경	개인 발전/승진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개인 사업을 위해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집안 사정 때문에 (육아, 가사 부담 등 포함)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건강 상의 이유로	기타
전	체	503	52.1	16.5	10.8	9.9	4.0	3.0	2.4	0.7	0.5	0.0
	자	281	54.2	15.8	11.0	8.3	5.3	3.7	0.3	1.3	0.2	0.0
성별	여	222	49.4	17.5	10.7	12.0	2.3	2.2	5.0	0.0	0.9	0.0
연령	만 15 - 18 세	5	56.0	44.0	0.0	0.0	0.0	0.0	0.0	0.0	0.0	0.0
	만 19 - 29 세	274	49.9	15.7	14.7	12.3	2.4	2.0	1.0	1.3	0.5	0.0
	만 30 - 39 세	224	54.7	17.1	6.2	7.1	6.0	4.4	4.1	0.0	0.5	0.0
지역	서울	96	48.2	13.3	18.5	11.8	0.9	5.2	2.0	0.0	0.0	0.0
	인천 / 경기	136	54.1	18.1	6.7	8.9	4.6	3.1	2.2	1.5	0.8	0.0
	대전/충청/세종/강원	55	55.2	18.6	8.4	5.7	8.8	1.6	1.5	0.0	0.0	0.0
	광주/전라/제주	79	52.3	15.0	13.4	10.4	2.6	1.5	2.3	1.5	1.0	0.0
	부산/울산/경남	69	52.0	19.3	11.0	5.9	5.3	1.6	4.9	0.0	0.0	0.0
	대구 / 경북	68	49.4	13.8	8.3	18.9	3.9	3.1	1.2	0.0	1.3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03	59.6	11.3	16.3	8.7	0.0	4.1	0.0	0.0	0.0	0.0
	고 졸 이 하	120	49.5	18.5	9.7	12.6	5.1	0.8	1.6	1.9	0.5	0.0
	고 졸 이 상	280	50.7	17.5	9.5	9.1	4.9	3.6	3.5	0.5	0.7	0.0
주거 형태	동 거	240	53.4	15.6	12.3	10.4	2.9	3.3	0.0	1.5	0.6	0.0
	비 동 거 / 독 립	263	50.9	17.4	9.5	9.5	5.0	2.8	4.5	0.0	0.4	0.0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만 응답

66)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에서 ‘향후 10-20년 이내’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미 소유하고 있다’가 17.2%로 그 뒤를 이음.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본인 명의의 집을 더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향후 20년 이후’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 명의의 집을 더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지역에서 본인 명의의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경기지역에서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6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미 소유 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향후 20년 이후	마련 할 수 없을 것 같다	
전		체	2,714	17.2	0.7	3.8	5.6	9.4	14.5	27.3	14.9	6.6
성별	남	자	1,412	15.3	0.9	4.4	5.5	9.4	15.6	28.7	14.5	5.5
	여	자	1,302	19.3	0.5	3.1	5.6	9.3	13.3	25.8	15.3	7.8
연령	만 1 5 - 1 8 세		422	0.9	0.0	0.7	2.2	7.4	14.8	28.6	40.0	5.3
	만 1 9 - 2 9 세		1,150	4.2	0.7	3.2	5.0	10.2	17.2	36.3	16.2	6.9
	만 3 0 - 3 9 세		1,142	35.2	1.0	5.3	7.2	9.1	11.7	17.9	5.9	6.7
지역	서 울		510	14.0	0.4	3.8	4.4	8.9	11.1	27.9	21.4	8.0
	인 천 / 경 기		648	18.0	0.7	4.7	6.3	9.2	13.9	24.2	13.2	9.8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3.1	0.4	4.6	6.0	9.5	21.3	26.7	15.1	3.3
	광 주 / 전 라 / 제 주		363	17.8	0.3	2.2	5.4	9.6	13.3	34.6	13.2	3.6
	부 산 / 울 산 / 경 남		421	21.3	1.5	1.7	5.0	10.0	14.8	26.6	13.7	5.5
	대 구 / 경 북		362	20.4	1.4	4.5	6.4	9.7	14.8	30.5	9.6	2.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0.7	0.0	0.7	1.7	7.0	14.2	28.2	42.0	5.5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50	3.5	0.9	2.2	2.5	10.4	17.1	41.5	16.9	5.1
	고 졸 이 하		549	14.3	0.8	3.1	5.6	10.0	13.0	28.9	15.5	8.7
	대 졸 이 상		1,222	28.7	0.9	5.5	7.9	9.3	14.1	20.4	6.6	6.5
주거 형태	동 거		1,426	2.6	0.5	2.3	3.6	9.3	16.4	35.4	22.7	7.3
	비 동 거 / 독 립		1,288	32.5	1.0	5.3	7.7	9.4	12.5	18.9	6.8	5.9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67)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63.9%(그렇다+매우 그렇다)가 소유해야 한다고 나타났고, 17.1%(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가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67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714	2.3	14.8	19.0	47.7	16.2
	남 자	1,412	2.6	13.4	18.3	49.0	16.7
	여 자	1,302	2.0	16.4	19.8	46.2	15.6
연령	만 1 5 - 1 8 세	422	2.3	17.3	26.5	43.1	10.8
	만 1 9 - 2 9 세	1,150	2.1	14.7	21.2	46.0	15.9
	만 3 0 - 3 9 세	1,142	2.4	14.3	14.4	50.7	18.1
지역	서 울	510	2.9	16.5	18.7	47.7	14.2
	인 천 / 경 기	648	2.9	15.0	20.9	43.7	17.5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8	20.2	20.7	44.4	12.9
	광 주 / 전 라 / 제 주	363	2.3	7.8	20.3	53.0	16.5
	부 산 / 울 산 / 경 남	421	1.9	15.0	13.3	51.3	18.6
	대 구 / 경 북	362	0.3	10.6	18.2	54.2	16.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2.4	17.9	27.1	42.3	10.4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50	3.3	13.1	20.7	47.6	15.4
	고 졸 이 하	549	3.0	13.2	18.3	49.1	16.4
	대 졸 이 상	1,222	1.5	15.6	16.4	48.5	18.0
주거 형태	동 거	1,426	2.5	15.9	23.3	45.8	12.5
	비 동 거 / 독 립	1,288	2.0	13.8	14.5	49.6	20.1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68)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는 것에서 8.7%(그렇다+매우 그렇다)가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69.4%(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집 값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연령으로 보면, 만19-29세의 71.9%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함.
- 지역으로 보면, 서울지역에서 현재 집 값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집 값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II-68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714	29.1	40.3	22.0	8.0	0.7
성별	남 자	1,412	29.7	38.5	22.6	8.3	1.0
	여 자	1,302	28.4	42.2	21.3	7.7	0.4
연령	만 1 5 - 1 8 세	422	18.4	37.3	33.9	9.6	0.8
	만 1 9 - 2 9 세	1,150	30.3	41.6	21.1	6.8	0.3
	만 3 0 - 3 9 세	1,142	31.1	39.8	19.2	8.8	1.0
지역	서 울	510	45.3	35.6	14.0	4.9	0.2
	인 천 / 경 기	648	32.5	38.1	21.6	7.7	0.1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7.5	39.5	34.1	8.0	1.0
	광주/전라/제주	363	20.7	45.5	23.2	10.4	0.2
	부산/울산/경남	421	16.8	48.9	22.2	10.4	1.7
	대 구 / 경 북	362	27.6	39.4	21.3	9.5	2.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8.7	35.8	34.7	9.9	0.9
	대학생/대학원생	550	27.1	44.3	21.2	6.9	0.5
	고 졸 이 하	549	31.9	36.2	23.6	7.9	0.3
	대 졸 이 상	1,222	31.3	41.6	18.1	8.0	0.9
주거 형태	동 거	1,426	27.2	39.7	25.1	7.3	0.7
	비 동 거 / 독 립	1,288	31.1	40.9	18.6	8.8	0.7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69)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32.9%(그렇다+매우 그렇다)가 동의하였고, 그와 비슷하게 32.6%(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가 동의하지 않음.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자신이 원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함.
- 학력으로 나누어보면 대졸이상에서, 주거형태에서는 비동거/독립에서 자신이 원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69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714	7.0	25.6	34.5	25.1	7.8
	남 자	1,412	7.7	25.8	34.5	24.3	7.6
	여 자	1,302	6.2	25.4	34.4	25.9	8.1
연령	만 15 - 18 세	422	7.3	28.1	39.0	23.7	2.0
	만 19 - 29 세	1,150	7.3	24.1	35.4	25.4	7.9
	만 30 - 39 세	1,142	6.6	26.3	32.2	25.3	9.6
지역	서울	510	5.5	19.9	35.6	30.5	8.5
	인천 / 경기	648	6.3	22.3	34.6	28.4	8.5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7.1	26.0	38.8	20.7	7.4
	광주 / 전라 / 제주	363	8.1	35.7	29.7	20.4	6.1
	부산 / 울산 / 경남	421	10.8	30.9	34.6	17.6	6.1
	대구 / 경북	362	5.0	28.7	30.7	25.8	9.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7.5	28.2	38.6	23.8	1.9
	대학생 / 대학원생	550	9.0	26.5	34.9	23.1	6.6
	고 졸 이 하	549	6.2	24.6	38.5	22.9	7.7
	대 졸 이 상	1,222	6.3	25.0	31.4	27.3	10.0
주거 형태	동 거	1,426	6.6	23.9	37.9	25.6	5.9
	비 동 거 / 독 립	1,288	7.3	27.3	30.9	24.5	9.9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70) 공동주거 경험 및 향후 의향

- 공동주거 경험 및 향후 의향에서 92.9%가 공동거주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92.0%가 향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공동주거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향후 공동주거 의향이 낮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이 공동주거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대구/경북지역이 향후 거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70 공동주거 경험 및 향후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공동주거 경험		향후 공동주거 거주 의향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2,714	7.1	92.9	8.0	92.0
성별	남 자	1,412	8.2	91.8	8.5	91.5
	여 자	1,302	6.0	94.0	7.4	92.6
연령	만 15 - 18 세	422	2.4	97.6	17.9	82.1
	만 19 - 29 세	1,150	8.4	91.6	9.1	90.9
	만 30 - 39 세	1,142	7.3	92.7	3.9	96.1
지역	서 울	510	9.6	90.4	9.6	90.4
	인 천 / 경 기	648	8.4	91.6	8.7	91.3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6.9	93.1	6.2	93.8
	광 주 / 전 라 / 제 주	363	4.8	95.2	9.7	90.3
	부 산 / 울 산 / 경 남	421	3.7	96.3	7.1	92.9
	대 구 / 경 북	362	5.7	94.3	3.9	96.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2.0	98.0	18.6	81.4
	대 학생 / 대 학원 생	550	9.8	90.2	12.4	87.6
	고 졸 이 하	549	6.4	93.6	4.7	95.3
	대 졸 이 상	1,222	7.7	92.3	4.9	95.1
주거 형태	동 거	1,426	5.1	94.9	10.1	89.9
	비 동 거 / 독 립	1,288	9.2	90.8	5.7	94.3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71) 부모 동거 여부

- 부모 동거 여부에서 '현재 같이 살고 있다'가 51.0%로 나타났고,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가 44.6%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비동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비동거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동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비동거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71 부모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같이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
전	체	2,714	51.0	4.4	44.6
성별	남 자	1,412	54.5	5.1	40.4
	여 자	1,302	47.2	3.6	49.2
연령	만 15 - 18 세	422	98.7	1.3	0.0
	만 19 - 29 세	1,150	69.0	8.5	22.5
	만 30 - 39 세	1,142	18.6	1.1	80.2
지역	서울	510	50.7	4.6	44.7
	인천 / 경기	648	51.4	1.8	46.8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49.6	7.6	42.8
	광주 / 전라 / 제주	363	49.6	6.6	43.9
	부산 / 울산 / 경남	421	50.6	4.2	45.3
	대구 / 경북	362	55.1	5.6	39.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99.2	0.8	0.0
	대학생 / 대학원생	550	72.8	13.0	14.2
	고 졸 이 하	549	42.4	2.5	55.1
	대 졸 이 상	1,222	33.2	2.6	64.2
주거 형태	동 거	1,426	100.0	0.0	0.0
	비 동 거 / 독 립	1,288	0.0	8.9	91.1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73) 현재 미혼 1인 가구 여부

- 현재 미혼 1인 가구 여부에서 74.7%가 아니라고 응답하였고, 25.3%가 미혼 1인 가구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1인 가구 비율의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1인 가구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서울 및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73 현재 미혼 1인 가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285	25.3	74.7
	남 자	610	34.0	66.0
	여 자	675	17.2	82.8
연령	만 15 - 18 세	3	66.5	33.5
	만 19 - 29 세	356	52.1	47.9
	만 30 - 39 세	926	15.0	85.0
지역	서 울	243	29.7	70.3
	인 천 / 경 기	297	19.7	80.3
	대전/충청/세종/강원	208	29.5	70.5
	광 주 / 전 라 / 제 주	178	24.6	75.4
	부 산 / 울 산 / 경남	208	28.0	72.0
	대 구 / 경 북	151	25.0	75.0
학력	대 학생 / 대 학원생	150	62.3	37.7
	고 졸 이 하	312	25.8	74.2
	대 졸 이 상	823	18.8	81.2
주거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85	25.3	74.7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74) 현재 주거 형태

- 현재 주거 형태는 '원룸(다가구)'가 37.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아파트(27.7%)', '다세대/빌라(22.2%)', '오피스텔(6.5%)', '기타(3.5%)', '기숙사(2.8%)', '하숙(0.2%)'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다세대/빌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오피스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다세대/빌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4 현재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원룸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 스텔	기숙사	하숙	고시원	기타
전		체 330	37.1	27.7	22.2	6.5	2.8	0.2	0.0	3.5
성별	남	자 211	32.2	28.3	26.2	5.1	4.0	0.0	0.0	4.2
	여	자 119	46.3	26.5	14.6	9.1	0.7	0.5	0.0	2.3
연령	만 1 5 - 1 8 세	2	100.0	0.0	0.0	0.0	0.0	0.0	0.0	0.0
	만 1 9 - 2 9 세	193	41.8	25.6	17.2	8.7	5.0	0.3	0.0	1.4
	만 3 0 - 3 9 세	135	30.3	30.8	29.0	3.5	0.0	0.0	0.0	6.4
지역	서 울	72	26.0	19.4	35.2	15.3	4.0	0.0	0.0	0.0
	인 천 / 경 기	60	19.0	35.6	35.4	2.8	4.8	0.0	0.0	2.4
	대전/충청/세종/강원	58	28.4	51.6	8.9	0.0	4.3	0.0	0.0	6.8
	광 주 / 전 라 / 제 주	43	67.8	26.2	4.2	0.0	0.0	0.0	0.0	1.9
	부 산 / 울 산 / 경 남	57	54.3	17.4	8.6	12.5	0.0	0.0	0.0	7.1
	대 구 / 경 북	40	66.5	4.9	20.9	0.0	0.0	2.0	0.0	5.8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95	47.6	15.3	16.2	9.6	10.7	0.6	0.0	0.0
	고 졸 이 하	78	30.8	29.3	32.2	0.9	0.0	0.0	0.0	6.8
	대 졸 이 상	157	34.6	33.8	20.0	7.8	0.0	0.0	0.0	3.7
주거 형태	비 동 거 / 독 립	330	37.1	27.7	22.2	6.5	2.8	0.2	0.0	3.5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75)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에서 24.7%가 비만이다(약간 비만이다+매우 비만이다)라고 응답했고, 20.9%가 마른 편이다(약간 마른편이다+매우 마른편이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으로 보면, 만 30-39세에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5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
전	체	2,714	2.8	18.1	54.4	20.8	3.9
	남 자	1,412	3.0	16.5	55.3	21.4	3.8
	여 자	1,302	2.5	19.9	53.5	20.1	3.9
연령	만 15 - 18 세	422	2.7	20.8	55.0	19.6	1.8
	만 19 - 29 세	1,150	2.9	21.5	52.7	18.5	4.4
	만 30 - 39 세	1,142	2.6	13.9	56.0	23.5	3.9
지역	서울	510	3.3	20.6	48.5	23.8	3.9
	인천 / 경기	648	2.9	19.7	53.4	20.1	3.9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9	15.4	61.0	15.8	4.9
	광주 / 전라 / 제주	363	2.5	15.7	58.0	19.6	4.3
	부산 / 울산 / 경남	421	2.0	19.1	55.2	20.3	3.3
	대구 / 경북	362	2.4	12.5	56.3	26.1	2.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2.9	20.5	55.2	20.3	1.1
	대학생/대학원생	550	3.5	21.2	54.8	16.5	3.9
	고 졸 이 하	549	2.5	19.4	51.9	20.6	5.6
	대 졸 이 상	1,222	2.5	15.6	55.3	22.9	3.7
주거 형태	동 거	1,426	3.5	20.1	54.4	18.4	3.5
	비 동 거 / 독 립	1,288	2.0	16.0	54.5	23.3	4.2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73)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에서 37.8%가 그렇다(대부분 그렇다+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31.3%가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라고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고 응답함.
- 반면, 지역으로 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 즐거운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6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714	1.2	16.4	13.2	31.3	34.4	3.4
	남 자	1,412	0.9	16.4	13.9	30.7	34.0	4.1
	여 자	1,302	1.6	16.5	12.4	32.0	34.9	2.7
연령	만 15 - 18 세	422	0.2	9.0	11.2	28.3	43.9	7.4
	만 19 - 29 세	1,150	1.5	15.8	13.7	29.7	36.0	3.3
	만 30 - 39 세	1,142	1.2	19.2	13.2	33.9	30.0	2.5
지역	서울	510	0.6	15.4	13.9	35.0	32.3	2.7
	인천 / 경기	648	1.3	18.8	11.5	34.7	30.1	3.5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5	16.3	9.9	23.2	43.7	5.4
	광주/전라/제주	363	0.9	14.0	16.7	28.4	37.7	2.3
	부산/울산/경남	421	1.3	13.9	13.3	35.8	32.5	3.2
	대구 / 경북	362	2.0	17.4	18.0	19.4	39.5	3.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0.3	8.4	12.0	28.5	43.5	7.3
	대학생/대학원생	550	0.3	15.3	13.1	29.5	37.8	4.1
	고 졸 이 하	549	2.3	18.3	16.3	29.0	31.9	2.2
	대 졸 이 상	1,222	1.3	18.1	12.1	33.9	31.8	2.8
주거 형태	동 거	1,426	1.0	14.8	13.8	30.2	36.1	4.1
	비 동 거 / 독 립	1,288	1.4	18.1	12.5	32.5	32.7	2.8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77)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에서 40.8%가 그렇다(대부분 그렇다+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26.8%가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7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714	2.2	15.0	15.2	26.8	36.5	4.3
	남 자	1,412	1.5	15.2	16.0	25.7	36.6	5.0
	여 자	1,302	2.9	14.8	14.3	28.1	36.3	3.6
연령	만 15 - 18 세	422	1.0	9.7	13.6	25.2	44.0	6.5
	만 19 - 29 세	1,150	2.5	14.7	14.5	26.2	37.1	5.0
	만 30 - 39 세	1,142	2.3	16.9	16.4	28.0	33.5	2.9
지역	서울	510	1.8	14.5	11.6	28.2	38.9	5.1
	인천 / 경기	648	2.9	16.0	15.9	26.1	34.9	4.1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6	15.7	13.1	21.1	41.0	7.4
	광주/전라/제주	363	1.4	13.9	16.6	31.7	33.7	2.6
	부산/울산/경남	421	1.7	12.4	16.0	34.2	33.1	2.6
	대구 / 경북	362	3.1	17.2	20.8	17.5	38.2	3.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0	8.9	14.1	25.4	44.1	6.5
	대학생/대학원생	550	1.6	15.2	13.0	24.5	39.4	6.4
	고 졸 이 하	549	3.9	16.4	18.5	24.6	33.2	3.4
	대 졸 이 상	1,222	1.9	15.9	14.8	29.2	34.8	3.3
주거 형태	동 거	1,426	1.7	13.9	15.3	25.9	38.6	4.6
	비 동 거 / 독 립	1,288	2.7	16.2	15.1	27.8	34.3	4.0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78)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에서 36.9%가 그렇다(대부분 그렇다+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29.5%가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라고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활기참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에서 활기참을 느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반면, 지역으로 보면, 인천/경기와 대구/경북지역에서 활기참을 느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78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성별	체	2,714	2.3	15.8	15.5	29.5	31.5	5.4
	남 자	1,412	2.2	15.0	15.0	30.1	31.8	5.8
	여 자	1,302	2.5	16.6	16.1	28.7	31.1	4.9
연령	만 15 - 18 세	422	0.7	7.2	14.7	27.3	39.4	10.8
	만 19 - 29 세	1,150	2.3	14.6	16.3	28.7	32.3	5.7
	만 30 - 39 세	1,142	2.9	19.5	15.0	30.9	28.3	3.4
지역	서울	510	1.0	13.5	16.3	33.5	31.0	4.7
	인천 / 경기	648	3.1	15.1	13.1	32.9	30.6	5.2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3.0	17.1	10.2	22.5	38.3	9.0
	광주/전라/제주	363	1.7	17.7	20.3	25.4	31.6	3.2
	부산/울산/경남	421	2.0	16.8	20.2	29.3	26.6	5.1
	대구 / 경북	362	3.1	17.2	17.0	23.7	33.7	5.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0.7	6.5	15.0	27.7	39.0	11.2
	대학생/대학원생	550	1.7	14.4	14.4	28.4	34.2	6.9
	고 졸 이 하	549	3.4	18.4	14.4	27.9	31.4	4.5
	대 졸 이 상	1,222	2.6	17.6	16.7	31.1	28.4	3.7
주거 형태	동 거	1,426	1.9	13.6	16.2	28.1	33.7	6.6
	비 동 거 / 독 립	1,288	2.8	18.0	14.9	30.9	29.3	4.2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79)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에서 24.6%가 그렇다(대부분 그렇다+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26.2%가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기상 후 상쾌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와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때때로 그렇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9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714	9.8	21.9	17.5	26.2	21.9	2.7
	남 자	1,412	8.6	22.3	18.2	26.7	21.7	2.5
	여 자	1,302	11.2	21.5	16.7	25.6	22.1	2.9
연령	만 15 - 18 세	422	5.9	18.8	16.3	30.8	23.8	4.4
	만 19 - 29 세	1,150	10.2	20.7	17.1	25.2	23.4	3.4
	만 30 - 39 세	1,142	10.6	24.2	18.1	25.8	19.8	1.4
지역	서울	510	9.4	20.2	14.6	30.3	23.2	2.3
	인천 / 경기	648	11.1	19.0	18.1	26.9	22.3	2.6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0.3	26.6	11.1	21.3	25.3	5.4
	광주/전라/제주	363	8.5	26.9	23.5	24.2	14.3	2.6
	부산/울산/경남	421	6.7	21.3	23.3	29.1	17.8	1.8
	대구 / 경북	362	12.2	24.5	14.8	19.3	27.8	1.4
	중 · 고 등 학 생	393	5.5	18.1	17.1	31.5	23.3	4.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8.3	22.5	15.4	26.1	24.5	3.1
	고 졸 이 하	549	10.7	19.1	20.4	23.5	24.1	2.2
	대 졸 이 상	1,222	11.2	24.1	17.1	26.0	19.4	2.3
주거 형태	동 거	1,426	7.9	20.4	17.6	26.7	24.1	3.3
	비 동 거 / 독 립	1,288	11.8	23.5	17.4	25.6	19.6	2.1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80)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에서 28.1%가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26.3%가 ‘때때로 그렇다’라고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그렇다(대부분 그렇다+항상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지역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80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714	6.1	26.3	17.4	28.1	19.7	2.5
	자	1,412	6.1	25.7	16.9	29.0	19.5	2.9
성별	여	1,302	6.1	26.8	18.1	27.0	20.0	2.0
	자	1,302	6.1	26.8	18.1	27.0	20.0	2.0
연령	만 15 - 18 세	422	3.0	17.4	18.3	28.8	27.8	4.7
	만 19 - 29 세	1,150	6.7	24.7	16.8	29.2	19.6	3.0
	만 30 - 39 세	1,142	6.3	30.5	17.8	26.7	17.4	1.2
지역	서울	510	4.5	20.0	17.2	30.8	25.3	2.2
	인천 / 경기	648	7.6	23.9	16.9	32.5	16.4	2.6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5.2	23.5	16.1	26.6	24.9	3.7
	광주/전라/제주	363	6.2	34.8	22.2	19.6	15.3	1.9
	부산/울산/경남	421	3.9	31.7	19.9	27.8	15.0	1.9
	대구 / 경북	362	9.0	33.7	12.5	18.8	23.5	2.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3.0	16.5	17.7	30.1	28.0	4.8
	대학생/대학원생	550	5.0	25.7	16.0	29.3	20.6	3.4
	고 졸 이 하	549	7.1	26.7	17.4	29.5	17.6	1.8
	대 졸 이 상	1,222	6.8	28.8	18.0	26.3	18.2	1.8
주거 형태	동	1,426	5.3	23.8	17.3	29.3	21.2	3.1
	비 동 거 / 독 립	1,288	6.8	28.8	17.5	26.8	18.2	1.8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81) 규칙적인 운동 여부

-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서 36.9%가 운동을 한다고 응답했고, 63.1%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규칙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보다 동거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81 규칙적인 운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714	36.9	63.1
	남 자	1,412	44.8	55.2
	여 자	1,302	28.2	71.8
연령	만 15 - 18 세	422	36.6	63.4
	만 19 - 29 세	1,150	40.2	59.8
	만 30 - 39 세	1,142	33.7	66.3
지역	서 울	510	37.6	62.4
	인 천 / 경 기	648	33.6	66.4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38.5	61.5
	광주/전라/제주	363	33.7	66.3
	부산/울산/경남	421	45.1	54.9
	대 구 / 경 북	362	34.7	65.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36.0	64.0
	대학생/대학원생	550	47.8	52.2
	고 졸 이 하	549	31.9	68.1
	대 졸 이 상	1,222	35.0	65.0
주거 형태	동 거	1,426	39.6	60.4
	비 동 거 / 독 립	1,288	34.2	65.8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82) 규칙적인 운동 빈도

- 규칙적인 운동 빈도에서 30.1%가 ‘일주일에 3번’이라고 응답했고, 19.8%가 ‘일주일에 5번’이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남성(78.1%)이 여성(75.9%)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매일 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이 매일 운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에서는 고졸이하가, 주거형태별로 보면 부모와 동거를 하는 경우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2 규칙적인 운동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매일
전		체 1,007	7.2	15.5	30.1	9.3	19.8	4.3	13.8
성별	남	자 641	6.6	15.3	28.4	10.8	19.2	4.9	14.8
	여	자 366	8.2	15.9	33.1	6.6	20.8	3.2	12.2
연령	만 15 - 18 세	156	1.8	17.7	21.4	11.8	19.0	3.8	24.6
	만 19 - 29 세	465	8.1	14.4	29.2	8.3	21.0	5.1	14.0
	만 30 - 39 세	386	7.9	16.2	34.1	9.7	18.5	3.5	10.1
지역	서울	191	10.4	15.3	28.4	10.5	20.4	4.3	10.9
	인천 / 경기	219	7.4	18.9	28.5	8.6	18.7	3.8	14.1
	대전/충청/세종/강원	159	5.2	14.7	37.0	6.8	21.2	2.1	13.2
	광주/전라/제주	121	7.2	10.5	32.0	14.2	20.3	2.5	13.4
	부산/울산/경남	191	5.1	14.9	27.3	10.2	20.5	6.6	15.5
	대구 / 경북	126	6.2	13.1	32.3	5.9	17.8	6.7	18.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43	1.9	17.4	19.7	11.8	18.9	4.2	26.1
	대학생/대학원생	261	8.4	14.0	27.9	8.2	21.4	6.8	13.3
	고 졸 이 하	178	8.2	10.3	33.6	8.2	20.3	4.3	15.1
	대 졸 이 상	425	7.5	18.1	32.7	9.7	18.9	2.9	10.3
주거 형태	동 거	566	5.8	14.6	29.1	10.1	20.0	4.9	15.5
	비 동 거 / 독 립	441	8.8	16.6	31.4	8.4	19.5	3.5	11.8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만 응답

83)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 인생에서 외모도의 중요도에서 78.2%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했고, 5.3%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외모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외모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외모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표 II-83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 체			2,714	0.8	4.5	16.4	62.6	15.6
성별	남 자		1,412	1.2	5.8	19.0	61.6	12.5
	여 자		1,302	0.4	3.0	13.6	63.8	19.1
연령	만 1 5 - 1 8 세		422	1.7	7.7	16.7	56.2	17.7
	만 1 9 - 2 9 세		1,150	1.0	5.4	15.8	62.1	15.6
	만 3 0 - 3 9 세		1,142	0.4	2.5	17.0	65.1	15.0
지역	서 울		510	0.3	4.2	17.9	61.7	15.8
	인 천 / 경 기		648	1.3	4.6	17.0	59.9	17.2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0.2	5.5	14.7	69.2	10.4
	광주/전라/제주		363	1.3	4.4	19.4	61.1	13.8
	부산/울산/경남		421	0.6	4.9	14.7	65.2	14.6
	대 구 / 경 북		362	1.1	2.4	13.2	62.1	21.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8	7.9	16.0	55.9	18.4
	대학생/대학원생		550	0.7	4.7	15.0	62.1	17.4
	고 졸 이 하		549	1.0	5.5	19.3	58.7	15.5
	대 졸 이 상		1,222	0.6	3.0	15.8	66.5	14.2
주거 형태	동 거		1,426	0.9	5.6	15.8	61.5	16.2
	비 동 거 / 독 립		1,288	0.8	3.3	17.0	63.8	15.0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84) 성형수술 경험

- 성형수술 경험에서 11.8%가 있다고 응답했고, 88.2%가 성형수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성형수술 경험이 더 많았고,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에서 가장 높은 성형수술 경험이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성형수술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형태로 보면, 동거보다 비동거/독립에서 성형수술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84 성형수술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714	11.8	88.2
	남 자	1,412	2.2	97.8
	여 자	1,302	22.3	77.7
연령	만 15 - 18 세	422	3.7	96.3
	만 19 - 29 세	1,150	13.6	86.4
	만 30 - 39 세	1,142	12.4	87.6
지역	서 울	510	13.3	86.7
	인 천 / 경 기	648	12.6	87.4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7.6	92.4
	광주/전라/제주	363	10.4	89.6
	부산/울산/경남	421	14.2	85.8
	대 구 / 경 북	362	9.3	90.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3.7	96.3
	대학생/대학원생	550	10.0	90.0
	고 졸 이 하	549	12.5	87.5
	대 졸 이 상	1,222	14.3	85.7
주거 형태	동 거	1,426	9.6	90.4
	비 동 거 / 독 립	1,288	14.0	86.0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85) 성형수술 목적

- 성형수술 목적에서 ‘미용’에 88.7%가 응답했고, ‘의료’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은 11.3%가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남성은 ‘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에서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5 성형수술 목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의료 (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미용 (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전	체	316	11.3	88.7
	남 자	33	37.9	62.1
	여 자	283	8.3	91.7
연령	만 15 - 18 세	16	5.5	94.5
	만 19 - 29 세	152	13.6	86.4
	만 30 - 39 세	148	9.3	90.7
지역	서울	65	10.2	89.8
	인천 / 경기	81	10.0	90.0
	대전/충청/세종/강원	37	22.8	77.2
	광주/전라/제주	39	11.3	88.7
	부산/울산/경남	59	10.9	89.1
	대구 / 경북	35	7.7	92.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5	5.9	94.1
	대학생/대학원생	56	18.6	81.4
	고 졸 이 하	67	7.6	92.4
	대 졸 이 상	178	11.0	89.0
주거 형태	동 거	132	12.4	87.6
	비 동 거 / 독 립	184	10.5	89.5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86)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에서 48.3%가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외모의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에서 같은 이유로 높게 응답함.
- 지역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자기만족을 위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6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기타
전	체	279	48.3	31.3	10.2	4.5	4.4	1.3
	남 자	20	26.7	34.0	16.3	13.6	9.4	0.0
	여 자	259	49.9	31.1	9.7	3.8	4.1	1.4
연령	만 15 - 18 세	15	23.1	59.7	10.5	6.7	0.0	0.0
	만 19 - 29 세	131	49.5	24.7	13.7	7.1	4.3	0.7
	만 30 - 39 세	133	49.4	35.6	6.5	1.5	5.0	2.1
지역	서울	58	51.8	31.0	3.3	7.0	3.5	3.3
	인천 / 경기	73	47.9	29.1	13.5	4.5	4.1	0.9
	대전/충청/세종/강원	28	43.1	38.4	2.5	13.6	0.0	2.5
	광주/전라/제주	35	39.2	28.8	26.3	0.0	5.8	0.0
	부산/울산/경남	53	53.4	32.9	4.2	1.5	8.0	0.0
	대구 / 경북	32	43.3	34.8	19.1	0.0	2.9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4	24.7	56.9	11.2	7.2	0.0	0.0
	대학생/대학원생	46	58.4	26.4	6.5	2.6	4.0	2.1
	고 졸 이 하	62	52.1	24.2	10.1	4.2	9.4	0.0
	대 졸 이 상	157	45.7	33.8	11.1	4.9	2.7	1.7
주거 형태	동 거	115	47.8	28.2	14.6	6.7	1.9	0.8
	비 동 거 / 독 립	164	48.6	33.6	7.1	2.9	6.2	1.6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경우만 응답

87)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와 여가 중시

- 일 중시와 여가 중시에서 여가중시(⑤+⑥+⑦)가 43.5%로 나타났고, 일 중시(①+②+③)가 32.0%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40.4%)과 여성(46.9%) 모두 여가중시(⑤+⑥+⑦)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여가중시(⑤+⑥+⑦)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일 중시(①+②+③)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87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와 여가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일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전	체	2,714	3.4	13.4	15.2	24.6	19.5	19.5	4.5
	남 자	1,412	4.1	15.8	16.9	22.8	17.3	18.6	4.5
	여 자	1,302	2.6	10.6	13.2	26.7	21.9	20.5	4.5
연령	만 1 5 - 1 8 세	422	1.8	7.9	12.6	27.4	22.4	23.6	4.3
	만 1 9 - 2 9 세	1,150	3.9	12.8	15.3	24.5	21.0	18.5	3.9
	만 3 0 - 3 9 세	1,142	3.3	15.6	15.7	23.9	17.1	19.2	5.2
지역	서 울	510	3.7	14.3	14.3	25.4	19.4	19.7	3.3
	인 천 / 경 기	648	2.7	13.1	14.2	21.4	20.5	22.2	6.0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8	10.4	13.6	28.1	18.0	22.1	6.0
	광 주 / 전 라 / 제 주	363	6.7	9.2	16.9	30.0	16.5	16.9	3.7
	부 산 / 울 산 / 경 남	421	3.8	18.3	16.4	22.9	21.0	15.1	2.6
	대 구 / 경 북	362	2.7	13.2	18.7	25.7	19.7	15.9	4.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9	7.7	12.7	26.3	22.6	24.5	4.3
	대학생/대학원생	550	3.1	11.3	13.6	25.7	22.8	19.9	3.7
	고 졸 이 하	549	4.6	17.1	17.2	24.6	15.7	16.4	4.4
	대 졸 이 상	1,222	3.3	14.0	15.5	23.8	19.1	19.4	4.9
주거 형태	동 거	1,426	2.8	12.0	15.2	25.4	21.4	19.3	4.0
	비 동 거 / 독 립	1,288	3.9	14.8	15.1	23.9	17.6	19.7	5.0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88)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와 이상 중시

- 현실 중시와 이상 중시에서 66.3%가 현실중시(①+②+③)라고 응답했고, 15.1%가 이상 중시(⑤+⑥+⑦)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68.0%)이 여성(64.7%)보다 현실중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에서 현실중시(①+②+③)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대학생/대학원생에서 현실중시(①+②+③)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8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와 이상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현실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전	체	2,714	11.6	30.8	23.9	18.6	7.8	5.9	1.4
	자	1,412	12.8	30.6	24.6	16.9	7.6	6.0	1.5
성별	여	1,302	10.4	31.1	23.2	20.4	7.9	5.7	1.3
	자	1,302	10.4	31.1	23.2	20.4	7.9	5.7	1.3
연령	만 15 - 18 세	422	8.9	28.3	27.3	19.5	8.3	5.7	2.0
	만 19 - 29 세	1,150	13.0	28.7	24.5	17.5	8.8	6.4	1.1
	만 30 - 39 세	1,142	11.0	33.7	22.4	19.4	6.5	5.4	1.6
지역	서 울	510	9.6	31.4	25.3	16.2	8.6	7.0	2.0
	인 천 / 경 기	648	12.1	26.1	22.7	21.3	9.5	6.7	1.7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9.3	31.8	23.8	16.5	9.7	7.5	1.5
	광 주 / 전 라 / 제 주	363	20.8	29.6	22.6	16.1	5.0	4.8	1.1
	부 산 / 울 산 / 경 남	421	9.8	37.5	25.0	18.0	5.2	4.0	0.4
	대 구 / 경 북	362	10.7	34.9	25.2	21.6	4.4	2.4	0.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9.0	27.3	27.7	19.8	8.6	5.8	1.8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50	12.2	29.5	26.6	14.9	10.2	5.8	0.7
	고 졸 이 하	549	13.2	30.5	23.5	20.0	6.9	4.5	1.4
	대 졸 이 상	1,222	11.4	32.4	22.0	19.2	6.9	6.5	1.6
주거 형태	동 거	1,426	10.3	28.7	26.1	19.9	7.9	5.8	1.3
	비 동 거 / 독 립	1,288	13.0	33.0	21.7	17.3	7.6	6.0	1.5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89)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와 과정 중시

- 결과 중시와 과정 중시에서 결과중시(①+②+③)가 51.7%로 나타났고, 과정중시(⑤+⑥+⑦)가 23.6%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49.2%)이 결과중시(①+②+③)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면, 만 19-29세(53.3%)에서 결과중시(①+②+③)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의 학력(52.5%)에서 결과중시(①+②+③)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89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와 과정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결과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전 체		2,714	8.7	22.9	20.1	24.7	12.0	9.0	2.6
성별	남 자	1,412	9.9	23.5	20.6	22.8	11.8	8.4	3.1
	여 자	1,302	7.3	22.3	19.6	26.8	12.2	9.8	2.1
연령	만 1 5 - 1 8 세	422	5.8	20.5	21.5	24.6	12.2	11.6	3.8
	만 1 9 - 2 9 세	1,150	10.4	22.1	20.8	24.4	11.3	8.7	2.4
	만 3 0 - 3 9 세	1,142	7.8	24.5	19.0	25.1	12.5	8.7	2.4
지역	서 울	510	5.3	19.8	23.7	27.3	12.6	7.7	3.6
	인 천 / 경 기	648	10.3	21.3	19.6	23.9	12.7	9.5	2.7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8.8	19.9	13.4	25.7	14.8	15.3	2.0
	광주/전라/제주	363	11.0	30.7	16.6	21.7	9.0	7.7	3.2
	부산/울산/경남	421	6.2	28.3	23.8	21.0	12.0	7.5	1.1
	대 구 / 경 북	362	11.5	22.6	21.7	29.6	7.0	5.3	2.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5.9	19.9	22.1	24.4	12.5	11.8	3.3
	대학생/대학원생	550	9.4	22.9	21.8	23.9	12.5	7.3	2.3
	고 졸 이 하	549	10.7	20.2	21.6	25.2	11.4	8.2	2.7
	대 졸 이 상	1,222	8.2	25.0	18.2	24.9	11.8	9.4	2.5
주거 형태	동 거	1,426	8.9	21.1	22.1	24.2	11.9	8.8	2.8
	비 동 거 / 독 립	1,288	8.4	24.8	18.0	25.2	12.0	9.3	2.3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90)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와 집단 중시

- 개인 중시와 집단 중시에서 개인 중시(①+②+③)가 38.3%로 나타났고, 집단중시(⑤+⑥+⑦)가 25.2%로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30-39세(39.4%)에서 개인중시(①+②+③)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39.9%)에서 개인중시(①+②+③)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90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와 집단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개인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전	체	2,714	4.0	14.0	20.3	36.5	13.3	9.5	2.4
	남	1,412	4.1	13.4	19.5	36.5	12.1	11.7	2.7
	여	1,302	3.8	14.7	21.1	36.6	14.7	7.0	2.2
연령	만 15 - 18 세	422	3.2	10.2	20.4	36.6	12.2	11.6	5.8
	만 19 - 29 세	1,150	4.5	13.7	20.2	37.4	12.6	9.5	2.1
	만 30 - 39 세	1,142	3.6	15.5	20.3	35.7	14.3	8.8	1.8
지역	서울	510	3.1	13.9	23.3	36.4	13.1	7.4	2.7
	인천 / 경기	648	5.6	12.5	20.5	34.4	14.8	9.4	2.7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6	14.1	15.5	41.9	14.3	9.7	1.9
	광주 / 전라 / 제주	363	4.4	18.0	18.9	34.4	12.3	9.2	2.9
	부산 / 울산 / 경남	421	1.8	13.3	21.2	36.0	13.1	13.2	1.5
	대구 / 경북	362	5.3	15.7	19.7	39.4	8.7	8.3	2.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3.2	9.8	21.0	37.0	11.8	11.2	6.0
	대학생 / 대학원생	550	4.7	12.6	19.4	37.5	12.1	12.1	1.6
	고 졸 이 하	549	2.9	14.4	21.0	35.9	14.5	8.7	2.5
	대 졸 이 상	1,222	4.3	15.5	20.1	36.3	13.6	8.2	1.8
주거 형태	동	1,426	3.9	12.8	20.4	37.5	12.9	9.8	2.7
	비 동 거 / 독 립	1,288	4.0	15.3	20.1	35.6	13.7	9.1	2.1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9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에서 27.8%로 '재산·경제력'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26.4%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재산·경제력'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응답했고, 여성은 '화목한 가정'을 중요한 요건으로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현재 만 15-18세의 응답자에서 '친구·대인관계'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에서 '자아성취'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재산· 경제력	화목한 가정	건강	자아 성취	감사· 긍정적 태도	꿈· 목표 의식	직업· 직장	친구· 대인 관계	종교 생활	연인 (이성 관계 등)	기타
전		체	2,714	27.8	26.4	14.2	10.1	6.4	4.7	4.5	4.3	0.7	0.0
성별	남	자	1,412	30.5	24.0	13.1	10.0	5.2	5.4	4.8	5.3	0.6	1.0
	여	자	1,302	24.7	29.0	15.5	10.1	7.8	4.0	4.3	3.2	0.9	0.4
연령	만 15 - 18 세		422	24.9	22.5	12.0	8.3	3.7	8.8	5.0	11.7	1.3	1.8
	만 19 - 29 세		1,150	28.8	20.4	13.5	11.8	6.2	5.6	6.8	5.1	1.0	0.8
	만 30 - 39 세		1,142	27.7	33.5	15.7	8.9	7.5	2.6	2.1	1.4	0.3	0.3
지역	서	울	510	31.6	22.5	13.6	13.4	4.8	4.9	3.5	4.5	0.6	0.6
	인 천 / 경 기		648	21.7	25.6	10.4	14.6	8.8	6.0	5.9	4.8	1.2	0.9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5.9	31.5	14.2	5.9	5.9	6.6	4.1	4.6	0.7	0.7
	광주/전라/제주		363	30.0	28.1	14.5	5.5	7.3	3.0	4.8	5.2	0.6	1.1
	부산/울산/경남		421	29.4	27.5	20.2	5.7	5.6	2.9	4.0	3.5	0.3	0.5
	대 구 / 경 북		362	37.4	26.3	18.8	5.5	3.0	2.2	3.4	2.6	0.2	0.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23.8	23.3	11.5	8.3	3.7	8.9	5.3	12.1	1.4	1.6
	대학생/대학원생		550	27.7	19.8	12.5	12.2	5.9	7.4	6.0	7.0	0.9	0.5
	고 졸 이 하		549	31.9	27.2	13.5	11.5	4.5	2.1	4.9	2.5	0.9	1.0
	대 졸 이 상		1,222	26.9	29.6	16.0	8.9	8.3	3.7	3.5	2.1	0.4	0.4
주거 형태	동	거	1,426	28.3	19.5	13.7	10.9	5.8	6.4	6.4	7.0	0.9	0.9
	비 동 거 / 독 립		1,288	27.2	33.6	14.8	9.2	7.1	3.0	2.6	1.6	0.5	0.5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92)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에서 40.8%가 ‘그렇다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고, 20.7%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에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동거에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92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714	3.2	17.5	38.6	35.4	5.4
	남 자	1,412	4.1	19.3	37.8	33.0	5.8
	여 자	1,302	2.1	15.4	39.4	38.1	5.0
연령	만 1 5 - 1 8 세	422	1.8	14.6	37.4	36.2	10.1
	만 1 9 - 2 9 세	1,150	4.1	22.0	36.8	31.9	5.2
	만 3 0 - 3 9 세	1,142	2.7	13.7	40.7	38.7	4.2
지역	서 울	510	4.0	15.5	41.6	34.4	4.5
	인 천 / 경 기	648	3.4	17.8	40.4	32.5	5.9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3	16.0	32.8	43.8	5.0
	광 주 / 전 라 / 제 주	363	2.9	19.0	33.7	39.7	4.7
	부 산 / 울 산 / 경 남	421	2.0	15.5	37.2	38.1	7.2
	대 구 / 경 북	362	4.1	23.8	41.8	26.1	4.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9	13.8	38.0	36.0	10.3
	대 학생 / 대 학원 생	550	3.7	23.8	34.2	32.0	6.4
	고 졸 이 하	549	4.9	20.2	40.9	29.9	4.0
	대 졸 이 상	1,222	2.5	14.4	39.4	39.3	4.4
주거 형태	동 거	1,426	4.1	20.1	38.7	31.7	5.3
	비 동 거 / 독 립	1,288	2.2	14.7	38.4	39.2	5.5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93)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유무에서 96.1%가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 5.0명의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이 기댈 수 있는 친구의 비율은 높았지만, 남성이 평균 친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에서 평균 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이 기댈 수 있는 친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주/전라/제주지역이 평균 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93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명)
전	체	2,714	3.9	96.1	5.0
성별	남	1,412	4.7	95.3	5.2
	여	1,302	3.0	97.0	4.7
연령	만 15 - 18 세	422	4.9	95.1	6.4
	만 19 - 29 세	1,150	2.7	97.3	5.1
	만 30 - 39 세	1,142	4.8	95.2	4.3
지역	서울	510	2.6	97.4	5.3
	인천 / 경기	648	4.4	95.6	4.6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6.1	93.9	5.1
	광주 / 전라 / 제주	363	4.3	95.7	5.5
	부산 / 울산 / 경남	421	2.7	97.3	4.9
	대구 / 경북	362	3.2	96.8	4.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5.2	94.8	6.4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550	1.4	98.6	5.3
	고 졸 이 하	549	6.8	93.2	4.4
	대 졸 이 상	1,222	3.2	96.8	4.7
주거 형태	동 거	1,426	3.4	96.6	5.4
	비 동 거 / 독 립	1,288	4.4	95.6	4.6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94)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에서 57.6%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58.1%)이 남성(57.3%)보다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으로 보면, 만 30-39세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비율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94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714	1.1	12.1	29.1	49.9	7.7
	남	1,412	1.0	12.2	29.6	49.8	7.5
	여	1,302	1.4	12.1	28.5	50.1	8.0
연령	만 15 - 18 세	422	0.8	10.0	33.2	48.9	7.0
	만 19 - 29 세	1,150	1.7	13.6	29.0	48.2	7.5
	만 30 - 39 세	1,142	0.7	11.2	27.9	51.9	8.2
지역	서울	510	1.8	13.8	28.5	49.3	6.7
	인천 / 경기	648	1.3	11.2	30.0	47.8	9.6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0.5	11.5	26.7	54.4	6.9
	광주 / 전라 / 제주	363	0.6	12.5	28.2	47.6	11.1
	부산 / 울산 / 경남	421	0.9	10.5	29.0	55.2	4.5
	대구 / 경북	362	1.2	14.6	31.6	46.0	6.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0.8	9.9	33.3	49.2	6.8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50	0.9	12.4	30.3	49.4	7.1
	고 졸 이 하	549	1.9	14.1	29.6	48.8	5.6
	대 졸 이 상	1,222	1.0	11.7	27.2	50.9	9.3
주거 형태	동 거	1,426	1.2	12.8	30.5	48.6	6.8
	비 동 거 / 독 립	1,288	1.1	11.4	27.6	51.3	8.7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95)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기성세대가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에서 36.1%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22.5%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5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714	3.8	32.3	41.5	20.8	1.7
	남 자	1,412	4.3	28.3	43.9	21.8	1.8
	여 자	1,302	3.2	36.8	38.8	19.6	1.5
연령	만 1 5 - 1 8 세	422	3.2	28.6	47.6	19.7	0.9
	만 1 9 - 2 9 세	1,150	4.1	31.2	40.3	22.3	2.1
	만 3 0 - 3 9 세	1,142	3.6	34.5	40.8	19.6	1.5
지역	서 울	510	4.1	31.6	42.5	20.5	1.4
	인 천 / 경 기	648	4.7	33.7	42.6	17.6	1.4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3	21.7	41.5	30.4	4.1
	광 주 / 전 라 / 제 주	363	4.5	38.9	35.5	19.6	1.4
	부 산 / 울 산 / 경 남	421	3.5	35.6	39.7	20.5	0.7
	대 구 / 경 북	362	1.7	31.9	44.9	19.8	1.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2.9	28.0	48.4	19.8	1.0
	대 학생 / 대 학원 생	550	5.0	30.1	41.6	21.8	1.5
	고 졸 이 하	549	4.6	29.3	43.7	20.8	1.7
	대 졸 이 상	1,222	3.1	35.8	38.6	20.6	1.9
주거 형태	동 거	1,426	4.6	31.2	41.6	21.4	1.2
	비 동 거 / 독 립	1,288	2.9	33.5	41.3	20.1	2.1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96)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기성세대가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에서 35.3%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21.5%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이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동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표 II-96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714	3.1	32.2	43.3	18.7	2.8
	남 자	1,412	2.7	31.5	43.9	19.1	2.9
	여 자	1,302	3.5	33.0	42.7	18.2	2.6
연령	만 1 5 - 1 8 세	422	4.1	33.0	45.3	16.1	1.5
	만 1 9 - 2 9 세	1,150	3.5	31.4	41.2	20.8	3.1
	만 3 0 - 3 9 세	1,142	2.3	32.8	44.8	17.3	2.8
지역	서 울	510	3.1	36.3	41.0	17.6	1.9
	인 천 / 경 기	648	3.7	30.3	43.7	19.1	3.3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3.1	21.3	46.7	24.7	4.2
	광 주 / 전 라 / 제 주	363	5.5	37.7	40.0	15.4	1.4
	부 산 / 울 산 / 경 남	421	1.6	37.5	44.5	15.6	0.7
	대 구 / 경 북	362	0.6	30.9	43.7	19.4	5.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4.4	31.9	46.4	15.7	1.6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50	3.5	35.4	39.8	19.0	2.4
	고 졸 이 하	549	2.9	29.2	45.9	19.9	2.1
	대 졸 이 상	1,222	2.7	32.4	42.7	18.7	3.5
주거 형태	동 거	1,426	3.4	32.5	43.3	18.3	2.4
	비 동 거 / 독 립	1,288	2.7	31.9	43.2	19.0	3.1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97)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노인들이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에서 44.7%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고, 18.4%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에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 및 대졸이상에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97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714	2.7	15.7	36.9	40.3	4.4
	남 자	1,412	2.5	15.1	35.8	42.2	4.4
	여 자	1,302	2.9	16.4	38.0	38.2	4.5
연령	만 1 5 - 1 8 세	422	2.0	10.1	38.8	44.1	5.1
	만 1 9 - 2 9 세	1,150	2.7	17.0	37.0	39.2	4.0
	만 3 0 - 3 9 세	1,142	2.9	16.1	36.1	40.2	4.7
지역	서 울	510	2.8	20.2	36.3	36.8	3.8
	인 천 / 경 기	648	2.9	12.1	35.4	43.9	5.8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9	15.0	38.1	40.1	4.8
	광 주 / 전 라 / 제 주	363	2.2	18.6	32.4	39.7	7.0
	부 산 / 울 산 / 경 남	421	2.8	17.2	42.1	35.8	2.0
	대 구 / 경 북	362	3.1	13.8	37.7	43.7	1.8
	중 · 고 등 학 생	393	1.9	10.2	38.2	44.7	5.1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50	2.2	17.7	36.0	41.0	3.2
	고 졸 이 하	549	2.3	15.6	36.7	39.9	5.5
	대 졸 이 상	1,222	3.3	16.4	36.9	39.0	4.3
주거 형태	동 거	1,426	2.4	15.1	37.6	40.9	4.0
	비 동 거 / 독 립	1,288	3.1	16.4	36.1	39.6	4.9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98)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노인이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에서 37.3%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1.3%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표 II-98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714	1.4	19.9	41.3	33.7	3.6
	남 자	1,412	1.6	19.0	40.7	34.0	4.6
	여 자	1,302	1.2	21.0	41.9	33.3	2.6
연령	만 15 - 18 세	422	1.8	21.5	42.2	31.9	2.5
	만 19 - 29 세	1,150	1.1	18.1	43.3	33.7	3.8
	만 30 - 39 세	1,142	1.7	21.4	38.9	34.2	3.8
지역	서 울	510	1.4	21.4	42.4	30.3	4.6
	인 천 / 경 기	648	2.4	19.2	39.9	34.4	4.1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0.2	14.7	48.3	33.6	3.1
	광주/전라/제주	363	1.4	24.9	36.6	33.1	4.1
	부산/울산/경남	421	0.8	22.2	38.8	36.8	1.3
	대 구 / 경 북	362	1.1	18.0	42.4	34.3	4.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4	21.8	43.2	30.9	2.7
	대학생/대학원생	550	1.2	20.1	43.0	32.7	3.1
	고 졸 이 하	549	2.1	21.6	40.8	31.8	3.7
	대 졸 이 상	1,222	1.2	18.6	40.3	35.7	4.1
주거 형태	동 거	1,426	1.3	19.9	42.6	33.1	3.1
	비 동 거 / 독 립	1,288	1.6	20.0	39.9	34.3	4.2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99)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노인이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에서 34.4%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고, 21.4%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32.4%)보다는 여성(36.5%)이, 연령별로는 만 30-39세가 36.0%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99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714	2.4	19.0	44.2	30.8	3.6
	남 자	1,412	3.3	19.9	44.4	29.3	3.1
	여 자	1,302	1.5	18.0	43.9	32.4	4.1
연령	만 15 - 18 세	422	0.9	17.4	47.8	30.3	3.5
	만 19 - 29 세	1,150	3.1	20.3	43.6	30.0	3.1
	만 30 - 39 세	1,142	2.3	18.2	43.6	31.8	4.2
지역	서울	510	3.7	18.6	40.3	33.7	3.9
	인천 / 경기	648	3.1	20.6	47.5	24.6	4.2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3	18.4	54.2	23.4	2.7
	광주 / 전라 / 제주	363	1.9	16.8	41.5	35.9	3.9
	부산 / 울산 / 경남	421	1.2	20.8	37.8	38.2	2.1
	대구 / 경북	362	1.4	15.0	40.4	38.8	4.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0.9	16.1	49.3	30.5	3.2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50	3.7	22.3	40.8	29.1	4.0
	고 졸 이 하	549	3.0	16.4	45.6	31.7	3.3
	대 졸 이 상	1,222	2.0	19.6	43.5	31.2	3.7
주거 형태	동 거	1,426	1.9	18.8	44.3	31.3	3.6
	비 동 거 / 독 립	1,288	2.9	19.2	44.0	30.2	3.6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00)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에서 32.8%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고, 20.1%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대전/충청/세종/강원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00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714	2.8	17.3	47.1	27.2	5.6
	자	1,412	3.3	16.4	48.1	25.5	6.6
성별	여	1,302	2.3	18.2	45.9	29.0	4.6
	자	1,302	2.3	18.2	45.9	29.0	4.6
연령	만 15 - 18세	422	2.8	16.8	52.6	23.4	4.4
	만 19 - 29세	1,150	3.8	17.7	45.9	26.9	5.6
	만 30 - 39세	1,142	1.8	17.0	46.6	28.6	6.0
지역	서울	510	1.0	16.8	49.9	26.7	5.6
	인천 / 경기	648	3.0	15.5	48.1	27.4	5.9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0	9.0	52.2	33.4	3.4
	광주 / 전라 / 제주	363	10.7	24.4	37.7	23.4	3.8
	부산 / 울산 / 경남	421	1.0	22.0	47.0	21.2	8.7
	대구 / 경북	362	1.5	20.7	40.5	31.9	5.3
	중 · 고 등 학 생	393	2.8	16.7	53.0	23.6	3.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4.1	19.8	42.1	27.9	6.2
	고 졸 이 하	549	3.3	13.2	53.0	26.6	4.0
	대 졸 이 상	1,222	2.1	18.3	44.8	28.1	6.7
	대 졸 이 상	1,222	2.1	18.3	44.8	28.1	6.7
주거 형태	동	1,426	3.1	17.0	47.9	26.9	5.1
	비 동 거 / 독 립	1,288	2.6	17.6	46.2	27.4	6.2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01)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타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에서 40.4%가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로 응답했고, 31.6%가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한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가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101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714	12.9	27.5	28.0	28.1	3.5
	남	1,412	15.1	28.5	27.6	25.6	3.2
	여	1,302	10.5	26.4	28.4	30.9	3.8
연령	만 15 - 18 세	422	10.4	25.3	28.7	28.8	6.9
	만 19 - 29 세	1,150	13.5	24.8	27.2	30.9	3.7
	만 30 - 39 세	1,142	13.1	30.9	28.6	25.1	2.3
지역	서울	510	15.7	26.8	27.0	27.5	3.1
	인천 / 경기	648	15.4	26.2	30.2	25.0	3.1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1.0	29.9	26.4	19.6	3.1
	광주 / 전라 / 제주	363	3.9	19.8	26.5	46.2	3.7
	부산 / 울산 / 경남	421	7.0	33.1	26.2	28.2	5.4
	대구 / 경북	362	6.4	29.6	29.3	32.0	2.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0.4	24.5	29.2	29.0	6.9
	대 학생 / 대 학원 생	550	10.6	26.7	27.3	32.4	3.0
	고 졸 이 하	549	17.8	26.0	29.6	24.0	2.6
	대 졸 이 상	1,222	12.3	29.3	27.2	28.0	3.2
주거 형태	동	1,426	12.5	24.4	28.4	30.9	3.8
	비 동 거 / 독 립	1,288	13.3	30.7	27.6	25.2	3.2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02)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 타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에서 30.0%가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고 응답했고, 41.0%가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가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에서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2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714	13.0	28.0	29.0	25.9	4.1
성별	남	1,412	15.5	31.0	28.6	22.3	2.5
	여	1,302	10.2	24.7	29.5	29.8	5.8
연령	만 15 - 18 세	422	9.9	25.2	25.2	29.7	10.1
	만 19 - 29 세	1,150	13.6	26.8	29.0	26.8	3.8
	만 30 - 39 세	1,142	13.4	30.0	30.2	23.8	2.6
지역	서울	510	18.2	28.7	27.0	21.7	4.5
	인천 / 경기	648	16.3	29.2	30.2	19.4	4.9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6.6	27.4	31.9	20.6	3.4
	광주 / 전라 / 제주	363	2.8	18.8	28.1	45.7	4.6
	부산 / 울산 / 경남	421	7.4	32.3	24.7	32.2	3.4
	대구 / 경북	362	5.7	26.9	33.1	32.3	1.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0.5	23.7	25.1	30.1	10.6
	대 학생 / 대 학원 생	550	9.4	29.3	27.6	30.2	3.6
	고 졸 이 하	549	19.1	28.8	30.7	18.3	3.3
	대 졸 이 상	1,222	12.4	28.3	29.9	26.5	3.0
주거 형태	동	1,426	12.5	26.9	28.6	27.3	4.7
	비 동 거 / 독 립	1,288	13.6	29.1	29.4	24.4	3.5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03)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 타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에서 33.1%가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고 응답했고, 38.5%가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3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714	10.4	22.7	28.4	32.9	5.6
	자	1,412	11.9	24.7	29.4	29.5	4.4
성별	여	1,302	8.6	20.5	27.3	36.7	6.9
연령	만 15 - 18세	422	9.6	20.0	27.0	35.9	7.5
	만 19 - 29세	1,150	11.3	22.8	26.6	34.1	5.3
	만 30 - 39세	1,142	9.6	23.4	30.6	30.9	5.4
지역	서울	510	13.8	28.0	26.1	27.3	4.7
	인천 / 경기	648	11.0	21.8	29.2	32.4	5.7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17.9	23.6	24.9	30.5	3.1
	광주 / 전라 / 제주	363	2.1	14.9	29.8	46.1	7.0
	부산 / 울산 / 경남	421	7.0	24.7	26.9	33.1	8.3
	대구 / 경북	362	4.0	18.4	36.7	35.7	5.2
	중 · 고 등 학 생	393	9.8	19.7	26.8	36.0	7.8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550	8.3	23.1	24.1	37.2	7.3
	고 졸 이 하	549	15.9	24.7	29.9	25.8	3.7
	대 졸 이 상	1,222	8.8	22.4	29.9	33.7	5.3
주거 형태	동 거	1,426	10.5	23.9	25.5	34.4	5.7
	비 동 거 / 독 립	1,288	10.2	21.4	31.4	31.3	5.6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04)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타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에서 51.1%가 ‘불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고 응답했고, 19.6%가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고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 보다 동거에서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104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714	17.0	34.1	29.4	17.5	2.1
	남	1,412	18.2	33.5	29.7	17.1	1.4
	여	1,302	15.6	34.8	29.0	17.8	2.8
연령	만 15 - 18 세	422	13.7	35.2	27.5	19.1	4.5
	만 19 - 29 세	1,150	19.6	31.7	29.0	18.2	1.6
	만 30 - 39 세	1,142	15.3	36.3	30.3	16.2	1.8
지역	서울	510	18.2	28.3	30.1	20.5	2.9
	인천 / 경기	648	20.0	31.2	29.2	17.3	2.3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0.6	34.5	28.7	14.6	1.6
	광주 / 전라 / 제주	363	5.9	30.4	34.9	26.9	1.9
	부산 / 울산 / 경남	421	12.7	47.4	23.7	14.3	1.9
	대구 / 경북	362	17.7	39.3	32.1	10.0	0.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3.6	34.8	27.5	19.5	4.6
	대학생/대학원생	550	16.4	30.9	29.2	21.3	2.2
	고 졸 이 하	549	22.1	34.9	29.9	11.4	1.7
	대 졸 이 상	1,222	15.7	34.9	29.7	18.2	1.5
주거 형태	동 거	1,426	16.4	33.1	29.6	18.5	2.5
	비 동 거 / 독 립	1,288	17.6	35.2	29.2	16.4	1.6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05)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_5) 항의 전화하기

- 타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항의 전화하기에서 56.7%가 '비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고 응답했고, 17.6%가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고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만 30-39세에서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이 '참여(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비참여(아마도 참여하지 않음+절대로 참여하지 않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5 반대 의견 제시 방법 참여 의향_5) 항의 전화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2,714	22.2	34.5	25.7	14.8	2.8
	자	1,412	23.5	33.9	25.4	15.1	2.1
성별	여	1,302	20.7	35.2	26.1	14.4	3.6
	자	1,302	20.7	35.2	26.1	14.4	3.6
연령	만 15 - 18 세	422	19.7	35.5	27.3	14.3	3.2
	만 19 - 29 세	1,150	24.8	34.4	23.9	13.7	3.3
	만 30 - 39 세	1,142	20.2	34.3	27.1	16.1	2.2
지역	서울	510	26.7	29.6	24.8	16.8	2.1
	인천 / 경기	648	25.1	29.2	27.0	14.7	4.1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1.8	39.2	26.5	10.7	1.7
	광주 / 전라 / 제주	363	13.0	35.6	29.7	20.2	1.5
	부산 / 울산 / 경남	421	16.3	48.8	21.1	11.0	2.8
	대구 / 경북	362	22.6	32.3	25.4	16.8	2.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9.4	35.3	27.6	14.4	3.2
	대학생/대학원생	550	22.9	36.2	22.8	14.5	3.6
	고 졸 이 하	549	24.0	32.0	28.4	12.5	3.2
	대 졸 이 상	1,222	21.8	34.7	25.3	16.1	2.1
주거 형태	동 거	1,426	22.2	34.6	25.8	14.6	2.8
	비 동 거 / 독 립	1,288	22.2	34.4	25.6	15.0	2.8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06)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에서 38.4%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19.5%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6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2,714	2.6	16.9	42.0	33.8	4.6
	남 자	1,412	2.9	16.0	39.4	35.5	6.2
	여 자	1,302	2.2	17.9	44.9	32.0	2.9
연령	만 15 - 18 세	422	5.7	28.8	41.8	22.4	1.3
	만 19 - 29 세	1,150	2.6	16.4	42.5	34.2	4.2
	만 30 - 39 세	1,142	1.6	13.8	41.6	36.9	6.1
지역	서울	510	2.0	12.9	41.7	37.7	5.7
	인천 / 경기	648	3.5	18.4	39.9	33.6	4.6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2	18.9	51.1	23.8	3.9
	광주 / 전라 / 제주	363	3.2	18.0	43.3	34.0	1.4
	부산 / 울산 / 경남	421	1.4	17.2	36.5	39.1	5.9
	대구 / 경북	362	2.3	16.4	44.3	32.0	5.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5.9	29.5	41.1	22.1	1.3
	대 학생 / 대 학 원 생	550	1.9	18.0	41.3	34.0	4.7
	고 졸 이 하	549	4.6	18.9	46.8	27.0	2.7
	대 졸 이 상	1,222	1.0	12.2	40.4	40.0	6.4
주거 형태	동 거	1,426	3.0	19.6	42.5	31.4	3.5
	비 동 거 / 독 립	1,288	2.1	14.2	41.6	36.3	5.8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07)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 할 수 있다’에서 45.2%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13.9%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상과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07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714	1.7	12.2	40.9	40.0	5.2
	남 자	1,412	1.8	11.9	39.1	41.3	5.9
	여 자	1,302	1.5	12.6	42.9	38.6	4.4
연령	만 15 - 18 세	422	1.4	17.8	47.4	30.9	2.4
	만 19 - 29 세	1,150	1.9	11.8	38.9	42.7	4.7
	만 30 - 39 세	1,142	1.6	11.0	41.0	40.1	6.4
지역	서울	510	1.3	7.6	38.0	45.5	7.6
	인천 / 경기	648	2.9	14.0	39.9	37.0	6.2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2.0	15.7	44.7	33.6	4.1
	광주 / 전라 / 제주	363	0.8	9.7	46.3	41.6	1.6
	부산 / 울산 / 경남	421	0.4	14.2	34.7	46.7	4.0
	대구 / 경북	362	1.2	11.1	48.9	35.3	3.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1.5	18.3	47.8	29.9	2.5
	대학생/대학원생	550	1.1	11.8	37.5	43.3	6.3
	고 졸 이 하	549	3.5	14.0	48.1	31.1	3.2
	대 졸 이 상	1,222	1.1	10.0	37.1	45.5	6.3
주거 형태	동 거	1,426	1.5	13.9	41.7	38.8	4.0
	비 동 거 / 독 립	1,288	1.9	10.4	40.1	41.3	6.3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08)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에서 33.0%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23.6%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8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714	3.8	19.8	43.4	29.7	3.3
성별	남	자	1,412	4.4	20.3	41.9	29.7	3.6
	여	자	1,302	3.2	19.3	45.1	29.6	2.9
연령	만 15 - 18 세	422	4.5	21.3	45.2	25.9	3.1	
	만 19 - 29 세	1,150	3.7	20.1	42.0	30.5	3.6	
	만 30 - 39 세	1,142	3.8	19.1	44.3	29.9	2.9	
지역	서울	510	2.8	13.9	46.9	33.3	3.2	
	인천 / 경기	648	4.2	21.1	43.1	28.4	3.2	
	대전/충청/세종/강원	410	3.9	22.0	51.1	19.2	3.8	
	광주/전라/제주	363	5.1	17.8	45.0	30.5	1.6	
	부산/울산/경남	421	3.2	24.6	33.1	35.2	3.8	
	대구 / 경북	362	4.3	20.1	40.6	31.3	3.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393	4.6	22.0	45.8	24.5	3.1	
	대학생/대학원생	550	3.1	19.3	37.5	36.2	4.0	
	고 졸 이 하	549	6.3	23.1	47.2	21.9	1.5	
	대 졸 이 상	1,222	2.8	18.0	43.5	31.9	3.8	
주거 형태	동 거	1,426	3.1	21.5	42.9	29.8	2.7	
	비 동 거 / 독 립	1,288	4.6	18.1	44.0	29.5	3.9	

* 주: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109) 평소 외출 정도

- 평소 외출 정도에서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라는 응답이 7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5-18세에서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표 II-109 평소 외출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전	총	2,321	77.4	4.2	5.2	8.8	1.6	2.5	0.1	0.0
	남	1,208	86.9	4.4	3.0	4.1	1.0	0.3	0.2	0.1
	여	1,113	67.0	4.1	7.6	14.0	2.2	5.0	0.1	0.0
연령	만 15 - 18 세	29	85.2	11.4	0.0	3.4	0.0	0.0	0.0	0.0
	만 19 - 29 세	1,150	79.6	5.4	5.0	6.7	1.5	1.4	0.2	0.1
	만 30 - 39 세	1,142	75.1	3.0	5.5	11.0	1.6	3.7	0.1	0.0
지역	서울	451	80.3	3.8	5.5	7.0	1.3	1.8	0.0	0.2
	인천 / 경기	550	72.4	5.3	6.5	10.6	2.0	3.0	0.2	0.0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83.4	3.6	2.7	5.3	1.4	3.5	0.0	0.0
	광주 / 전라 / 제주	299	77.4	6.4	4.4	7.0	0.5	4.0	0.3	0.0
	부산 / 울산 / 경남	358	78.7	2.2	6.6	9.9	1.8	0.4	0.3	0.0
	대구 / 경북	313	77.6	3.4	2.3	12.1	1.5	3.0	0.0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50	81.7	9.3	3.3	4.1	0.9	0.5	0.0	0.2
	고졸이하	549	75.7	2.3	5.0	11.2	2.2	2.9	0.6	0.0
	대졸이상	1,222	76.4	3.0	6.1	9.7	1.5	3.2	0.0	0.0
주거 형태	동거	1,036	80.5	6.4	4.4	6.0	1.2	1.2	0.3	0.0
	비동거 / 독립	1,285	75.0	2.5	5.9	11.1	1.8	3.6	0.0	0.1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10)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에서 '1년 이상-3년 미만'라는 응답이 36.5%로 나타났고, '6개월 미만'이 18.4%로 그 뒤를 이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6개월 미만'이 여성은 '1년 이상-3년 미만'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5년 이상-7년 미만'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1년 이상-3년 미만'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표 II-110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
전	체	98	18.4	17.9	36.5	16.6	6.0	4.7
	남 자	17	43.0	14.0	39.6	3.4	0.0	0.0
	여 자	81	12.4	18.9	35.8	19.7	7.4	5.8
연령	만 19 - 29 세	36	30.0	18.7	35.0	16.3	0.0	0.0
	만 30 - 39 세	62	11.3	17.5	37.4	16.7	9.6	7.5
지역	서울	15	13.5	20.3	47.6	0.0	11.7	6.9
	인천 / 경기	27	12.3	21.4	37.2	21.1	3.7	4.3
	대전/충청/세종/강원	16	30.7	5.1	24.0	26.7	5.3	8.2
	광주 / 전라 / 제주	17	17.9	12.5	26.8	21.5	15.8	5.3
	부산 / 울산 / 경남	9	31.0	22.1	39.4	7.5	0.0	0.0
	대구 / 경북	14	20.2	23.2	43.1	13.5	0.0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8	15.6	22.7	45.8	15.9	0.0	0.0
	고졸 이하	32	28.7	19.6	33.3	14.7	3.6	0.0
	대졸 이상	58	12.9	16.3	37.0	17.7	8.2	8.0
주거 형태	동거	29	33.4	17.0	41.2	8.4	0.0	0.0
	비동거 / 독립	69	12.3	18.3	34.6	19.8	8.4	6.5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1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에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라는 응답이 61.3%로 나타났고,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17.9%로 그 뒤를 이음.
- 성별로 보면,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이유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지역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지역에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대학생/대학원생에서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III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인간관계 가 잘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학업중단 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기타
전			98	61.3	17.9	10.1	4.6	3.8	2.2
성별	남	자	17	0.0	40.2	22.1	12.1	14.3	11.3
	여	자	81	76.1	12.5	7.2	2.8	1.3	0.0
연령	만 19 - 29 세		36	43.9	27.6	9.5	2.9	10.2	5.8
	만 30 - 39 세		62	71.8	12.0	10.5	5.7	0.0	0.0
지역	서 울		15	58.6	35.0	0.0	0.0	6.4	0.0
	인 천 / 경 기		27	69.5	7.9	18.8	0.0	0.0	3.9
	대전/충청/세종/강원		16	66.6	14.9	0.0	7.1	11.5	0.0
	광 주 / 전 라 / 제 주		17	64.6	18.7	0.0	10.4	0.0	6.3
	부 산 / 울 산 / 경 남		9	17.1	30.5	13.1	27.7	11.6	0.0
	대 구 / 경 북		14	60.7	20.2	19.1	0.0	0.0	0.0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8	15.9	34.0	22.0	15.1	13.0	0.0
	고 졸 이 하		32	54.8	16.6	18.7	3.3	0.0	6.6
	대 졸 이 상		58	71.5	16.3	3.6	3.9	4.7	0.0
주거 형태	동 거		29	20.9	36.5	16.4	12.3	6.2	7.7
	비 동 거 / 독 립		69	77.5	10.4	7.6	1.6	2.9	0.0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 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12)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 지난 주 점심을 기준으로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에서 50.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일주일 중 혼자 점심을 먹은 횟수는 3.1회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혼자 밥을 먹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만 19-29세에서 혼자 밥을 먹은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으로 보면, 고졸이하에서 혼자 밥을 먹은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 혼자 밥을 먹은 경험이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혼자 밥을 먹은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12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횟수
전	체	2,321	49.8	50.2	3.1
성별	남	1,208	52.2	47.8	3.0
	여	1,113	47.1	52.9	3.2
연령	만 15 - 18 세	29	55.4	44.6	2.3
	만 19 - 29 세	1,150	48.7	51.3	3.0
	만 30 - 39 세	1,142	50.7	49.3	3.3
지역	서울	451	48.3	51.7	2.9
	인천 / 경기	550	44.5	55.5	3.2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54.2	45.8	3.1
	광주 / 전라 / 제주	299	53.5	46.5	3.0
	부산 / 울산 / 경남	358	52.5	47.5	3.5
	대구 / 경북	313	56.3	43.7	3.1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550	42.0	58.0	2.9
	고졸 이하	549	52.8	47.2	3.4
	대졸 이상	1,222	51.6	48.4	3.2
주거 형태	동거	1,036	50.5	49.5	3.0
	비동거 / 독립	1,285	49.1	50.9	3.2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13)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 지난 주 저녁을 기준으로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에서 82.0%가 없다고 응답했고, 18.0%가 혼자 저녁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이 혼자 술을 마신 경험과 횟수 모두 높게 나타남.
- 연령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지역으로 보면, 인천/경기지역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혼자 술을 마신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으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주거형태로 보면 비동거/독립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경험과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3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횟수
전	체	2,321	82.0	18.0	2.0
성별	남	1,208	77.1	22.9	2.0
	여	1,113	87.5	12.5	1.9
연령	만 15 - 18 세	29	96.6	3.4	1.0
	만 19 - 29 세	1,150	85.1	14.9	2.0
	만 30 - 39 세	1,142	78.7	21.3	2.0
지역	서울	451	81.8	18.2	1.8
	인천 / 경기	550	78.3	21.7	2.0
	대전/충청/세종/강원	350	82.2	17.8	2.0
	광주 / 전라 / 제주	299	87.0	13.0	2.0
	부산 / 울산 / 경남	358	83.1	16.9	2.2
	대구 / 경북	313	88.3	11.7	2.0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550	84.6	15.4	1.7
	고졸 이하	549	82.7	17.3	2.4
	대졸 이상	1,222	80.7	19.3	1.9
주거 형태	동거	1,036	86.2	13.8	1.8
	비동거 / 독립	1,285	78.7	21.3	2.1

* 주: 1) 사례수는 실제 사례수이며, 제시된 결과는 대표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중 ·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

부록

부 록

1.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 항목

부록-1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 항목

	조사내용 (*는 2017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비고
		만15-18세용	만19-39세용	
1.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문1	문1	2016년 신규문항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 시기	문2	문2	2016년 신규문항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문3	문3	2016년 신규문항
	자녀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문4	문4	2016년 신규문항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문5	2015년 신규문항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문6	2015년 신규문항
	결혼 준비 경험 여부	-	문7	2016년 신규문항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	문7-1	2016년 신규문항
	결혼을 망설임 이유*	-	문7-2	연구진 개발
	맞벌이 유무	-	문8	2016년 신규문항
	현재 자녀 존재 유무	-	문9	2013년 개발문항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문10	2016년 신규문항
	2025년 출산율 전망	-	문11	2016년 신규문항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문5	문12	2016년 신규문항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문5-1	문12-1	2016년 신규문항
2.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문6	문13	2015년 신규문항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문7(1)-(3)	문14(1)-(3)	2013년 개발문항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	문15	2016년 신규문항
	졸업 유예 위해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문16	2016년 신규문항
	대학 미진학 사유		문17	2013년 개발문항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문8	문18	2013년 개발문항
	취업 준비 여부	문9	문19	2016년 신규문항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문10	문20	2013년 개발문항 2015년 문항수정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	문21	2015년 신규문항

	조사내용 (*는 2017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비고
		만15-18세용	만19-39세용	
3. 경제와 고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문11	문22	2013년 개발문항
	2019년 적정 최저 임금	문12	문23	2016년 신규문항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문13	문24	2015년 신규문항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문14	문25	2016년 신규문항
	집 관련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선택 항목	문15	문26	2016년 신규문항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문16	문27	연구진 개발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문16-1	문27-1	연구진 개발
	값아야 할 채무 여부	-	문28	2013년 개발문항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문17	문29	European Commission(2015). EU YOUTH REPORT 2015
	중소기업 취업 의향	문18	문30	2013년 개발문항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18-1	문30-1	2013년 개발문항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문31	2013년 개발문항 2017년 문항수정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문32	2015년 신규문항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32-1	2015년 신규문항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32-2	2015년 신규문항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문33	2016년 신규문항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문34	2016년 신규문항 2017년 문항수정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재학 여부	-	문35	2016년 신규문항
	지난 주 입사학원, 취업 관련 학원 재학 경험	-	문36	2016년 신규문항
	니트 관련_1) 지난주에 주로 한 일*	-	문37	연구진 개발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 기간*	-	문38	한국노동연구원(2016). 한국노동패널조사 (19차년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문39	2013년 개발문항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	문40	2013년 개발문항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문41	2013년 개발문항
	이직 의향	-	문42	2013년 개발문항
	이직 희망 사유	-	문42-1	2013년 개발문항

조사내용 (*는 2017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비고
		만15-18세용	만19-39세용	
4. 주거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문19	문43	2013년 개발문항
	집에 대한 생각	문20(1)-(3)	문44(1)-(3)	2013년 개발문항
	공동주거 경험 여부	문21	문45	2015년 신규문항
	공동주거 거주 의향	문22	문46	2015년 신규문항
	부모 동거 여부	문23	문47	2013년 개발문항
	향후 부모 동거 계획	문24	-	2016년 신규문항
	미혼 혼자 거주 여부	-	문48	2015년 신규문항
	현재 주거 형태	-	문48-1	2015년 신규문항
5. 건강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문25	문49	2016년 신규문항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수준*	문26(1)-(5)	문50(1)-(5)	WHO(1998). WHO (Five) Well-Being Index
	규칙적인 운동 여부	문27	문51	2016년 신규문항
	규칙적인 운동 빈도	문27-1	문51-1	2016년 신규문항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문28	문52	2016년 신규문항
	성형수술 경험	문29	문53	2016년 신규문항
	성형수술 목적	문29-1	문53-1	2016년 신규문항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문29-2	문53-2	2016년 신규문항
6. 문화와 가치관	가치 항목별 선호도	문30(1)-(4)	문54(1)-(4)	2016년 신규문항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31	문55	2013년 개발문항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문32	문56	2013년 개발문항
7. 관계와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수	문33	문57	2016년 신규문항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문34(1)-(7)	문58(1)-(7)	2016년 신규문항
	의견 표명 행동	문35(1)-(4)	문59(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정치적 효능감*	문36(1)-(3)	문6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연구진 개발
8. 사회적응	평소 외출 정도*	-	문61	일본 내각부(2010). 청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	문61-1	일본 내각부(2010). 청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	문61-2	일본 내각부(2010). 청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 기준)*	-	문62	연구진 개발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 기준)*	-	문63	연구진 개발

2.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승인(협의)번호
제402004호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 15세~18세(1998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 출생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청년층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S.V 검증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응답자 연락처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해당 가구원 수 총 ()부 중 ()부 진행		

미진행 가구원 사유	
------------	--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사문의
김기현: 044-415-2234
이윤주: 044-415-2146
유설희: 044-415-2152

조사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조사문의
김수진: 02-3014-0982
이동휘: 02-3014-0995

동 의 서

1. 조사동의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동의

비동의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한국리서치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주)한국리서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내용 활용 및 처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연락처)는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1년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기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일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참여 사실과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동의

비동의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X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작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1.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초 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5-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져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져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II. 다음은 「교육」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 질 것이다

문7)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8)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9)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III. 다음은 「경제」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1)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2) 귀하는 2019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13)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 질 것이다

문14)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15) 만약 집과 관련된 비용(집 임대/매매 등)을 쓰는 것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중에서 같은 금액으로 한 가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집 ② 자동차 ③ 잘 모르겠다

문16)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용돈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16-1) 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17) 귀하는 지난 1년간(2016년 7월~2017년 6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은 모를 경우만 1), 2)에 '⑨ 잘 모름'에 체크)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⑨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⑨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18)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주거'영역(문19)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18-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
| ③ 고용 불안정 |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
| ⑤ 낮은 급여 수준 |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
|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9)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 | |
|--------------------|-------------------|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 ② 향후 1년 이내 |
|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
|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
|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 ⑧ 향후 20년 이후 |
|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 |

문20)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주거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
(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 | | |
|-----|-------|
| ① 예 | ② 아니오 |
|-----|-------|

문22)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① 예 | ② 아니오 |
|-----|-------|

문23)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 ②, ③ 응답자는 「건강」 영역 문25로 이동

문24) (문23에서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인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는 부모님과 언제까지 함께 살 생각입니까?

- | | |
|-----------------------------|-----------------|
| ① 대학교 진학 전(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 동거 | ② 취업 전까지 동거 |
| ③ 결혼 전까지 동거 | ④ 결혼 후에도 동거 |
| ⑤ 출산 후에도 동거 | ⑥ 내 집 마련 전까지 동거 |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5)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26)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27)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 문28로 이동

문27-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⑦ 매일

문28)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문29)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30)으로 이동

문29-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30)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29-2로 이동

문29-2)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기타(적을 것 : _____)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0)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31)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재산·경제력 | ② 화목한 가정 |
| ③ 자아성취 | ④ 건강 |
| ⑤ 감사·긍정적 태도 | ⑥ 종교생활 |
| ⑦ 직업·직장 | ⑧ 연인(이성관계 등) |
| ⑨ 친구·대인관계 | ⑩ 꿈·목표의식 |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32)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Ⅶ.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3)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34)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35)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36)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II. 다음은 귀하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최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최상
------	---	---	---	---	---	---	---	---	---	---	------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1) 본인	①				②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승인(협의)번호
제402004호



청년용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중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 19세~39세(1977년 7월 1일~1998년 6월 30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15~18세인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S.V 검증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응답자 연락처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해당 가구원 수 총 ()부 중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	--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사문의 김기현: 044-415-2234
 이윤주: 044-415-2146
 유설희: 044-415-2152

조사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조사문의 김수진: 02-3014-0982
 이동휘: 02-3014-0995

동 의 서

1. 조사동의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 동의 ☐ 비동의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한국리서치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주)한국리서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내용 활용 및 처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연락처)는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1년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기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일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참여 사실과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 동의 ☐ 비동의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워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작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I.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다음의 출산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출산장려금 확대 | ②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 ③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④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 ⑤ 가구의 소득 증대 | ⑥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 ⑦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 귀하는 다음의 육아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무상보육교육비 확대 | ②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
| ③ 방과후 서비스 확대 | ④ 아동수당 신설 |
| ⑤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⑥ 가구의 소득 증대 |
| ⑦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⑧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7)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8로 이동

문7-1)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 8로 이동

문7-2) 결혼을 망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 ⑥ 기타()

문8)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문9)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명)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문11)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12)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영역(문13)으로 이동

문12-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
|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
| ⑤ 취업이 어려워서 |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
| ⑦ 빈부격차가 커서 |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
| ⑨ 안보가 불안해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II. 다음은 「교육 및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4)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문15, 문16)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니시는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5)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학교에 졸업 유예 제도가 없었음

문16) 대학 시절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응답 후 문19로 이동**

※ 다음(문17, 문18)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7)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18)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9)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0)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있다
- ② 없다

문21)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이미 받고 있다

III. 다음은 「경제」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2)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23) 귀하는 2019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24)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25)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26) 만약 집과 관련된 비용(집 임대/매매 등)을 쓰는 것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중에서 같은 금액으로 한 가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집 ② 자동차 ③ 잘 모르겠다

문27)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27-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28)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29) 귀하는 지난 1년간(2016년 7월~2017년 6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은 모를 경우만 1), 2)에 ‘@모름’에 체크)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⑨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⑨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30)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31로 이동 ② 아니오

문30-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의 부재
③ 고용 불안정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⑤ 낮은 급여 수준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31)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 ②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 ③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32)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동 공급(개인, 교육) ②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문32의 응답 결과와 상관없이 문32-1과 문32-2를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2-1)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 ④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 ⑦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32-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팬층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33) 귀하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다?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 ① 일을 하였음 ➡ **문 39로 이동**
-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 39로 이동**
- ③ 일을 하지 않았음

문34)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을 구해 보았습니까?

-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문35) 귀하는 지난 주에 정규교육기관(학교)을 다니셨습니까?

 방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 중이므로 '① 예' 로 응답,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휴학이나 중퇴인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43으로 이동**
- ② 아니오

문36) 귀하는 지난 주에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을 하셨습니까?

 취업준비를 했지만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 43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37) 귀하는 지난 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 ①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을 했다
- ②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 ③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였다
- ④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 ⑤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쉬었다
- ⑥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 훈련기관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그냥 쉬었다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38) 귀하가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 응답 후 「주거」영역 문43으로 이동

※ 다음(문39~문42-1)은 취업자 및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또는 휴가, 일시 휴직 상태인 경우(문33 '① 일을 하였음', '②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문39) (취업자만 응답하십시오)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직업에 해당합니까?

 세부 직업에 대한 분류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직업군인
- ⑪ 기타(자세히 적을 것 : _____)

문40)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얻는 세후 기준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만원

문41) 직장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 ②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문42) 현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주거」 영역(문43)으로 이동

문42-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 ② 개인발전/승진
-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 ⑧ 건강상의 이유로
-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3)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44)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45)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동주거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
(고시원 및 하숙 거주 유형은 포함하지 않음)

- [illegible]

문46)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illegible]

문47)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건강」 영역(문49)으로 이동
-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문48)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 [illegible]

문48-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 ② 원룸(다가구) : 단독주택의 일종,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 ③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 ④ 하숙
- ⑤ 기숙사
- ⑥ 고시원
- ⑦ 아파트
- ⑧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회사 등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9)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50)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5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 문52로 이동

문51-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⑦ 매일

문52)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문53)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54)으로 이동

문53-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54)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53-2로 이동

문53-2)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4)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55)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재산·경제력 | ② 화목한 가정 |
| ③ 자아성취 | ④ 건강 |
| ⑤ 감사·긍정적 태도 | ⑥ 종교생활 |
| ⑦ 직업·직장 | ⑧ 연인(이성관계 등) |
| ⑨ 친구·대인관계 | ⑩ 꿈·목표의식 |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56)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VII.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7)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58)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59)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60)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II. 다음은 「사회적 관계」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1)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문62로 이동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문62로 이동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문62로 이동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62로 이동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문61-1)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61-2)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문62) 귀하는 지난주에 점심기준으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 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63) 귀하는 지난주에 저녁기준으로 혼자 술을 마신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 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혼인] 귀하는 결혼하셨습니다?

-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이혼
③ 결혼하지 않음

배경문항 3)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최하 → 최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배경문항 4)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본인 기준)는 아래의 문항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소재지 (17개 시도 기준)	학교명	전공계열 (* 아래 표 참조)	입학년월	졸업여부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____년 ____월	① 졸업 ② 졸업안함(재학, 중퇴, 휴학 등)	____년 ____월

*** 전 공 계 열**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배경문항 5) [취업] 현재 취업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1)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직장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	
(5)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499인 ⑦ 500인 이상	
(6) 근속년수 (현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	년 개월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우리은행 전 사원 수15,000명 기준이 아닌 삼성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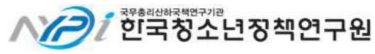
별첨. 직업분류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1 권리자		2225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2452	방사선사	2714	관세사	2961	경기감독 및 코치	
공공 및 기업 고위직(11)	2226	컴퓨터 보안 전문가	2453	치과기술사	2715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962	직업 운동선수	4129	기타검조 및 보안 관련 종사원
1110 의뢰하를 고객응답 및 상담담당자(12)	2227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2454	치과위생사	2721	투자 및 신용 분석가	2963	경기심판 및 경기기록원	4130	이비인후과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42)
1120 기업고위직	2228	웹 개발자	2455	외식보조기사	2723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2964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4211	간행인
보험 및 경영지원 관련직(12)	2230	영상 및 사진 기술사	2456	유아 및 직업 지도사	2726	보험 및 직업 기술사	2965	기타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4219	기타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원
1201 경영지원 관리자	2240	홍보 및 방송홍보 장비 기사	2459	임상심사 및 기타 치료사	2725	산하·생명인	2969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캐스터	4221	이비인후과
1202 경영지원 관리자		교육전문가 및 기술직(23)	2461	응급구조사	2729	기타감독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998	미용사 및 기타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4222	미용사
1209 기타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2311	건축학 및 건축공학 기술자	2462	원형사	2731	상품기획 전문가	3	사무 종사자	4223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전문서비스 관련직(13)	2312	토목공학 기술자	2463	악상사	2732	여행상품 개발자	3111	조세행정 사무원	4225	예하감독 미용사
1311 연구 관리자	2313	조경 기술자	2464	무구기술사	2733	광고 및 홍보 전문가	3124	조세 관련 서비스 종사원	4229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원
1312 교육 관리자	2314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2465	간호조무사	2734	조사 전문가	3125	경제행정 사무원	4231	결혼상담원 및 육아상담원
1313 법률 상담·소송 및 고도 관리자	2315	항공 및 저공비행 전문가	2466	안무사	2735	행사기획자	3126	법무행정 사무원	4232	혼합 종사원
1320 보험 및 금융 관리자	2316	산업기계 시험원	2471	시뮬레이션 기술자	2741	전원설계 전문가	3127	경제행정 사무원	4233	경제행정 및 정책 지도자
1331 보건관리 관련 관리자	232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72	보육 교사	2742	배우 합창원	3128	기타 미용 관련 사무원	4234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 종사원
1332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2322	화학공학 기술자	2473	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원	2743	기술 영업원	3129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4311	항공기 객실승무원
1340 문화·예술 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2331	건축·재료공학 연구원 및 기술자	2474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자	2744	상품중개 및 판매사	3129	지배관리 사무원	4312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1350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2332	건축·재료공학 기술원	2475	시민 단체 활동가	2745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3129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	4313	항공기 객실승무원
1390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2341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79	가정사(가정) 관련 종사원	2749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3129	무역 사무원	4314	여행 및 관광상품 안내원
2341 전문직 및 생산 관련 관리자(14)	2342	화학공학 기술원	2481	상업·서비스 관련 종사원	2750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	3129	교육 사무원	4322	숙박서비스 종사원
2342 전문직 및 생산 관련 관리자	234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89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2811	자녀 및 관련 전문가	3129	문화 사무원	4323	숙박서비스 종사원
1412 전기·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	235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25)	2812	번역가	3131	회계 전문가	4329	기타 여행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1413 제철 생산 관련 관리자	2353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11	대중 교수	2813	통역가	3132	경영자 사무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44)
1480 기타 건설·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2354	전자·전자 및 기계공학 시험원	2512	대중 시간강사	2814	기타 및 논설위원	3141	비서	4411	전반 주방장 및 조리사
생산 및 교육서비스 관련직(15)	2361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원	2521	중·고등학교 교사	2815	출판물 전문가	3142	전시·전시 기획원 및 사무 보조원	4412	종교 주방장 및 조리사
1511 경영 및 판매 관련 관리자	2362	보건공학 및 환경 검사원	2522	초등학교 교사	2821	판매·판매 및 판매 보조원	3143	사무 업무원	4413	여행 주방장 및 조리사
1512 은행 관련 관리자	2363	비행기 정비사	2523	초등학교 교사	2822	사무 및 행정 관련 종사자	3143	사무 업무원	4414	여행 주방장 및 조리사
1521 숙박·관광·호텔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2371	항공기 조종사	2529	유치원 교사	2823	보험 및 금융 관련 종사자	3202	보험 상품 기획자	4419	기타 주방장 및 조리사
1522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2372	항공·항공 및 도선사	2541	물리 및 화학 강사	2832	배우 및 모델	3203	금융 관련 종사원	4421	비서
1530 호텔·호텔 및 기타 서비스 관리자	2373	제빵사	2542	컴퓨터 강사	2833	아르바이트 및 리포터	3204	신문 수필원	4422	회계사
1590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38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43	기술 및 기능계 강사	2834	촬영기사		법률 및 감사 사무직(33)		기타 음식서비스 종사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82	생물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44	예술 강사	2835	음악 및 녹음 기사	3301	법률 관련 사무원	5	판매 종사자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21)	2383	기초·응용 기술자 및 연구원	2545	학급지 및 방문 교사	2836	영상·영상 및 편집 기사	3302	감사 사무원		행정직(34)
2111 행정관리 업무원	2384	기계·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46	기타 일반직(2) 및 기타 종사자	2837	사무 및 행정 관련 종사자		상업·서비스·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38)	5101	지식 산업원
2112 지리적 업무원	2385	산업·산업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91	장비·장비 관련 기술자 및 연구원	2839	기타연구·연구 및 영상 관련 종사자	2910	통계 관련 종사원	5102	제품 및 광고 영업원
2121 인사관리 업무원	2386	도로	2592	대학 고교교수	2841	회계 및 조각가	3321	여행 사무원	5103	보험설계사 및 간접부서직원 판매원
2122 사회과학 업무원	2389	기타일반·일반 기술자 및 시험원	2599	보조 교사 및 기타 교사	2842	사진·사진 및 사진사	3322	연락·연락 및 전화 교환원		행정 판매직(32)
2131 행정관리 시험원		보건·서비스직 및 종교 관련직(24)		법률 및 행정 전문직(26)	2843	연예가 및 연예기획자 작가	3329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	5211	성형 판매원
2331 농업·농업 관련 시험원	2411	전문 서비스	2611	연세 및 교사	2844	국악 및 전통예술인	3399	기타 사무원	5212	제품 및 복제 판매원
2333 지리적 시험원	2412	일반 서비스	2612	변환사	2845	지형·지형·지형 및 연구가		4 서비스 종사자	5213	제품·제품 및 요구품 판매원
2334 지리적 시험원	2413	일반 서비스	2613	변환사 및 설계원	2846	기타 사무 및 연구가	4111	통계 종사자	5220	성형 판매원
2335 지리적 시험원	2414	지리 서비스	2614	변환사	2847	무용가 및 연구가		항공·스포츠 및 기타 관련 서비스직(41)		항공·스포츠 및 기타 관련 서비스직(53)
2336 지리적 시험원	2415	일반 서비스	2620	장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	2851	체육 디자이너	4112	소문원	5301	성형 판매원
2337 지리적 시험원	2420	학사 및 일반사		경영·경영전문가 및 관련직(27)	2852	해선 디자이너	4121	소문원	5302	문화·문화·문화
2338 지리적 시험원	2430	간호사	2711	인사 및 인사 관련 전문가	2853	산악·산악 디자이너	4122	경호원	5304	문화·문화 판매원
2339 지리적 시험원	2440	경영사	2712	회계사	2854	사자 디자이너	4123	문화·문화	5305	문화·문화 및 문화 판매원
2340 지리적 시험원	2451	방송통신사	2713	세무사	285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4123	문화·문화	5306	문화·문화 및 문화 판매원

별첨. 직업분류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6 통역·번역 종사자	7430 통역원	기타 기능직 관련 기능직(74)	7911 관세원	8434 공역 및 사역원 기타직	9229 해운원		
농·산·수업 관련직(81)	7510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75)	7912 금융원 및 보석 세정원	8439 기타 비금융 제품 생산기 직종	9230 육식 배급원		
6112 제조 및 특용작물 재배원	7521 항공기 정비사	항공기 정비 관련 기능직(76)	7922 관광 배급원	8440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립직(85)	9231 기타 배급원		
6113 과수작물 재배원	7522 선박 정비사	선박 정비 관련 기능직(77)	7923 관광 배급원	8501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32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6121 연꽃재배 재배원	7523 항공기 정비사	항공기 정비 관련 기능직(78)	7924 관광 배급원	8502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33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6122 조종원	7524 항공기 정비사	항공기 정비 관련 기능직(79)	7925 관광 배급원	8503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34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6131 낙농업 관련 종사원	7531 농업기계 정비사	농업기계 정비 관련 기능직(80)	7926 관광 배급원	8504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35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6132 가축 사육 종사원	7532 농업기계 정비사	농업기계 정비 관련 기능직(81)	7927 관광 배급원	8505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36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6133 기타 사육 관련 종사원	7533 농업기계 정비사	농업기계 정비 관련 기능직(82)	7928 관광 배급원	8506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37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6201 농업·농업 관련 종사원	7534 농업기계 정비사	농업기계 정비 관련 기능직(83)	7929 관광 배급원	8507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38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6202 농업·농업 관련 종사원	7535 농업기계 정비사	농업기계 정비 관련 기능직(84)	7930 관광 배급원	8508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39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6301 농업·농업 관련 종사원	7536 농업기계 정비사	농업기계 정비 관련 기능직(85)	7931 관광 배급원	8509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40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6302 농업·농업 관련 종사원	7537 농업기계 정비사	농업기계 정비 관련 기능직(86)	7932 관광 배급원	8510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41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6303 농업·농업 관련 종사원	7538 농업기계 정비사	농업기계 정비 관련 기능직(87)	7933 관광 배급원	8511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42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6304 농업·농업 관련 종사원	7539 농업기계 정비사	농업기계 정비 관련 기능직(88)	7934 관광 배급원	8512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43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 기능직 및 관련 기능직(71)	7611 PC 및 사무기기 정비사 및 수리원	사무기기 정비 관련 기능직(71)	7935 관광 배급원	8513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44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01 여행원 및 제조원	7612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72)	7936 관광 배급원	8514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45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02 제조원	7613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73)	7937 관광 배급원	8515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46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03 여행원 및 제조원	7614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74)	7938 관광 배급원	8516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47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04 여행원 및 제조원	7615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75)	7939 관광 배급원	8517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48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05 여행원 및 제조원	7616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76)	7940 관광 배급원	8518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49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06 여행원 및 제조원	7617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77)	7941 관광 배급원	8519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50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07 여행원 및 제조원	7618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78)	7942 관광 배급원	8520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51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08 여행원 및 제조원	7619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79)	7943 관광 배급원	8521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52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09 여행원 및 제조원	7620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80)	7944 관광 배급원	8522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53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10 여행원 및 제조원	7621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81)	7945 관광 배급원	8523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54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11 여행원 및 제조원	7622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82)	7946 관광 배급원	8524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55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12 여행원 및 제조원	7623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83)	7947 관광 배급원	8525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56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13 여행원 및 제조원	7624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84)	7948 관광 배급원	8526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57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14 여행원 및 제조원	7625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85)	7949 관광 배급원	8527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58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15 여행원 및 제조원	7626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86)	7950 관광 배급원	8528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59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16 여행원 및 제조원	7627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87)	7951 관광 배급원	8529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60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17 여행원 및 제조원	7628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88)	7952 관광 배급원	8530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61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18 여행원 및 제조원	7629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89)	7953 관광 배급원	8531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62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19 여행원 및 제조원	7630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90)	7954 관광 배급원	8532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63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20 여행원 및 제조원	7631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91)	7955 관광 배급원	8533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64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21 여행원 및 제조원	7632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92)	7956 관광 배급원	8534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65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22 여행원 및 제조원	7633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93)	7957 관광 배급원	8535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66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23 여행원 및 제조원	7634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94)	7958 관광 배급원	8536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67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24 여행원 및 제조원	7635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95)	7959 관광 배급원	8537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68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25 여행원 및 제조원	7636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96)	7960 관광 배급원	8538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69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26 여행원 및 제조원	7637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97)	7961 관광 배급원	8539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70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27 여행원 및 제조원	7638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98)	7962 관광 배급원	8540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71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28 여행원 및 제조원	7639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99)	7963 관광 배급원	8541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72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29 여행원 및 제조원	7640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00)	7964 관광 배급원	8542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73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30 여행원 및 제조원	7641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01)	7965 관광 배급원	8543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74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31 여행원 및 제조원	7642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02)	7966 관광 배급원	8544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75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32 여행원 및 제조원	7643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03)	7967 관광 배급원	8545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76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33 여행원 및 제조원	7644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04)	7968 관광 배급원	8546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77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34 여행원 및 제조원	7645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05)	7969 관광 배급원	8547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78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35 여행원 및 제조원	7646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06)	7970 관광 배급원	8548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79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36 여행원 및 제조원	7647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07)	7971 관광 배급원	8549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80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37 여행원 및 제조원	7648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08)	7972 관광 배급원	8550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81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38 여행원 및 제조원	7649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09)	7973 관광 배급원	8551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82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39 여행원 및 제조원	7650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10)	7974 관광 배급원	8552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83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40 여행원 및 제조원	7651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11)	7975 관광 배급원	8553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84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41 여행원 및 제조원	7652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12)	7976 관광 배급원	8554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85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42 여행원 및 제조원	7653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13)	7977 관광 배급원	8555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86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43 여행원 및 제조원	7654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14)	7978 관광 배급원	8556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87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44 여행원 및 제조원	7655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15)	7979 관광 배급원	8557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88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45 여행원 및 제조원	7656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16)	7980 관광 배급원	8558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89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46 여행원 및 제조원	7657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17)	7981 관광 배급원	8559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90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47 여행원 및 제조원	7658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18)	7982 관광 배급원	8560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91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48 여행원 및 제조원	7659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19)	7983 관광 배급원	8561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92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49 여행원 및 제조원	7660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20)	7984 관광 배급원	8562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93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50 여행원 및 제조원	7661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21)	7985 관광 배급원	8563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94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51 여행원 및 제조원	7662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22)	7986 관광 배급원	8564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95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52 여행원 및 제조원	7663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23)	7987 관광 배급원	8565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96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53 여행원 및 제조원	7664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24)	7988 관광 배급원	8566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97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54 여행원 및 제조원	7665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25)	7989 관광 배급원	8567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98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55 여행원 및 제조원	7666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26)	7990 관광 배급원	8568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299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56 여행원 및 제조원	7667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27)	7991 관광 배급원	8569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00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57 여행원 및 제조원	7668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28)	7992 관광 배급원	8570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01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58 여행원 및 제조원	7669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29)	7993 관광 배급원	8571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02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59 여행원 및 제조원	7670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30)	7994 관광 배급원	8572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03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60 여행원 및 제조원	7671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31)	7995 관광 배급원	8573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04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61 여행원 및 제조원	7672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32)	7996 관광 배급원	8574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05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62 여행원 및 제조원	7673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33)	7997 관광 배급원	8575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06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63 여행원 및 제조원	7674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34)	7998 관광 배급원	8576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07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64 여행원 및 제조원	7675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35)	7999 관광 배급원	8577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08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65 여행원 및 제조원	7676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36)	8000 관광 배급원	8578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09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66 여행원 및 제조원	7677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37)	8001 관광 배급원	8579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10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67 여행원 및 제조원	7678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38)	8002 관광 배급원	8580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11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68 여행원 및 제조원	7679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39)	8003 관광 배급원	8581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12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69 여행원 및 제조원	7680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40)	8004 관광 배급원	8582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13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70 여행원 및 제조원	7681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41)	8005 관광 배급원	8583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14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71 여행원 및 제조원	7682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42)	8006 관광 배급원	8584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15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72 여행원 및 제조원	7683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43)	8007 관광 배급원	8585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16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73 여행원 및 제조원	7684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44)	8008 관광 배급원	8586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17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74 여행원 및 제조원	7685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45)	8009 관광 배급원	8587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18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75 여행원 및 제조원	7686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46)	8010 관광 배급원	8588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19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76 여행원 및 제조원	7687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47)	8011 관광 배급원	8589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20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77 여행원 및 제조원	7688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48)	8012 관광 배급원	8590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21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78 여행원 및 제조원	7689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49)	8013 관광 배급원	8591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22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79 여행원 및 제조원	7690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50)	8014 관광 배급원	8592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23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80 여행원 및 제조원	7691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51)	8015 관광 배급원	8593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24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81 여행원 및 제조원	7692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52)	8016 관광 배급원	8594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25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82 여행원 및 제조원	7693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53)	8017 관광 배급원	8595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26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83 여행원 및 제조원	7694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54)	8018 관광 배급원	8596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27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84 여행원 및 제조원	7695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55)	8019 관광 배급원	8597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28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85 여행원 및 제조원	7696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56)	8020 관광 배급원	8598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29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86 여행원 및 제조원	7697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57)	8021 관광 배급원	8599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30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87 여행원 및 제조원	7698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58)	8022 관광 배급원	8600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31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88 여행원 및 제조원	7699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59)	8023 관광 배급원	8601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32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89 여행원 및 제조원	7700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60)	8024 관광 배급원	8602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33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90 여행원 및 제조원	7701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61)	8025 관광 배급원	8603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34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91 여행원 및 제조원	7702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62)	8026 관광 배급원	8604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35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92 여행원 및 제조원	7703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63)	8027 관광 배급원	8605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36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93 여행원 및 제조원	7704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64)	8028 관광 배급원	8606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37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94 여행원 및 제조원	7705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65)	8029 관광 배급원	8607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38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95 여행원 및 제조원	7706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66)	8030 관광 배급원	8608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39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96 여행원 및 제조원	7707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67)	8031 관광 배급원	8609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40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97 여행원 및 제조원	7708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68)	8032 관광 배급원	8610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41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98 여행원 및 제조원	7709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69)	8033 관광 배급원	8611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42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199 여행원 및 제조원	7710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70)	8034 관광 배급원	8612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43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200 여행원 및 제조원	7711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71)	8035 관광 배급원	8613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44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201 여행원 및 제조원	7712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72)	8036 관광 배급원	8614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45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202 여행원 및 제조원	7713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73)	8037 관광 배급원	8615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46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203 여행원 및 제조원	7714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74)	8038 관광 배급원	8616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47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204 여행원 및 제조원	7715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75)	8039 관광 배급원	8617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48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205 여행원 및 제조원	7716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76)	8040 관광 배급원	8618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49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206 여행원 및 제조원	7717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77)	8041 관광 배급원	8619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50 제조 관련 단종종류(90)		
7207 여행원 및 제조원	7718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정비 관련 기능직(178)	8042 관광 배급원	8620 금속·금속기 가공 직종	9351 제조 관련 단종종류(		

4.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지침서



청년 경제·사회실태조사 조사지침서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기간
5. 조사주기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7. 조사대상
8. 조사항목
9. 조사방법
10. 조사체계
11. 추진일정

II 조사 진행 요령

1. 조사직원의 기본자세
2. 조사대상 선정 요령
3. 현장조사 요령

조사표 작성요령

- III**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1. 조사목적
2. 조사연혁
3. 조사 기준 및 기간
4. 조사주기
5. 조사대상
6. 조사표 구성
7. 조사항목
8. 조사방법
9. 조사체계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현재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만이 갖는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급변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청년 실태를 분석할 자료들은 많지 않음
- 현재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 청년관련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함

2. 조사연혁

- 2013년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연구용역 과제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연구 수행
- 2015년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연구용역 과제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연구 수행
- 2016년 : 본원 5개년(2016-2020)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청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핵심지표개발 및 2016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실시

3. 조사기준 및 기간

- 조사기준 : 2017년 6월
- 조사 실시기간 : 2017년 8월~9월

4. 조사주기

- 작성주기 : 1년
- 통계작성 기준시점 : 조사기준년도 6월

5. 조사대상

- 조사대상: 전국 조사구 내 선정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39세의 남녀 가구원

6. 조사표 구성

- 중·고등학생용 조사표(만 15세~18세)
→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중인 경우는 만 19~39세용 조사표에 응답함
- 청년용 조사표(만 19세~39세)
→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인 경우 만 15~18세용 조사표에 응답함

7. 조사항목

- 중·고등학생용 조사표(만 15세~18세용)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I. 「인구와 가족」	●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독립/결혼/첫 자녀를 가지는 적정한 연령 ● 해외이주 고려 경험과 이유
II. 「교육」	● 현재 대비 2025년 우리나라 입시경쟁에 대한 생각 ● 우리 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인식 ● 추후 대학 진학 의사
III. 「경제」	● 선호 일자리 유형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2019년 최저임금 ● 현재 대비 2025년 청년 취업경쟁에 대한 생각 ●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배당/급여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 같은 금액이라면 집과 관련된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우선 지불 의사 ● 한 달 본인 용돈 액수 및 부모님, 친지 지원 비율 ● 물질적 박탈감 정도 ●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이유
IV. 「주거」	● 본인 명의의 집 마련 기대 시기 ● 집 소유 등에 대한 인식 ●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의향 ● 부모 동거여부 및 향후 부모 동거 기간
V. 「건강」	● 본인 체형에 대한 평가 ● 일상생활 행복정도 ● 규칙적 운동 여부 및 빈도 ● 외모 중요성에 대한 생각 ● 성형수술 여부 및 목적, 미용 목적 성형 이유
VI. 「가치관」	● 가치항목별 선호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및 충분성 정도
VII. 「관계와 참여」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인 ●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인식 ● 반대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의향 ●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식
배경문항	● 성별 ● 부모의 경제적 수준 ● 본인 및 부모 최종학력

• 청년용 조사표(만 19세~39세용)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I. 「인구와 가족」	●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독립/결혼/첫 자녀를 가지는 적절한 연령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육아대책 ● 결혼준비 경험 ● 결혼 망설임 경험 및 결혼 망설임 이유 ● 맞벌이 여부 ● 자녀 유무 및 자녀수 ● 향후 자녀 계획 ● 현재 대비 2025년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생각 ● 해외이주 고려 경험과 이유
II. 「교육」	● 현재 대비 2025년 우리나라 입시경쟁에 대한 생각 ● 우리 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인식 ● [대학 진학자] 졸업유예 경험 여부,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 요건 미이수 경험 ● [대학 비진학자] 대학 비진학 이유, 추후 대학 진학 의사 ● [비취업자] 향후 직업훈련 참여의향 ● 취업준비/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III. 「경제」	● 선호 일자리 유형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2018년 최저임금 ● 현재 대비 2025년 청년 취업경쟁에 대한 생각 ●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배당/급여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 ● 같은 금액이라면 집과 관련된 비용과 자동차 구매 중 우선 지불 의사 ● 한 달 본인 생활비 액수 및 부모님, 친지 지원 비용 ● 채무 여부 ● 물질적 박탈감 정도 ●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이유 ● 창업에 대한 생각 ● 청년 고용위기 해법(노동공급, 노동수요) 중요도 및 그에 대한 생각 ● 정규교육기관(학교) 재학 여부 ● 입시 및 취업 등 기관 통학 여부 ● [비경활자 및 비교육자]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 [취업자] 직업, 월평균 소득, 조건에 맞는 직장 대우 정도, 이직 의향 및 이유
IV. 「주거」	● 본인 명의의 집 마련 기대 시기 ● 집 소유 등에 대한 인식 ●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의향 ● 부모 동거여부 ● [비동거 및 독립한 경우]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는지 여부, 주거형태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V. 「건강」	● 본인 체형에 대한 평가 ● 일상생활 행복정도 ● 규칙적 운동 여부 및 빈도 ● 외모 중요성에 대한 생각 ● 성형수술 여부 및 목적, 미용 목적 성형 이유
VI. 「가치관」	● 가치항목별 선호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및 충분성 정도
VII. 「관계와 참여」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인 ●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인식 ● 반대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의향 ●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식
VIII. 「사회적 관계」	● 평소 외출 정도 ● [‘은둔형 외톨이’ 관련] 현재 상태 지속 기간 및 계기 ● ‘혼술’, ‘혼밥’ 경험
배경문항	● 성별 ● 결혼 여부 ● 부모의 경제적 수준 ● 본인 및 부모 최종학력 ● [대학 진학자] 학교 소재, 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시기 ● [취업자]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근로시간 유형, 직장유형, 종사자 수, 근속년수

8.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하는 대면면접조사
PI(Personal Interview) 조사 방법

9. 조사체계

담당 역할	기관명
조사기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현장조사	한국리서치
자료처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
결과분석 및 공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Ⅱ 현장조사

1. 면접원의 기본자세
2. 조사대상 선정 요령
3. 현장조사 요령
 - 가. 면접조사 요령
 - 나.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 다.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II 현장조사

1 면접원의 기본자세

가. 면접원의 마음가짐

- 면접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조사회사의 대표자로서 공손하고, 유쾌하며 자신감 있어야 하고 잘 준비되어야 한다.
- 조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그들의 참여가 가치있고 필수적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나. 면접원의 태도

- 단정한 복장과 겸손한 태도로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지침을 반드시 숙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 면접과정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상식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례는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 해 두고, 반드시 조사관리자나 담당직원과 상의한 후 기입하도록 한다.

다. 면접원의 의무

- 조사기간 중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리 조사 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통계법 제39조)
- 실사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완성된 조사표는 그때그때 조사관리자나 담당직원에게 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실사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 통계법(법률 제14467호 2016.12.27.일부개정) 관련 조문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라. 면접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 조사기간 중, 판매 등 영업활동은 절대 금지됩니다.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조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설문지 응답을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검증과정을 통해 밝혀질 경우 해당 면접원의 설문지는 전량 폐기됩니다.
폐기된 설문지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 면접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

- 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사연구원이나 담당 팀장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담당 실사 연구원 및 실사 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매일 조사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종료된 설문지는 바로 전송하여 담당 실사연구원이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 면접원 안전수칙

- 조사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 부득이 야간에 조사해야 할 경우, 면접원 2인이 함께 다니거나 가족, 친지, 실사연구원 등과 연락하여 동행하도록 합니다.
- 조사 당일의 일정을 가족에게 알려줍니다.
- 조사 수행 시 사고나 부상 시는 즉시 가족, 실사연구원에 연락합니다.

2 조사대상 선정 요령

가. 조사구 경계 확인

* 조사구란?

: 조사대상 지역에 대하여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일정한 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담당구역(보통 1조사구에 60가구 해당)

-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를 직접 방문하여, 배부된 명부의 거처와 일치하는지 파악한다.
- 조사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지한다.
 - 조사구 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조사구 교체

- 정해진 조사구에서 최선을 다해 10샘플을 확보하되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사구 대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구 교체 상황	조사구 교체 방법
조사구 멸실 및 재개발 등에 의해 조사구내 50% 이상이 다른 주택형태로 바뀌거나 없어진 경우	해당 조사구는 조사하지 말고 실사 슈퍼바이저에게 보고 후 새로운 대체조사구로 교체후 조사 진행
정해진 방법에 의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구 전체를 조사하여도 1개 조사구에서 10부 미만의 샘플이 확보될 경우	실사 슈퍼바이저에게 보고 후 지시한 대로 수행 (비슷한 유형의 대체조사구로 10샘플 확보 (기존+대체))

다. 조사가구 선정 및 대체

- 조사구내 가구수 /10=X, X번째 가구부터 X번씩 건너뛰어 10개 가구까지가
조사대상 가구임.
(예: 조사구가 60가구이면 일련번호 6번째 가구가 시작가구로, 이후
6번째 가구씩 건너뛰어 조사 진행)

- 순서대로 조사하여 조사구 끝번호까지 갔으나 조사완료 가구가 10개가 안되면 다시 일련번호 앞으로 돌아가 조사 진행
(예: 7->14... 70가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10가구 진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8->16->23... 순으로 조사를 진행)

<예시 1. 시작번호 3>

순번	키값	조사구번호	조사구특성	거처번호	가구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행정동리	번지	도로명	건물번호명	통행장리	주택명칭	종	호수	성명	가구수	가구의종류	거처의종류
1	0991	099	1	001	001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중원동	355				보라온스튜디오	101	402	김보지	일반가구	다세대	
2	0991	099	1	002	001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중원동	355				보라온스튜디오	101	410	박영서	외국인가구	다세대	
3	0991	099	1	003	001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중원동	355				보라온스튜디오	101	411	박영서	일반가구	다세대	
4	0991	099	1	004	001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중원동	355				보라온스튜디오	101	419	김구라	일반가구	다세대	
5	0991	099	1	005	001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중원동	355				보라온스튜디오	101	406	유재익	일반가구	다세대	
6	0991	099	1	006	001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중원동	355				보라온스튜디오	101	426	박영수	일반가구	다세대	
7	0991	099	1	007	001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중원동	355				보라온스튜디오	101	427	박 구	일반가구	다세대	
8	0991	099	1	008	001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중원동	355				보라온스튜디오	101	429		일반가구	다세대	
9	0991	099	1	009	001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중원동	355				보라온스튜디오	101	432	이 진	일반가구	다세대	
10	0991	099	1	010	001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중원동	355				보라온스튜디오	101	413	김 석	일반가구	다세대	
	0991	099	1	011	001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중원동	355				보라온스튜디오	101	425		외국인가구	다세대	

표본조사구 내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표본명부에 기재된 시작가구에서 규칙 대로 (조사구 가구수/10) 건너뛰어 총 10가구를 조사한다

- 제공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명부를 조사구 확정 후 조사원에게 제공한다.
 - 「가구명부」에서 시작번호 가구부터 10번째 가구까지가 조사대상 가구이다.
 - 조사대상가구의 대체 사유가 발생 시에는 실사 슈퍼바이저에게 요청한 후 처리한다.
 - 조사원은 실지조사에 활용하면서 변동사항은 빨간색 펜으로 수정(두줄 그음)하며 수정 시에는 해당 사유를 비교란에 기입한다.
 - 가구명부가 없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실사 슈퍼바이저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다.
- 조사구별 가구 일련번호 부여
 - 명부 가구순서에 의거 가구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첫번째 가구(예시 이후)의 번호가 1이 되며 이 후 가구마다 1씩 증가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빈집’도 번호를 부여함)
- 조사대상 선정
 - 해당 조사구의 시작번호가 3일 경우 가구번호가 3인 가구부터 시작하여 10가구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면 된다.
 - 시작번호가 가구명부 상의 전체 가구 수보다 클 경우, 명부상 1번 가구를 시작 가구로 해서 순차적으로 10가구를 조사한다.

[예시] 법정동 주소는 우편물에 사용하는 주소로 기입하며, 농가, 임가, 어가에 동시에 해당되면 해당하는 곳 모두 ○표 합니다.

[illegible]

※ 조사대상 가구 선정 시 주의할 점

- '①'의 경우 : 가구명부 상 존재하지 않지만, 준비조사 시 실제로 가구가 존재할 경우 새로운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한다.
 - '②'의 경우 : 가구명부 상 '빈집'이지만, 준비조사 시 실제로 사람이 가구에 거주할 경우 새로운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한다.

< 예시 3 >

[illegible]

- **가구/조사구 대체**
 - ‘불용가구’, ‘불능가구’, ‘빈집’ 등이 존재하여 부득이하게 시작가구로부터 10가구를 조사하지 못할 경우, 연이어 다음 가구를 조사한다.
- **조사대상 가구 찾기**
 - 가구명부 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대상 가구인지를 결정한다.

- 가구명부 상 기재된 가구주 성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 신축주택 명부 작성

- 일반주택의 50% 이상이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 대체 조사구가 없으며 조사구 주변에 일반주택이 없는 경우
- 가구명부 상 기재된 가구주 성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3 현장조사 요령

가. 면접조사 요령

1) 가구를 방문하기 전

- 조사표의 구성 및 순서, 항목별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다.
-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원증, 가구명부, 조사구역도, 조사표, 방문안내장, 조사안내팸플렛, 지침서, 답례품 및 지급명부 사무용품 등 휴대

2) 가구를 방문할 때

- ① 조사지역에 도착하면 누구에게나 공손히 대한다.
 - 조사대상자가 조사지역에서 생업에 종사는 경우가 있고 빈번히 왕래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조사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
 -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과 좋은 인상을 줌
- ② 방문시간은 언제라도 좋으나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 ③ 대문을 두세 번 두드리거나 벨이 있을 때는 약간 동안만 눌러야 한다.
 - 특히, 아파트는 복도나 문 앞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다른 가구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선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음

3) 가구원을 만났을 때

- ① 먼저 방문목적과 자신에 대해 소개한다.
- ②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승인한 공식통계조사이며, 응답내용은 통계 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 ③ 조사표를 가지고 면접을 시작한다. 소득이나 부채,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질문을 할 때 같은 어조로 물음으로써 응답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한다.

- ④ 응답자가 그 자리에서 당장 답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다른 가구원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고, 시간을 두고 보완하도록 요청한 뒤 조사표를 회수할 재방문일시를 약속한다.
- ⑥ 약속시간은 엄수하도록 하며, 면접을 끝내기 전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기입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항목 간에 상충된 내용은 없는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한다.
- ⑦ 조사표를 완성한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고, 가구를 떠날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한다.

☞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5조(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면접원은 면접조사 시 응답자의 응답부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2. 처음 조사 시에 협조공문 제시
3.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4.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5. 기타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나.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 방법

- 조사 불응 : 면접 거부나 응답기피 등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 공무원의 동행으로 설득한다.
- 장기 부재 : 가구원 모두 부재중인 경우, 3일 이상(하루 1회 이상) 방문

다.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무엇입니까?

- 현재 청년들의 생활실태와 경제적 상태 및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년 관련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입니다.

2) 어디서 조사합니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 조사에 꼭 참여해야 합니까?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대상가구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계법 제32조)

4) 조사대상 가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가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렬하고,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지 모릅니다.
- 응답자의 가구가 이 통계에서 전국 가구를 대표하도록 선정된 것입니다.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국가의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 및 근거자료를 생산하는 연구기관입니다.

6) 한국리서치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한국리서치는 마케팅 및 여론조사 전문회사입니다. 정부관련 기관에서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여론의 생각을 수집하거나 기업에서 판매를 위한 소비자의 생각을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7)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조사 내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 조사된 내용은 이름을 제외하고 모두 전산 처리되어 어느 집의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름을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8) 조사된 자료가 과세자료 등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나요?

- 본 조사는 통계승인을 받은 정부공식 통계로써 통계 목적 이외에는 과세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
-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통계법 제39조).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1) 조사표 작성 대상 및 기준

-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개인’이며, 해당 가구 내 만 15~39세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는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은 ‘본인(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 단, ‘가구소득’ 등 가구에 대한 질문의 경우 가구를 기준으로 응답 받는다.

2) 조사표 작성 방법

- 조사단위 금액은 만원으로 하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0”으로 표시하지 말고, 공란으로 남겨 둔다.
- 조사표 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펜을 사용하도록 한다.
- 조사표 수정 시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정사항은 수정액이나 테이프를 사용하지 말고 빨간펜으로 두 줄을 그은 후 아래에 기입한다.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 가구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나, 가구는 혈연 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이다.

□ 가구주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 가구원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즉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먼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한다. 임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상시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되었고 현재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으로 포함한다.

□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이란 직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계획된 과정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 경제활동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의미한다.

☞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 ①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도박, 매춘 등)
- ②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③ 경매,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일하였음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과 가족(동일 가구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혈연, 혼인 또는 양자에 의한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한 사람

☞ 무급으로 동일 가구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달리하는 가족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함

- 일한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식사, 주거 또는곡물제공)을 받는 경우 : 현금급료나 봉급을 받고 하는 일, 현물급료(주거제공과 식사제공 및 곡류포함)를 받고 하는 일과 팁을 받고 하는 일도 포함
- 원재료를 제공한 사업체가 마련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일한 분량대로 돈을 받는 일의 경우
- 원재료를 제공받아 개인의 가정에서 가공활동을 하고 완료한 일의 분량에 따라 돈을 받는 일의 경우
- 자기 자신의 사업장이나 농장을 가지고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 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경우
예) 식당 운영, 미장원 운영, 법률사무소 운영, 농사짓는 일, 양계장 운영 등
- 소득의 적자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주간에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
- 농림어업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파종, 비료살포, 살균, 어획활동 등 실질적인 농림어업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농기구 손질, 수선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경우
-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형식의 활동인 품앗이(주로 농가에서 이루어짐)

□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함

□ 자기사업장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자기 영업소를 유지하고 있거나, 상당한 가치를 가진 자기소유의 기계 장비를 가진 경우를 말하며, 소속이 없더라도 개별 활동을 하는 경우도 해당

예) 작가, 화가, 배우 등

☞ 자기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 사무실, 상점 또는 자기 영업장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전화서비스, 광고물 설치 등을 통해 사업광고를 하는 경우
- 자기 장비를 가지고 가내수공업을 하는 경우
- 성수기(해당계절)에 경작지, 스키임대 매장, 물놀이 시설 등이 있는 경우

◇ 자기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는 가사서비스 활동을 하는 경우
- 사업장비가 없이 가구를 상대로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경우
- 목수 등이 가구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수리활동

□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 ①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 주변)
- ② 지난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 ③ 자격이 부족하여(교육, 기술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소득

근로소득(일을 해서 얻은 소득) + 사업소득(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 + 이전소득(국가에서 연금형태로 지급해 준 일체의 지원금과 생활비로 타 가구원, 부모,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

□ 종사상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

□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 일한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가구를 달리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니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정규직(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함. 여기에서의 분류는 직업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고용계약기간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함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 일한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가구를 달리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니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정규직(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함. 여기에서의 분류는 직업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고용계약기간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함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됨

-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사업완료가 1년 미만)
-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

☐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함. 직업훈련에는 직장연수, 학원 수강, 직업훈련 등을 포함

- 통신강좌와 교양 강좌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포함되지만 단순한 취미 활동은 제외됨
- 정규학교교육이나 학업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과외도 제외됨

☐ 주택(주거형태) 형태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 ②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 ③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 다가구단독주택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전체층(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아파트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

□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보통 청년층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킴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중·고등학생용 조사표(만 15세~18세)]

- 2017년 6월 말을 기준으로 1998년 7월~2002년 6월 말까지 출생자 중 현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함

-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중인 경우는 만 19~39세용 조사표에 응답함

인구와 가족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년 : 만 세 ~ 만 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각각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생각하는 지 응답
- 연령 범위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으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
연령

-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의 의미는 학업, 군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 비동거인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모와 친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제독립체로서의 독립을 의미함

-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응답 연령이 너무 낮거나 첫 자녀 출산 연령이 분가 및 결혼 연령보다 낮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한 번 올바른 값인지를 확인

예) 문4) 가정 분가 연령을 10세로 응답한 경우

문3) 결혼 연령을 20세로 응답하고 문4. 출산 연령을 15세로 응답한 경우

교육

문10)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공무원, 공단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예시

- 공무원, 공단(공사)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 : 5급, 7급, 8급(국회직, 간호직) 9급 공무원 등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군무원, 기상직, 연구직 등 직렬이 포함됨
 - 공단(공사) :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 산하 특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을 의미함
 - 국가전문자격시험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등
-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같은 국가 기술자격시험과는 다른 자격시험이므로 주의해야 함

경제

문12) 귀하는 2019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입니다.

시간급 원

최저 임금

- 최저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원’ 단위로 응답
- 2018년도 최저 임금인 7,530원보다 적은 금액을 응답한 경우 응답자에게 다시 한번 올바른 값인지를 확인

문16)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용돈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용돈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한 달 용돈

- 한 달 용돈은 한 달 평균 금액으로 ‘만원’ 단위로 응답(문12 최저 임금 문항과 금액 단위가 다르므로 주의)
- 가구 기준이 아니라 본인 용돈을 기준으로 응답

건강

문27)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 28으로 이동

문27-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 ⑦ 매일 | |

규칙적인 운동 횟수

-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하루에 여러 번 했더라도 1일 1회를 기준으로 응답함

예) 응답자가 보통 월, 수, 금요일에 아침에는 조깅, 저녁에는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일 수를 기준으로 주당 3회이므로 ③ 일주일에 3번으로 응답함

사회관계

문33)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친구의 범위

-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을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함

기본 사항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최종학력

- 부모님이 비동거 중이거나 돌아가신 경우라도 최종 학력을 응답하도록 함
- 현재 재학 중이거나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님
예) 아버지가 2-3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을 중퇴한 경우
“④ 고등학교 졸업” 으로 응답
- 대학을 두 개 이상 졸업한 경우는 고학력을 기준으로 응답
예) 어머니가 2-3년제와 4년제 대학을 모두 다니고 졸업한 경우
“⑥ 4년제 대학 졸업” 으로 응답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청년용 조사표(만 19세~39세)]

- 2017년 6월 말을 기준으로 1977년 7월~1998년 6월 말까지 출생자를 대상으로 함
-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인 경우 만 15~18세용 조사표에 응답함

인구와 가족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년 : 만 세 ~ 만 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각각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생각하는 지 응답
- 연령 범위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으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

-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의 의미는 학업, 군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 비동거인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모와 친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제독립체로서의 독립을 의미함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
연령

-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응답 연령이 너무 낮거나 첫 자녀 출산 연령이 분가 및 결혼 연령보다 낮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한 번 올바른 값인지를 확인해야 함
 예) 문4) 가정 분가 연령을 10세로 응답한 경우
 문3) 결혼 연령을 20세로 응답하고 문4. 출산 연령을 15세로 응답한 경우

문8)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기입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맞벌이 기준

- 부부가 모두 6월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 “① 예(맞벌이)”로 응답함
- 6월 말 현재 임신 휴직, 장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일자리로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교육 및 훈련

문15)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학교에 졸업 유예 제도가 없었음

문16) 대학 시절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졸업 유예 구분

- 졸업 유예 제도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정규 학기 이수, 전공 학점, 토익 및 토플, 졸업논문심사 등)을 모두 만족한 상태에서 학생이 별도로 학교 측에 신청,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함
- 학점 미충족, 졸업인증 미제출 등 본인 의도 하에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문15. ② 아니오 -> 문16. ① 예 로 응답해야 함

졸업년도/입학년도
졸업유예

- 최종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입학년도와 졸업년도를 비교, 학기(6개월을 한 학기로 봄)를 모두 이수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필요 이수학과 같거나 적은 경우 인데 졸업 유예 경험에 대해 “① 예”라고 응답한 경우 입학 및 졸업년도를 틀리게 응답한 것을 아닌지 확인이 필요함

문20)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잔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공무원, 공단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예시

- 공무원, 공단(공사)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 : 5급, 7급, 8급(국회직, 간호직) 9급 공무원 등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군무원, 기상직, 연구직 등 직렬이 포함됨
 - 공단(공사) :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 산하 특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을 의미함
 - 국가전문자격시험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등
-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같은 국가 기술자격시험과는 다른 자격시험이므로 주의해야 함

경제

문23) 귀하는 2019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입니다.

시간급 원

최저 임금

- 최저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원'단위로 응답
- 2018년도 최저 임금인 7,530원보다 적은 금액을 응답한 경우 응답자에게 다시 한 번 올바른 값인지를 확인해야 함

문27)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한 달 평균 생활비

- 한 달 생활비는 한 달 평균 금액으로 '만원' 단위로 응답(문23 최저 임금 문항과 금액 단위가 다르므로 주의)
- 가구 기준이 아니라 본인 생활비를 기준으로 응답

문32-1)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문32-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고용위기 해법
용어 설명

- ‘독일, 스위스식의 일·학습 병행제도’는 주당 1~2일은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나머지 3~4일은 기업에서 실무교육 및 고숙련 훈련과정을 거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임
- ‘경제민주화’란 대기업 등에 편중된 부를 공정거래법 등의 법안, 소득 분배, 재벌개혁 등을 통해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내용임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임

문38) 귀하가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개월수를 고려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1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비경제활동 기간

- 일자리가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지속시기를 묻는 문항으로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이상 중 해당하는 기간을 하나만 고르고 기간을 일(1개월 미만일 경우), 개월(1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년 개월(1년 이상일 경우)로 응답함

주거

문48)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건강」 영역(문49)으로 이동

미혼자 주거형태

- 기혼 독립자는 주거형태 응답대상(문48-1)에서 제외

건강

문5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 52으로 이동

문27-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일주일에 1번

② 일주일에 2번

③ 일주일에 3번

④ 일주일에 4번

⑤ 일주일에 5번

⑥ 일주일에 6번

⑦ 매일

규칙적인 운동 횟수

-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하루에 여러번 했더라도 1일 1회를 기준으로 응답함

예) 응답자가 보통 월, 수, 금요일에 아침에는 조깅, 저녁에는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일 수를 기준으로 주당 3회이므로 ③ 일주일에 3번 으로 응답함

사회 관계

문57)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친구의 범위

-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을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함

기본 사항

배경문항 2) [혼인] 귀하는 결혼하십니까?

-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이혼
③ 결혼하지 않음

혼인상태

- 결혼 준비 중으로 곧 결혼을 앞둔 경우라도 “③ 결혼하지 않음”으로 응답
- 결혼식 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① 배우자 있음”으로 응답

배경문항 3)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최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최상

소득 수준 =
경제적 수준

- 부모님의 소득 수준 응답 시에는 근로소득,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 외에도 부동산 소유 등 전체적인 부의 수준을 고려하여 응답함.
예)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정기적인 소득은 없으나 건물 소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 하에 상위 수준으로 분류 할 수 있음

배경문항 4)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본인 기준)는 아래의 문항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소재 (17개 시도 기준)	학교명	전공계열 (*아래표 참조)	입학년월	졸업여부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____년 ____월	① 졸업 ② 졸업안함(재학, 중퇴, 휴학 등)	____년 ____월

최종학력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님
예) 아버지가 2-3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을 중퇴한 경우
“④ 고등학교 졸업” 으로 응답

대학교육

- 대학을 두 개 이상 졸업한 경우는 고학력을 기준으로 응답
예) 어머니가 2-3년제와 4년제 대학을 모두 다니고 졸업한 경우
“⑥ 4년제 대학 졸업” 으로 응답
- 동일 대학을 두 개 이상 다닌 경우는 마지막 학교를 기준으로 응답
예) 2-3년제 대학을 두 개 이상 다닌 경우 더 최근에 다닌 대학을 기준으로 응답
- 캠퍼스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 소재지는 본교가 아니라 캠퍼스 기준으로 응답
- 응답자의 만 연령을 고려하여 대학입학연도가 너무 빠른 경우 재확인 필요
- 2017년 6월이 조사 기준년도이므로 졸업시기는 “2017년 6월” 이후일 수 없음

입학년도

- 해외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제외하고 졸업월은 대부분 2월 또는 8월로 응답되어야 함. 이외 경우는 재확인 필요
- 최종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입학년도와 졸업년도를 비교, 학기(6개월을 한 학기로 봄)를 모두 이수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한 경우 조기졸업 등을 한 경우인지를 면접원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배경문항 5) [취업] 현재 취업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1)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직장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	
(5)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499인 ⑦ 500인 이상	
(6) 근속년수 (현 직장이 아니라 하는 일을 기준으로 응답)	년 개월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 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비임금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규모가 작더라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고용원을 두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일하거나, 돈을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사람(무급가족 종사자)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다음의 경우도 자영업자에 해당됨
 - 일정한 사업장 없이 장사를 하는 행상, 노점상
 - 가내 작업자 중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는 경우
 -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 예) 파외(소속 사업체 없이 혼자 수행하는 경우), 통·번역 등

	• 무급가족종사자 : 자신과 같은 집에 사는 가족(친척) 중의 한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아무런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혈연관계에 있으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경우는 취업자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음 (이 경우에는 일한 대가에 대한 제공여부를 재확인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정규직(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함. 여기에서의 분류는 직업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고용계약기간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함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하여 소속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 단,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사업 완료의 필요기간동안 또는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 ■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 단, 몇 년을 동일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이 임시 또는 일용인 자는 제외
비정규직 (기간제,파견, 용역 등)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 •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사업완료가 1년 미만) •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
근로시간 유형	• 다음의 시간제 근로조건에 1개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일제'임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정규 시간동안 일하거나 ■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종사자수	• 종사자수 응답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함.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 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우리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삼성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 본인을 포함하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사자를 모두 합친 수임 • 고용주는 자신을 포함한 사업체내의 전 종사자수를, 자영업자는 가족종사자가 있는 경우 자신을 포함한 전 종사자수를 기입. 작은 개인 사업체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수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Abstract

Recent changes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s surrounding young people are rapidly changing, which is expected to affect the lives of young people's live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generation and understanding the events and phenomena encountered in the course of life requires a more effective countermeasure based on the diagnosis and analysis of youth and socio-economic situations in a mid - and long-term perspective. In the survey, a survey of youth and economic conditions showed that the surve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overall generation of youth.

In addition, this survey has been officially produced as national recognition statistics since 2017, and produced and published indicators relating to the overall life of young people as a national statistics. (Approval No. 402004 Statistics Korea)

In order to closer look at the dynamics of the current generation of youth and life, the survey examines the question of 7 areas; ① Population and Family(15 items), ② Education and Training (9 items), ③ Economy and Employment (26 items), ④ Dwelling (7 items), ⑤ Health (8 items), ⑥ Culture and Values (3 items), ⑦ Relationship, and Involvement (4 items) and questions related to youth adaptation of young adults developed in 2017, and a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conduct a survey of 8 areas (7 items) relating to the social adaptation of the youth developed by the survey in 2017, and conduc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total of 8 areas.

The survey targets 2,700 people aged between 15 and 39 in the 17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and a professional investigator conducted a direct inspection of the selected household and conducted an interview with a person interviewed for interview with the interviewer. The survey period was conducted for about 5weeks from August 18 to September 22, 2017.

The results of this survey, the 'Preliminary Analysis Report', contained the results of the survey to register in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for approval

statistics holders,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presented as well.

Beginning in 2018, additional research items will be developed in addition to the core of the survey for “a new school (prospective) graduates”, and additional inspections (special module) will be conducted along with this survey.

Keyword: Survey on Young Society and Economy, Population and Family, Education/Training, Economy and Employment, Dwelling, Health, Culture and Values, Relationship and Involvement, NEET, Adolescent Poverty,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Reclusive Loner.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 · 성운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정윤미 · 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 · 박상현 · 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고강혁 · 정윤미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rley, J·Losito, B·Agrust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시과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욱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 · 하형석 · 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 · 이유진 · 정은진 · 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 · 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 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Ⅰ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보고 17-R09-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Ⅱ
- 기초분석 보고서 -

인 쇄 2017년 12월 22일

발 행 2017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참기획 전화 (042-861-638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60-8 94330

979-11-5654-143-1 (세트)

연구보고 17-R09-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 기초분석 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608
ISBN 979-11-5654-160-8
ISBN 979-11-5654-143-1 (세트)